

#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Vol. 10.

Published Semi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Biblical Text Research of the Korean Bible Society; February 2002

## Table of Contents

### • Paper •

[Kor.] Improvements in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 Chang-nack Kim / 7

[Kor.] Reconsidering basic issue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Isa 1:1-9 of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alance between dynamic equivalent translation and expression of Hebrew literary particularities in Korean

----- Cheol-Woo Park / 54

[Kor.] Akkadian Cultic Loan-words in Biblical Hebrew

----- Chul-Hyun Bae / 74

[Kor.] A Study on the Genealogy of *The Holy Bible in Korean Mixed Script* (1906)

----- Moo-Yong Jeon / 90

[Kor.] Elder John So, Colporteur of the Early Korean Church

----- Ky-chun So / 110

# 『표준새번역 개정판』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김창락\*

## 1.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어려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둘 다 놓친다고 한다. 그 두 마리가 정 반대 방향으로 달아날 경우에는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표준새번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출발하였다. 그 한 마리 토끼는 우리말 어법에 맞게 쉬운 말로 번역한다는 것이요 다른 한 마리 토끼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번역 목표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 두 가지 번역 원칙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 어느 쪽에 우선권을 둘 것이냐 또는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 문제를 놓고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우리말 어법에 맞는 알기 쉬운 번역이 되게 하려고 할수록 원문의 표현 방식에서 멀어지며 반대로 원문의 낱말 하나 하나와 문장 구조에 충실하려고 할수록 번역문은 어색한 표현 또는 뜻이 통하지 않는 표현이 되기 마련이다. 성서 번역의 어려움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번역 원칙의 어느 쪽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있다.

우리말은 특히 해방 이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것은 무분별한 외국어식 표현이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 어법에 맞는 말로 번역된 성서를 내놓는 것은 우리말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려야 한다는 중대한 역사적 사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이것은 『표준새번역』이 추구하는 그 한 마리 토끼가 가져다 줄 귀중한 열매일 것이다. 성서 번역의 목표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성서는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다. 성서의 매 구절 구절은 철저한 주석 작업과 설교와 신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원문 성서를 참조할 겨를이 없어서 비록 번역 성서만을 놓고 연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그가 사용하는 번역문이 원문의 의미와 형식에서 빗나간 것이 아니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말 어법에 맞아야 한다는 그 한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으면서 번역문이 원문의 의미와 형식에 일치해야 한다는 또 다른 한 마리 토끼를 쫓는다는 것은 물과 불을 한 그릇에 담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물과 불을 조화시킬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물과 불은 양자택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둘 다 필요한 것이다. 『표준새번역』은 시종일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쫓아 다니는 과정에서 생긴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표준새번역』의 개정판이 이전 판과 비교하여 번역 상으로 달라진 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그렇게 되어야 할 근거를 간략하게 진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래에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개정』으로, 그 이전 『표준새번역 초판』을 『구판』이라는 약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 전 한신대 교수, 신약학.

\*\* 이하 『개역한글판』은 『개역』으로, 『신약전서 새번역』은 『새번역』으로, 『200주년기념 성서』는 『200』으로, 『공동번역 성서』는 『공동』으로 표기한다.

## 2. 우리말 표현과 관련된 문제

### 2.1. 전치사 번역

서구어를 우리말답게 번역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전치사이다. “The thief came in through the window.”라는 영문을 번역한다고 하자. 창문은 출입문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도둑이 창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번역하면 된다. 그러면 “The thief came in through the wall.”이라는 영문은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이 문장은 위의 문장의 번역과 같은 방식으로 “도둑은 벽으로 들어왔다”라고 절대로 번역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벽’은 본래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치사 through의 의미는 영한사전에 ‘...를 통하여’로 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기계적으로 “도둑은 벽을 통하여 들어왔다”라고 번역하고 만다. 그런데 이것은 뜻이 통하는 우리말이 아니다. 벽에 틈바구니가 없는데 그 도둑이 투명 인간이 아닌 이상 어떻게 벽을 통하여 들어왔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이 문장은 “도둑은 벽을 뚫고 들어왔다”라고 번역해야만 원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면서 우리말 어법에 맞는 번역이 된다. “The thief came in through the firmly closed window.”라는 문장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창문이 닫혀 있는 그 상태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도둑은 꼭 닫힌 창문을 부수고/뚫고 들어왔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The thief came in through the rear door.”는 “도둑은 뒷문으로 들어왔다”라고 번역하면 된다. ‘뒷문’이나 ‘창문’은 사람이나 물체가 드나들 수 있는 틈새가 마련되어 있는 물건이다. 어떤 일이 어떤 물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에 그 일이 그 물건의 원래의 용도에 부합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는 ‘도구/방편/수단’을 나타내는 조사(助詞) ‘으로’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뚫다’, ‘부수다’ 등등의 어떤 동사를 사용하여 그 물건과 관계된 사정을 표현해야 한다. ‘통하다’도 동사이지만 “도둑은 벽을 통하여 들어왔다”는 문장에서 ‘벽을 통한다’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다.

헬라이어 전치사 가운데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δια’이다. 전치사 ‘δια’는 2격을 지배하기도 하고 4격을 지배하기도 한다. 헬라이어 사전에 2격 지배 전치사 δια의 의미는 ‘통하여’(=through), 4격 지배 전치사 δια의 의미는 ‘때문에’(=because of/on account of)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서 2격을 지배하는 δια를 ‘통하여’라는 말을 사용하여 번역하면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개역성경』은 δια가 2격을 지배하느냐 4격을 지배하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말미암아’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개역성경』이 신약성서 전체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예외로 하고 단 한번도 δια를 ‘통하여’라는 말로 번역하지 아니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δια + 4격 명사/대명사/부정사’로 구성된 부사구를 번역하는 데는 적절하지마는 ‘δια + 2격 명사/대명사’로 구성된 부사구를 번역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말미암다’라는 낱말에는 ‘통하다’라는 낱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사이에 세워 중개하게 하다’라는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은 ‘δια + 2격’ 부사구가 ‘중개자를 내세워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전판에 비하여 ‘...를 통하여’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롬 1: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 화살표 왼쪽은 『표준새번역 초판』 본문이며, 화살표 오른쪽은 『표준새번역 개정판』 본문이다. 이하

(‘예언자들을 통하여’는 ‘예언자들을 중개자로 내세워서’라는 뜻이다. 그것은 ‘예언자들을 시켜서’와는 어감이 다르다. 또한 히 1:1,2 참조.)

고후 2:14 어디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엡 3:6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복음을 방편으로 본다면 ‘복음으로/복음에 의거하여’로 번역해도 될 것이다.)

엡 3:10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시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행 1:2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에… →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개역』은 성령을 방편으로 보아 “성령으로”라고 번역함.)

\*에베소서 4장 6절의 ‘δία 부사구’는 그 의미가 수수께끼 같아서 어떻게 번역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개역』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공동』은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로 번역함.)

디도 1장 3절에서는 εἰς이라는 전치사도 “통하여”로 번역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제 때가 되었을 때에 선포 활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처소(處所)를 가리키는 전치사 εἰς을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도 가장 어려운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다행히 우리말에는 처소를 가리키는 조사 ‘에’가 있다. “하늘에”, “산에”, “들에”, “집에”, “방에” 등등에 사용된 조사 ‘에’는 하늘, 산, 들, 집, 방이라는 명사 전체 그대로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무엇이 존재하는 장소임을 지시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처소를 표현하려고 할 때에 장소를 뜻하는 이러한 낱말의 특정한 부위(部位)를 지적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산에는 나무가 많다”와 “그 범 죄자는 산 속에 숨어 살아야 했다”라는 문장의 ‘산에는’과 ‘산 속에’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둘 다 똑같이 in the mountain이라고 할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말은 ‘숨어’ 또는 ‘박혀’라는 낱말의 성격 때문에 ‘산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표현보다 ‘산 속에 숨어/박혀 살아야 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에 더 어울린다. 이 경우에 사용된 ‘속’이라는 낱말은 명사이다. ‘속’은 ‘산’이라는 장소의 특정한 부위를 지시한다. 이와 같이 ‘εἰς + 명사/대명사’로 구성된 부사구 또는 형용사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속’, ‘안’, ‘가운데’ 따위의 명사를 보충하여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요 5:26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요 11:17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는 지가 벌써 나홀이나 되었다. →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홀이나 되었다.

행 10:11 그 속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히 9:4도 이와 같음)

요일 1:8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일 2:5,9,14,24,27; 3:5; 5:9도 위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고후 4:7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 21:12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막 11:15도 이와 같음)

막 5:5 『구판 + 개정』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 대고… (\*복수명사가 εv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는 ‘가운데’라는 명사를 첨가하기도 하며 간혹 ‘사이’라는 명사를 첨가하기도 한다. 막 5:3도 이와 같음.)

마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εv +사람을 지칭하는 복수형 명사/대명사’로 구성된 부사구를 번역할 때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가운데’라는 명사를 덧붙여 번역한다(마 4:23; 18:2; 20:26; 26:5; 27:56 등등 사례는 무수히 많다).

다음 두 문장에서 똑같이 ‘εv + 복수명사’가 사용되었지만 번역은 전혀 다르게 해야 한다.

마 10:16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막 5:12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둘째 문장은 귀신들이 하나 하나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의 몸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요 17:13 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 1:27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고후 13:5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빌립보 1장 6절의 εv υμιν은 ‘여러분 가운데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서’로 번역할 수도 있다. 내면적 현상을 지칭하는 경우에 ‘여러분 안에’와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와 ‘우리 속에’, ‘내 안에’와 ‘내 속에’라는 두 가지 표현 중에 어느 쪽이 우리말 어법에 더 어울리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요 15:4,7; 17:23; 갈 2:20; 요일 4:4,13,15,17 참조).

그런데 in Christ, in Christ Jesus, in the Lord라는 어구는 전통적 번역의 선례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로 번역하였다. 이 어구들은 장소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또는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확실하게 가리기 어렵다. 그 의미는 주석을 거쳐야만 드러난다. 이와 유사하게 ‘in Adam’이라는 어구도 ‘아담 안에서’로 번역하였다.

## 2.2. 남성중심적인 표현을 성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문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형제 여러분”(고전 1:10 등등) 하는 부름말을 붙여서 한 말은 그 곳 교회의 남자 신도들만을 상대로 한 말이 아니라 남녀 신도 모두에게 한 말이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표현을 성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세계 각국의 성서 번역의 공통

적인 대세이다. 『표준새번역』도 이러한 대세를 따르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는 『표준새번역 구판』의 번역 작업이 완료되는 순간까지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 당시까지 나온 몇 가지 제안은 1) 형제자매 2) 형제(자매) 3) 형제<sup>자매</sup> 4) 신도 5) ‘형제’에 각주 번호를 붙이고 각주 난에 ‘자매’라는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자는 것 등이었다. 이 문제는 최종 원고를 편집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급박하게 매듭지어야 했기 때문에 허술한 점이 몇몇 생기게 되었다.

마 23:8 너희의 선생은 한 분 뿐이요, 너희는 모두 학생이다. → 너희의 선생은 한 분 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눅 17:3 다른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마 18:15,16,17의 ‘신도’를 ‘형제’로 개정한 것은 퇴보인 것 같다.)

막 3:34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행 2:37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려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실제로 모두 남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라는 원래의 표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벧전 2:17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벧후 1:7 경건에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살후 3:15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신도에게 하듯 그렇게 타이르십시오. →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 2.3. 수동태로 표현된 것을 가능한 한 능동태로 바꾸었다.

『구판』에서 수동태로 남아 있던 부분을 다듬었다.

마 5:4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마 5:7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 5:9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 7:7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 주실 것이다. →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마 3:10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갓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롬 1:17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롬 3:4; 8:36; 9:13,33; 11:8; 15:21 등등 참조.)

### 2.4. 어려운 낱말을 쉬운 말로 바꾸었다.

마 5:25 옥리 → 형무소 관리

- 마 6:4 은밀한 일도 보시는 →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 마 6:6 은밀하게 계시는 → 숨어서 계시는
- 막 6:7 제어하는 → 억누르는
- 엡 5:12 은밀히 하는 → 몰래 하는
- 마 20:28 대속물로 내주러 → 몸값으로 치러주러
- 막 10:45 대속물로 → 치를 몸값으로
- 막 14:1 흉계를 꾸며서 → 속임수를 써서
- 눅 19:8 강탈을 했으면 →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 눅 12:13 유업 → 유산
- 요 3:16 독생자 → 외아들
- 롬 3:24 속량 → 구원
- 엡 6:11 장비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 요일 2:18 적그리스도 → 그리스도의 적대자 (또한 요일 4:3)

2.5. 절대 최상급 표현을 문법에 맞게 바로 잡았다.

- 마 21:9 가장 높은 곳에서 → 더없이 높은 곳에서 (막 11:10; 눅 19:38 병행)
  - 막 5:7 가장 높으신 하나님 →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 눅 1:76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 →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
  - 눅 2: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 눅 16:10 가장 작은 일에 → 지극히 작은 일에
  - 히 7:1 가장 높으신 하나님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 다음과 같은 것은 비교물이 있어도 절대 최상급으로 번역하였다.
- 마 2:6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 마 5:19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 마 5:19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2.6. 공간적 앞섬을 뜻하는 곳에는 ‘먼저’를 ‘앞서’로, 시간적 앞섬을 뜻하는 곳에는 ‘앞서’를 ‘먼저’로 고쳤다.

- 마 11:10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막 1:2; 눅 7:27 병행)
- 눅 1:76 주님보다 먼저 가서 → 주님보다 앞서 가서
- 요 10:8 나보다 앞서 온 사람은 →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2.7. 신체 장애인들을 지칭하는 말을 순화시켰다.

- 마 15:30 맹인과 지체 장애자 →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 먼 사람과
- 눅 14:13 지체 장애자들 →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2.8. 어떤 사람이 “아내들이여”, “종들이여” 하고 부르면 상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내들이며 종들이라는 어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

우에 “아내 된 이들이여”, “종으로 있는 이들이여”라는 식으로 바꾸었다.

엡 5:22; 골 3:18 아내이신 여러분 → 아내 된 이 여러분  
 엡 5:25; 골 3:19 남편이신 여러분 → 남편 된 이 여러분  
 엡 6:1; 골 3:20; 요일 2:12 자녀이신 여러분 → 자녀 된 이 여러분  
 엡 6:5; 골 3:22 종이신 여러분 →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벧전 2:18 하인 여러분 →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벧전 3:1 아내 여러분 →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요일 2:13,14 아버지이신 여러분 →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마 1:6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2.9. 하나님을 높이어 일컫는 대명사로 사용한 ‘당신’을 다른 말로 바꾸었다.

눅 1:68,69,70,72 당신의 → 자기의  
 롬 1:2 당신의 → 그의  
 벧전 1:2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계 17:17에 두 번 사용된 ‘당신의’는 수정에서 누락되었다.

2.10. 자기를 극도로 낮추어 일컫는 대명사인 ‘저’, ‘저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행 26:2,3,4,5,6,7,9,10,11,12,13,14,15,19,22,25,26,29 저, 제, 저희 → 나, 내, 우리  
 막 5:23 저의 어린 딸이 → 내 어린 딸이  
 눅 18:18 제가 → 내가  
 행 9:13 저는 → 나는

2.11. 예수의 말씀은 ‘하여라 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몇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에 좀 더 어울리게 바꾸었다.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눅 22:66-70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라”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요 18:20-2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다...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



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물어보아라. ...그들이 알고 있다.” →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물어보시오. ...그들이 알고 있소.”

요 18:23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어라.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이 밖에도 요 18:33-38; 19:10-11.

눅 13:12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났소” 하시고 →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눅 3:16-17 물로 세례를 줍니다. ...오십니다. ...없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태우실 것입니다. →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터인데, ...없소. ...주실 것이오. ...태우실 것이오.

2.12. ‘주의’(=주의)는 ‘주의(主義)’로 잘못 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로 고쳤다.

마 1:22; 2:15 등등 주의 → 주님의

2.13. πολις를 여러 경우에 ‘고을’로 번역하였다.

복음서에 나오는 πολις는 오늘날의 대도시나 중소 도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소읍(小邑) 또는 성읍(城邑)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지만 『구판』에서 ‘성/성읍/도시’로 번역한 것을 ‘고을’로 고친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수도’(首都)라는 의미로 ‘도성’(都城)으로 번역하였다.

마 10:5,11,14,15 등등, 도시, 성, 성읍 → 고을  
계 11:2; 21:2,10,11,12,14,15,16,23,24,25,26,27 도시 → 도성

2.14. 고유명사 표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막 7:26 수로보니게 → 시로페니키아  
행 21:2 베니게 → 페니키아  
행 15:23 수리아 → 시리아

2.15. 다음은 원문의 발음에 가깝게 고친 곳이다.

마 1:7 아사 → 아삽  
눅 3:26 서머인 → 세메인  
눅 3:29 엘리어서 → 엘리에제르  
눅 3:30 엘리아김 → 엘리아김  
눅 3:33 아니 → 아르니  
눅 3:35 스룩 → 스룩  
눅 3:35 헤버 → 에벨

2.16. 좀더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었다.

- 마 1:1 족보 → 계보  
 17 잡혀 갈 → 끌려 갈
- 마 2:22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 마 3:13 찾아오셨다 → 찾아가셨다
- 마 4:12 물러가셨다 → 돌아가셨다
- 마 5:35 큰 임금의 도성 → 크신 임금님의 도성
- 마 6:33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 마 8:28 너무나 사나웠으므로 → 너무나 사나워서  
 33 퍼뜨렸다 → 알렸다
- 마 12:38,39 등등 표적 → 표징
- 마 13:10 예수께 여쭙었다 → 예수께 말했다  
 30 거들 때가 될 때까지 → 추수 때까지  
 30 거들 때에 → 추수 때에  
 30 일꾼 → 추수꾼  
 58 행하지지 않으셨다 → 행하지 않으셨다
- 마 14:15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15홀어 보내서 → 헤쳐 보내어
- 마 15:2,3,6 관습 → 전통  
 30 일어서지 못하는 → 걷지 못하는
- 마 17:1 높은 산으로 가셨다 →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 마 19:1 유대 지역 → 유대 지방  
 17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 선한 분은 한 분이다
- 마 21:7 나귀와 새끼 나귀 →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 마 22:32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 말씀하셨다
- 마 24:3 저희에게 → 우리에게
- 마 28:12 군인들에게 → 병사들에게
- 막 1:22 그의 가르치심 → 그의 가르침
- 막 2:11,12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 네 자리를 걷어서  
 28 안식일에조차도 → 또한 안식일에도
- 막 3:16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 막 4:12 그들이 돌이켜 → 그들이 돌아와서
- 막 4:27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28 땅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는데 →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34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나 →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37 거의 가득 찼다 → 벌써 가득 찼다
- 막 5:14 달음질하여 → 달아나  
 28 생각했던 것이다 →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29 그런 다음에 → 그래서
- 막 6:9 두 벌 옷을 가지지 → 옷은 두 벌 가지지  
 31 외딴 곳으로 가서 → 외딴 곳으로 와서
- 막 7:28 아이들 → 자녀들
- 막 8:32 예수를 꼭 붙들고 →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 막 9:4 말을 나누었다 → 말을 주고받았다  
 8 바로 둘러보았으나 → 문득 둘러보았으나

- 43 지체 장애인으로 → 한 손을 잃은 채로
- 50 그 잔맛을 내겠느냐? →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 막 10:11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요 →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 13 바라는데 → 바랐다. 그런데
  - 42 민족들을 → 이방 사람들을
  - 42 그들을 → 백성들을
- 막 11:1 올리브 산 근처인 벳바게 →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
  - 13 무화과의 때 → 무화과의 철
- 막 13:36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 주인이 갑자기 와서
- 막 14:3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 → 나병 환자였던 시몬
  - 34 내 마음이 괴로워 → 내 마음이 근심에 싸여
- 눅 1:3 처음부터 → 시초부터
  - 3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 드리는 →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 10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 온 백성은 다 밖에서
  - 13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니 →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 22 본 줄을 알았다 → 본 줄로 알았다
  - 28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 42 태 속에 있는 → 태중의
  - 44 " "
- 눅 2:8 그 지역의 목자들이 →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 9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 그들을 두루 비추니
  - 20 듣고 본 모든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 29 떠나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 51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 눅 3:38 아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이른다 →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 눅 4:6-7 줄 것이니 → 준다. 그러므로
  - 7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 13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 18 자유를, → 해방을 선포하고,
  - 18 다시 보게 함을 → 눈뜸을
  - 29 있었으므로 → 있으므로
  - 32 그의 가르치심 → 그의 가르침
  - 41 그를 그리스도로 알았기 →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 눅 5:5 말씀에 따라 → 말씀을 따라
  - 14 깨끗하게 된 것에 관하여 →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 16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 17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계셨다 →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 19 기와를 벗기고 →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 24 침대를 거두어 들고 → 침상을 치워 들고
- 눅 6:45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 45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 눅 7:29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다 → 하나님의 옳음심을 드러냈다

- 눅 8:27 그 동네에 사는 → 그 마을 출신으로서
- 눅 9:31 죽으심에 → 떠나가심에  
45 이 말씀에 대하여 → 그 말씀에 관하여
- 눅 11:8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11 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19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 바알세불을 힘입어  
20 하나님의 능력으로 →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23 내 편에 서지 않는 → 나와 함께 하지 않는  
25 청소되고 → 치워져 있고  
46,47,52 화가 있을 것이다 → 화가 있다  
48 무덤을 꾸미고 있기 때문이다. →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 눅 12:2 덮어둔 → 가려 놓은  
2 숨긴 것 → 숨겨 놓은 것  
21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 눅 13:7 찾지 못하였다 → 열매를 본 적이 없다  
31 죽이려고 → 죽이고자
- 눅 14:5 너희는 → 너희 가운데서 누가
- 눅 15:2 수군거리며 → 투덜거리며  
19 품꾼으로 → 품꾼의 하나로
- 눅 16:25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 눅 18:31 인자에 관하여 → 인자를 두고
- 눅 19:41 눈물을 흘리시며 42 이렇게 말씀하셨다. → 우시었다. 42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42 평화의 길 →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 눅 20:1 복음을 전하고 → 기쁜 소식을 전하고  
28 어떤 남자 → 어떤 사람  
28 그 남자가 → 그 동생이
- 눅 21:14 명심해서,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말아라 →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 눅 22:7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자 →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 눅 23:2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는데 →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8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다 →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14 당신들이 고소한 것과 같은 →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39 죄수 가운데 한 죄수도 → 죄수 가운데 하나도
- 눅 24:4 모르고 있는데 →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16 눈이 가리어서 → 눈이 가려져서  
51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 요 1:3 생겨났으니 → 창조되었으니  
4 생겨난 것은 → 창조된 것은  
15 그를 증언하여 →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47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 요 2:23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24 그들을 의지하지 →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 요 3:1 유대 의회원 →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
- 요 5:4 물이 움직일 때에 → 물이 움직인 뒤에  
 31 나 스스로를 두고 증언을 한다면 → 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한다면  
 45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소를 하리라고는 →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45 너희를 걸어서 고소하는 이는 →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 요 6:47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 요 7:28 성전 안에서 → 성전에서  
 46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49 무리 → 이 무지렁이들
- 요 8:6 고소할 구실을 → 고발할 구실을  
 28 말했다는 것을 → 말한다는 것을  
 29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신다. →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셨다.  
 39 아브라함의 자손 → 아브라함의 자녀  
 39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였을 →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41,44 아버지 → 아비
- 요 9:8 거지였던 것을 → 거지인 것을  
 41 죄가 없었을 것이다 → 죄가 없을 것이다
- 요 11:17 무덤 안에 → 무덤 속에  
 48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50 백성을 대신하여 → 백성을 위하여
- 요 12:16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 회상하였다  
 27 이 일을 위하여 → 이 일 때문에  
 40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 요 14:2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6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 요 15:19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19 사랑했을 것이다 → 사랑할 것이다
- 요 16:8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9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10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11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 요 18:26 귀를 잘렸던 → 귀를 잘린
- 요 19:11 나를 해할 → 나를 어찌할
- 요 19:23,24 군인들 → 병정들  
 30 신 포도주를 드시고 →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35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

- 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였다. →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 요 21:8 들어가 있었다 →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25 부족하리라고 → 부족할 것이라고
- 행 1:2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에 →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3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6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11 다시 오실 것이다 → 오실 것이다  
 16 유다에 대해서는 → 유다에 관하여  
 16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25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겠는지 →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 행 2:3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혀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11 이야기하는 것을 → 말하는 것을  
 22 증언하신 → 증명해 보이신  
 33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 나누어 가졌다 → 나누어 주었다  
 46 집마다 빵을 떼면서 →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 행 3:18,21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23 빼내어 없앨 것이다 →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 행 4:23 놓이는 → 풀려나는
- 행 5:5,11 들은 → 듣는  
 38 이 계획과 활동이 → 이 계획이나 활동이
- 행 6:1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 행 7:14 칭하여 오게 → 모셔 오게  
 29 두 아들을 → 아들 둘을  
 41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 행 8:1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3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 행 9:22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31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 갔고
- 행 10:11; 11:5 네 귀통이에 끈이 달려서 → 네 귀통이가 끈에 매달려서
- 행 10:29 거절하지 → 반대하지
- 행 11:2 할례를 받은 신도들이 →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21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 행 13:6 온 섬을 두루 다니다가 →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7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있게 하는 →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 2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제 여러분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31 그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 예수의 증인입니다  
 33 다시 살리셔서 → 일으키셔서  
 43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
- 행 14:16 각자의 방법대로 → 자기네 방식대로
- 행 15:14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 사람들을 처음으로 돌보신 경위에 대해서는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 40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 행 16:3 할례를 주었다 → 할례를 행하였다  
 25 한밤중에 → 한밤쯤 되어서
- 행 17:30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 눈감아 주셨지만
- 행 18:6 먼지를 털고서 → 먼지를 떨고서  
 26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 행 19:4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 세례를 주었습니다
- 행 20:12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 행 21:22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35 군중의 폭행 때문에 →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 행 22:10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말해 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 →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 줄 것이다  
 11 같이 가는 사람들 → 함께 가던 사람들  
 16 당신의 죄를 씻어주심을 받으시오 →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18 나를 두고 한 네 증언을 → 나에 관한 네 증언을
- 행 23:3 "그대,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치실 것이요. 그대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12 무리를 지어서 → 모의하여  
 16 조카 → 누이의 아들
- 행 24:10 몸짓을 하니 → 머리를 끄덕이니
- 행 25:17 같이 → 함께  
 24 함께 계신 → 자리를 같이 하신
- 행 26:18 어둠에서 빛으로, → 빛으로 돌아서고,  
 29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말고는 →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 행 27:2 함께 있었다. → 함께 하였다.  
 13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으므로 →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21 그 때 바울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23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39 알 수 없었으나, → 알 수 없지만,
- 행 28:21,22 그대 → 당신  
 23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을 데리고 →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27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 이

- 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 롬 1:1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 4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5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6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 7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 8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9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 속을 알고 계십니다.
- 11 어떤 신령한 은사를 → 신령한 은사를 줌
- 17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 21 어둠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 어두워졌습니다
- 23 네 발 달린 짐승 → 네 발 짐승
- 롬 2:1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1 남을 심판하는 것은 →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3 사람이 있는데, → 사람이여,  
(3,5,17,21절 사람 → 그대)
- 롬 3:4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4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에 → 재판을 받으실 때에  
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 의롭게 하여 주심을 → 의롭다는 선고를  
26 자기의 의를 → 자기의 의로우심을  
26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 의롭다고 하신다는  
28 의롭게 하여 주심을 →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 롬 4:3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5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 → 의롭다고 하시는 분  
5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8 인정해 주시는 → 인정해 주실



- 9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 의로 여기셨다
- 11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 11 의로움을 인정받게 →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 13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 22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 23 그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 24 의롭게 여겨 주실 → 의롭다고 여겨 주실
- 롬 5:1 의롭게 하여 주심을 → 의롭다 하심을
  - 1 평화를 누립니다 →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 4 품격 → 단련된 인격
  - 18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 21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 2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을
- 롬 6:4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 새 생명 안에서
  - 5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 10 죄에 대하여 단 한번만 → 죄에 대해서 단번에
- 롬 7: 2,3 여인 → 여자
  - 4 속하였습니다 → 속하게 되었습니다
  - 6 우리를 얽어 매던 것에서 → 우리를 옳아뻐던 것에 대하여
- 롬 8:2 여러분 각자를 → 당신을
  - 33 고소하겠습니까? → 고발하겠습니까?
  - 34 다시 살아나셔서 → 살아나셔서
- 롬 9:3 내 동족 내 겨레 → 내 동족인 내 겨레
  - 5 만물 위에 계시면서, → 만물 위에 계시며
  - 32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 롬 10:1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 20 찾지 않던 → 찾지 않는
  - 20 구하지 않던 → 구하지 않는
- 롬 11:17 돌올리브 나무를 접붙였다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참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18. 여러분 각자는 돌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런 가지는 → 돌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18 그대는
  - 18 그 가지가 → 그대가
  - 18 그 가지를 → 그대를
  - 19 여러분 각자는 “...”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 24 여러분 각자가 → 그대가
- 롬 12:3 한 사람 한 사람에게 → 각 사람에게
  - 8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 10 육친의 사랑으로 → 형제의 사랑으로
- 롬 13:4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 4 여러분 각자가 → 그대가
- 8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 롬 14:10 우리는 → 그대는
- 롬 15:31 기쁜 선물이 되도록 →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 33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 롬 16:25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 고전 1:6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 9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 10 일치되는 말을 → 같은 말을
- 12 바울 궤다 → 바울 편이다
- 14 여러분 가운데 → 여러분 가운데에서
- 14 가이오 말고는 → 가이오 밖에는
- 16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 23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전합니다. →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 23 어리석음이지만 → 어리석은 일입니다
- 25 강하기 때문입니다 → 강합니다
- 26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 27 어리석은 것 → 어리석은 것들
- 27 강한 자들 → 강한 것들
- 27 약한 것 → 약한 것들
- 28 비천한 것 → 비천한 것들
- 28 멸시받는 것 → 멸시받는 것들
- 고전 2:3 약하였고, 두려워 하였고, →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 7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 고전 3:9 하나님의 집입니다 →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 10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 기초를 놓았습니다
- 11,12 터 → 기초
- 15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서 살아나오듯 →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 18 스스로를 생각하거든, → 스스로 생각하거든,
- 고전 4:6 뽐내지 못하게 → 뽐내지 않도록
- 7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 그대를
- 7 여러분 각자가 → 그대가
- 8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 8 왕처럼 다스렸으면 → 왕처럼 되었으면
- 8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면

9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 내놓으셨습니다

10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으나,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  
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15 나는 → 내가

17 주 안에서 사랑하는 → 주님 안에서 얻은 사랑하는

19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말의 시비를 가려 볼 생각은  
없습니다. →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전 5:2 제거해야 → 제거했어야

4 함께 모일 때에 → 모여 있을 때에

4 여러분과 한 자리에 → 여러분과 함께

7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8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이 된 빵으로 →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  
룩 없이 빚은 빵으로

11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 신도라 하는 어떤

고전 6:2 가장 작은 → 아주 작은

4 소송이 → 송사가

9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  
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19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  
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9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 여려  
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고전 7:1 문제에 관하여 → 문제를 두고

4 아내는 → 아내가

11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2 신도에게 → 교우에게

12 그 여자와 이혼하지 → 그 여자를 버리지

13 그 남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25 처녀들에 관해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  
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27 아내를 새로 맞으려고 → 아내를 얻으려고

28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28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고전 8:1 고기에 관하여 → 고기에 대하여

5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  
다고 하지만, →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  
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7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7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10 어떤 약한 사람이, 지식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 지식을 가진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11 그 약한 신도는 여러분의 →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13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 13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 그가
- 고전 9:11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25 썩어질 월계관 → 썩어 없어질 월계관  
 25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 → 썩지 않을 월계관
- 고전 10:4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5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 그들의 대다수를 ... 좋아하지  
 13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습니다. →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19 우상 앞에 놓인 제물 → 우상에게 바친 제물  
 24 누구든지 → 아무도  
 25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27 양심을 생각하여 →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29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니까? →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 고전 11:3 아내의 → 여자의  
 3 남편이요 → 남자요  
 17 문제에서는 → 일에 대해서는  
 18 교회에서 → 교회에  
 23 빵을 드시어서 → 빵을 들어서  
 29 주님의 몸을 → 몸을
- 고전 12:19 한 지체 → 하나의 지체
- 고전 13:1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3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 내가 자랑삼아
- 고전 14:16,17 여러분 각자가 → 그대가  
 18 방언으로 말하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3 방언으로 말하면, 초신자나 불신자가 들어와서 듣고 →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 고전 15:2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10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 또 → 또한  
 37 그리고 뿌리는 것은 →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50 유업 → 유산  
 57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 고후 1:3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입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4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시오

니다 →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15 두 배의 은혜를 → 두 번 다시 은혜를

23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지금 이 말을 합니다. →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고후 2:2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썸이 되지 않겠습니까? →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14 우리로 → 우리를 통하여

고후 3:7 빛이 났습니다 → 광채가 났습니다

9 영광이 있었으니 → 영광이 있었으면

16 주께로 돌이키면 → 주님께로 돌아서면

고후 4:1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7 질그릇 속에 → 질그릇에

8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8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13 나는 믿었으므로 말했다 →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고후 5:1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4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덧입기를 바랍니다

11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12 대답할 말을 하게 → 대답할 말을 가지게

21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6:1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4 겪었습니다. → 겪습니다.

7 이 일을 해 왔습니다 → 이 일을 합니다

9 죽은 사람 → 죽는 사람

11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12 응색 → 응졸

13 보답하는 뜻으로 → 보답하는 썸으로

고후 7:1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8:5 주님께 드리고 → 주님께 바치고

고후 9:9 그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 →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고후 10:2 내가 떠나 있을 때에 → 내가 ... 여러분을 대할 때에

11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알아야 합니다

고후 11:2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시켰습니다. →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5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 → 저 거물급 사도들

- 19 어지간히 → 어지간히도  
 26 거짓 형제자매 → 거짓 형제  
 32 총독 → 총리
- 고후 12:11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 → 저 우두머리 사도들  
 12 표적과 기사와 기적으로써 사도가 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  
 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 고후 13:2 죄 지은 사람들이나 → 범죄한 사람들과  
 3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약하지 않습니다 →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5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 갈 1:14 나와 비슷한 나이의 →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22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 갈 2:12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자 → 오니
- 갈 2:16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16 율법을 지키는 행위 → 율법을 행하는 행위  
 16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19 율법 앞에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  
 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19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  
 신 안에서 사는 것은 →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  
 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 갈 3:7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 믿음에서 난 사람들  
 18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 율법에서 난 것이면  
 18 약속에서 나온 것이 → 약속에서 난 것이  
 21 주어진 율법이 → 중개자가 준 율법이  
 22 성경을 보면 → 성경은  
 28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 갈 4: 4 여인에게서 → 여자에게서  
 6 자녀가 되었으므로 → 자녀이므로  
 6 보내 주시고 → 보내 주셔서  
 20 이야기를 나눌 수 → 말할 수  
 25 하같은 → ‘하갈’이라 하는 것은
- 갈 5:1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1 종의 멍에를 → 종살이의 멍에를  
 6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21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과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과, 그와 같은  
 22 평화와 → 화평과
- 갈 6:1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2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 엡 1: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13 성령의 인치심을 → 성령의 날인을
- 2:4 그 큰 사랑으로 →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 범죄로 죽었던 → 범죄로 죽은  
11 육신에다가 행하는 → 육체에 행한  
11 일컬어졌습니다 →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12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20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21 성전으로 자랍니다 →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 엡 3:6 복음을 듣고서 → 복음을 통하여  
6 함께 상속자가 → 공동 상속자가  
6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7 복음의 일꾼 → 복음을 섬기는 일꾼  
18 넓이 → 너비
- 4:1 주님의 일로 → 주님 안에서  
2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4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11 목회자 → 목사  
16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므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양을 공급 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게 합니다 →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 엡 5: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13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 엡 6:17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 빌 1:1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19 알기 때문입니다 → 압니다  
20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26 그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감으로써, 여러분이 나를 대면하는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27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 빌 2:1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5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19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 여러분의 형편을 앎으로써
- 빌 3:2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 3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4 육체에도 신뢰를 → 육신에도 신뢰를  
 4 육체에 신뢰를 → 육신에 신뢰를  
 6 흠 잡힐 데가 없습니다 →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9 율법에서 오는 → 율법에서 생기는  
 13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4 목표를 향하여 → 목표점을 바라보고
- 빌 4:1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9 여러분과 계실 것입니다 →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14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 동참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22 가이사의 집 사람들 →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 골 1:2 편지합니다 → 이 편지를 씁니다  
 18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20 기쁘게 → 기꺼이  
 22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27 여러분 가운데 계신 → 여러분 안에 계신
- 골 2:15 내세우심으로써 → 내세우셔서  
 16 어떤 사람도 → 아무도  
 21 만지지도 말아라 → 건드리지도 말아라
- 골 3:1 살려 주심을 받았으니 →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4 영광 가운데 → 영광에 싸여  
 15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 골 4:3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 살전 5:6 깨어 있으면서 → 깨어 있으며
- 살후 1:8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 불꽃에 싸여 나타나셔서
- 딤후 2:2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 딤후 1:12 내가 믿는 분 → 내가 믿어 온 분
- 딤후 4:17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서
- 몬 5 그대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6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권이 효력을 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 그대의 믿음의 사권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 히 1:2 아들을 시켜서 → 아들을 통하여  
 2 그로 말미암아 → 그를 통하여
- 히 6:13 당신보다 → 자기보다  
 13 당신 스스로를 → 자기를
- 히 7:11 서열 → 계통
- 히 8:1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 히 9:2 앞칸에 → 첫째 칸에
- 히 10:20 휘장을 꿰뚫어서 → 휘장을 뚫고



- 히 11:2 옛 조상들 → 선조들  
 4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7 믿음을 따른 의 → 믿음을 따라 얻는 의  
 13 멀리 → 멀리서  
 40 세워 두셨기 때문에 → 세워두셔서  
 40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 히 12:5,6,7... 혼련 → 징계  
 약 3:14,16 파당심 → 경쟁심  
 벰전 1:2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 거룩하게 해 주셔서  
 벰전 2:5 살아 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 살아 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벰후 2:20 구세주 → 구주  
 요일 3:11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23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요삼 12 그 진실한 삶이 스스로 그렇게 평하여 주었습니다 →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 유 3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써 준비를 해 왔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 유 23 또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 계 2:1,8,12... 천사 → 심부름꾼  
 계 5:1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을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계 22:7 내가 곧 가겠다 → 내가 곧 오겠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주신 약속으로 들리기 때문에 '오겠다'로 해야 할 것이다.)

### 2.17. '쫓아내다'와 '내쫓다'

'귀신을 쫓아내다'와 '귀신을 내쫓다'는 두 표현은 어느 쪽이 옳은가? 둘 다 옳다고 보아야 하는가? 의미가 다른가? 국어 사전의 개념 정의로도, 국어 학자들의 견해로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다. 『개역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구판』에서는 이 표현을 모두 '귀신을 내쫓다'로 바꾸었다.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다시 바꾸기로 하였다. 다만 이 작업이 철저하지 못하여 누가복음에는 『구판』 그대로 '귀신을 내쫓다'로 되어 있다.

### 2.18. 주격 조사를 문맥에 적절하게 고쳤다.

서신의 발신인을 표시하는 주격 조사는 모두 ‘…은/는’을 ‘…이/가’로 바꾸었다. 예를 들면, 이 발신인 표시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수신인에게 알리는 것이지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주격 조사는 ‘바울이’이다. 해외 주재 기자가 국내로 뉴스를 전달할 때에 “아무 아무개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 8:28 그들이 너무나 사나웠으므로 →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29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

마 10:24 제자는 → 제자가

### 3. 원문과 관계된 문제

3.1. 바울의 대화적 논쟁 방식에 등장하는 가상적 ‘그대’(=2인칭 단수)를 한 일반 사람(=3인칭 단수)으로 처리한 것을 원문을 살려 번역하였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석상으로 일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나 실제의 화자(話者)를 지칭하는 것이나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나’(=I) 또는 ‘우리’(=we)라는 대명사를 번역하는 것과 일관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롬 2:3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롬 2:4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롬 2:1,5,17-23,25,27는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문장의 주어가 2인칭 복수에서 갑자기 2인칭 단수로 바뀔 경우가 있다. 우리말에는 ‘여러분’에 대응되는 ‘단수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기 위하여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했다(갈 4:7; 롬 13:4 등등).

3.2. 그리스어 문법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형 분사가 사용되었는지 단순과거형 분사가 사용되었는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막 14:26). 노래를 부른 것은 올리브 산으로 가기 전에 행한 일이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서’는 단순과거형 분사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라고 하면 노래를 부르는 행위와 올리브 산으로 가는 행위가 동시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라는 의미를 그리스어로 표현하려면 현재형 분사를 사용해야 한다.

행 13:16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을 해 가면서 말하였다. →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

다.

특히 [단순과거형 + ‘말하다’ 동사의 정형 또는 분사]로 구성된 문장을 번역할 때에 위의 원칙을 어떻게 고수해야 할지 주의해야 한다.

마 4:8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9 그에게 말하였다. →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9 말하였다.

마 12:49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 하고 말씀하셨다. →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

마 27:3 그 은돈 서른 닢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 그 은돈 서른 닢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막 3:34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막 10:49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리서 그에게 말하였다. (\*부르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요 20:22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숨을 내뿜으시거나 불어 넣으시는 행위와 말씀하시는 행위는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행 12:7 옆구리를 찢어 깨우며 말하기를 →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말에서 “문 닫고 들어오너라”라는 표현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단순과거 분사를 원칙대로 번역하면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막 11:1-2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둘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막 6:7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보내기 시작했다’(=‘시작하다’의 단순과거 = ‘보내다’의 부정사)는 ‘보내다’의 단순과거와 같은 셈이다. ‘주다’는 반과거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보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면서 보내신 것이다. 원문의 동사 배열 순서를 따라 ‘보내시며 주시었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

이와 달리 현재분사를 ‘…하고’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다.

막 1:5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번역해도 된다. ‘세례를 받다’는 반과거, ‘고백하다’는 현재분사이다.)

단순과거의 동작이 일어나는 양태는 일회적이며 단절적이다. 이 사실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석적으로 중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마 26:26-27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것을 마셔라.” →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들다<sup>1</sup>=단순과거 분사; 축복하다=단순과거분사; 떼다=단순과거; 주다<sup>1</sup>=단순과거 분사; 말씀하

다<sup>1</sup>=단순과거; 들다<sup>2</sup>=단순과거 분사; 감사를 드리다=단순과거 분사; 주다<sup>2</sup>=단순과거; 말씀하다<sup>2</sup>=현재분사. 주의할 점은 단순과거는 동작이 지속적 양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빵 말씀에서 ‘주시고’와 ‘말씀하셨다’는 두 행위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가 일어날 때에 지속되는 것일 수가 없다. 두 행위는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 둘은 “주시고 말씀하셨다”로 번역해야 한다. ‘축복하다’와 ‘떼다’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다.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는 행위가 일어났다. 잔 말씀에서 ‘주다’는 단순과거이고 ‘말씀하다’는 현재분사이다. 이 경우의 현재분사는 문장론적으로 ‘and + 동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시고 말씀하셨다”로 번역해야 한다. 원래의 성만찬 의식에서 이른바 빵 말씀과 잔 말씀이 어느 단계에서 발언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은 성만찬의 본래적 형태와 의미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단순한 물질인 빵과 포도주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변했는가 또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가 하는 물음은 교리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다만 본문에 의거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빵 말씀과 잔 말씀은 분배되기 전에 빵과 포도주를 각각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주술적 효력을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장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빵을 들다’와 ‘축복하다’, ‘잔을 들다’와 ‘감사 기도를 드리다’의 관계이다. 축복을 하실 때에 예수는 그의 손에 빵을 들고 있으며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의 손에 잔을 들고 계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리스어 표현으로는 ‘들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다/취하다’(take)라는 뜻이지 ‘쥐고 있다’(=hold)라는 뜻이 아니다)는 단순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을 하시거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전에 빵과 잔을 각각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지 축복시키거나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에 빵과 잔을 각각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빵을 들어서”, “잔을 들어서”로 번역하는 것이 “빵을 들고”, “잔을 들고”로 번역하는 것보다 낫다.)

요 13:4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 경우의 ‘가져다가’는 ‘빵을 들어서’와 ‘잔을 들어서’와 똑같은 동사의 똑같은 형태인 λαβων이다. 따라서 『표준 새번역』과 『개역』은 ‘가져다가’로, 『200』은 ‘들어’로 번역했다.)

눅 6:4 다윗이 …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이 경우의 ‘집어서’도 위와 똑같은 λαβων이다. 이것은 “빵을 들고 먹었다”, 즉 먹을 때에 빵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다윗이 취한 행위를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역』과 『새번역』은 “집어 먹고”, 『표준』은 “집어서 먹고”, 『200』은 “받아 먹고”로 번역했다.)

눅 9:16

『개역』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새번역』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200』 예수께서는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공동』 예수께서는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구관』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개정』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이것도 역시 λαβων이다. 그러므로 『개역』이 옛말이긴 하지만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 ‘들고’로 번역하면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간다”, “꽃을 들고 찾아갔다”라는 문장의 ‘짚고’, ‘잡고’, ‘들고’처럼 동작의 지속 상태를 뜻한다는 오해가 생기게 된다.)

눅 22:17

『개역』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새번역』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200』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말씀하셨다.

『공동』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

(이것은 δεχομαι(=receive)의 단순과거 분사 δεξαμενος이다. 『개역』, 『표준』, 『200』은 receive라는 의미를 잘 살려냈다. 『새번역』과 『공동』도 ‘들고’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성공적이다.)

### 3.3. 원문의 ‘때매김’(時制, tense)과 관련된 문제

어느 한인 출신 재미 교포가 미국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오늘 죽었어!”라는 내용의 말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해서 말했다가 살인 미수죄로 기소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말에는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어에도 이와 유사한 어법이 있다.

마 7: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내리다’, ‘나다’, ‘불다’, ‘들이치다’, ‘무너지다’는 단순과거형이고 ‘엄청나다’에 사용된 be동사는 반과거형이다. 이것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말한다. 이것을 과거형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말 어법에 더 어울린다. 우리말 어법에서는 ‘무너졌다’가 과거형이면 그 앞의 대등문에 사용된 현재형은 과거를 뜻한다.)

마 24:22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실 것이다. →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실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직설법이고 가정법은 하나도 없다. ‘줄여주다’<sup>1</sup>과 ‘구원받다’는 둘 다 단순과거 수동태이며 ‘줄여주다’<sup>2</sup>는 미래 수동태이다. 가정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 놓으신 것은 과거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확실한 사실이다. 다만 조건절의 시상에 맞추어서 이것을 단순과거로 표현했다. ‘줄여주다’<sup>2</sup>는 정상적인 어법대로 미래형으로 표현되었다. ‘줄여 주실 것이다’라고 번역할 도리밖에 없지만 가정법 귀결문이 아니다. 그것은 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

막 9:1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process)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있는 현상(phenomenon)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어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달리 표현하는가? 첫째 것은 목적 보어에 현재분사를, 둘째 것은 목적보어에 완료분사를 사용한다. 막 9:1에는 완료분사가 사용되었다. 병행

절인 마 16:28에는 현재분사가 사용되었다.)

막 16:2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여자들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 갔다. 이 시점은 해가 돋기 직전인가, 해가 막 돋을 때인가, 해가 막 돋은 직후인가? 우리의 임무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 문장을 올바르게 번역하는 것이다. 마가는 2격 독립분사구문으로 이 시점을 기술했다. 분사의 시상은 단순 과거이다. 그러므로 “해가 돋았을 때에” 또는 “해가 돋은 후에”로 번역해야 한다. “해가 돋을 때에”라는 의미를 표현하려면 현재분사를 사용해야 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절에는 해와 관련된 분사구문이 사용되지 않고 ‘동틀 무렵에’, ‘이른 새벽에’라는 때때김 표시만 사용되었다. 우리의 임무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지, 마태와 누가의 내용과 조화시켜서 이 시점을 결정하려는 해설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막 6:18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여러 차례’라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아니 했다. 그렇지만 이 부사어를 그냥 ‘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면 요한이 단 한 번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단 한 번만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단순과거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본문에 사용된 동사는 반과거이다. 반과거는 반복적, 습관적, 진행적 행위를 나타내는 시상이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거듭 말하였다’, ‘말해 왔다’ 등으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난다.)

### 3.4. 번역에 누락된 부분

『개정판』은 『구판』의 번역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바로 잡았다.

마 12:4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이라는 수식구가 누락됨.

(이것은 원래 ‘제단 빵’을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번역된 것인데 이 형용사절을 독립 문장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었을 것이다.)

마 27:43b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갈 5:6 그리스도 안에서는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전 4:17b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벧후 1:19a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이 12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 3.5. 편집 작업상의 오류

『구판』의 마 12:43-45는 『신약성서 새번역』의 본문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구판』 번역 작업을 할 당시에 번역자들은 원고지에 수작업을 했고 이것을 전문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했다. 원고지에는 이 부분이 대체로 현재의 『개정판』의 본문처럼 되어 있었다.

히 5:7b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그의 경외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얻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롬 9:2

<구판>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개정>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내 동족을 위한’이라는 형용사구가 없다.)

눅 19:14

<구판>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왕위를 줄 이에게 말하게 하였다.

<개정>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왕위를 줄 이에게’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없다.)

마 11:19 / 눅 7:34

『개역』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200』 보아라,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이 구절은 예수에 대한 적대자들의 비방을 그대로 인용한 말이다. 이것은 욱설이다. 욱설의 신랄함을 드러내면 예수의 권위가 손상되고 예수의 권위를 보호하려면 욱설의 신랄함이 무디어진다. 실제로는 이 욱설 속에 예수의 진면목이 더 환히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말 번역성경 가운데서 『200』이 이 부분의 번역을 탁월하게 잘 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구판』은 『200』을 본 따서 “보아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라고 번역했었다. 그런데 원고 검토의 어느 단계에서, 마태복음 것은 『개역』대로 바뀌었고, 누가복음 것은 원래의 번역대로 두었다. 이 번 『개정판』에서는 『개역』과 『200』 사이의 중간 수준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 3.6. 우리말 어법에 치중하려다가 생긴 의미상의 오류

고전 1:27에 ‘어리석은 것들’, ‘강한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잘났다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 것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나열되어 있다. 『구판』에서는 교열자가 우리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복수 명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이 명사들을 단수형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로 원래의 의미가 달라져 버렸다.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음’을 뜻하는 추상명사인데 ‘어리석은 것들’은 ‘어리석은 일들 또는 사람들’을 뜻한다.

행 1:17-21은 율 2:28-32(칠십인역)의 인용이다. 여기에는 아들들-딸들, 젊은이들-늙은 이들, 남종들-여종들이 대칭을 이룬다. 그런데 인격을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여 ‘늙은이’를 ‘나이든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니 ‘젊은이-늙은이’라는 운율상의 대칭 구조도 파괴되고 ‘쓸모 없는 늙은이들조차도’라는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렸다. 또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딸들, ‘너희의’ 젊은이, ‘너희의’ 늙은이, ‘내’(=나의) 남종들, ‘내’ 여종들이라고 명사 앞에 일일이 소유격 대명사가 붙어 있다. 이러한 소유격 대명사가 우리말 어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제거해버리면 인용문에 담긴 원래의 의도가 사라져 버린다. 이 인용문의 의미는 칠십인역의 본문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나는 곳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인용문은 원문에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빠뜨리지 않고 번역해야 한다.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마 27:37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다. →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간판이나 명패는 명사구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말 어법에 가깝다고 한다면 『구관』의 번역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원문에는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우리말 어법에는 어색할지라도 원문의 구조를 살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 3.7. 오역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

- 마 2:8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 그 아기를 살살이 찾아보시오  
 마 5:13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마 10:4; 막 3:18 가나안 사람 시몬 → 열혈당원 시몬  
 마 13:41 죄짓게 하는 자들 →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  
 막 4:12 돌이켜 → 돌아와서  
     7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눅 24:30 축사하시고 → 축복하시고  
 요 21:4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행 2:46 집마다 → 집집이 돌아가면서  
 행 5:38 이 계획과 활동 → 계획이나 활동  
 행 8:10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롬 16:25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고후 3:16 돌이키면 → 돌아서면  
 고후 10:2 내가 떠나 있을 때에 →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갈 5:1 종의 멍에 → 종살이의 멍에  
 빌 4:1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문 19 그대가 내게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빛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약 3:14,16 당파심 → 경쟁심  
 벰전 1:3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벰후 2:20 구세주 → 구주  
 계 1:15 화덕 → 풀무불  
 계 6:10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계 20:4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과 →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3.8. NTG 27판의 본문을 철저하게 따랐으며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 ]와 [ ] 부호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요한복음 1장 3절 끝 부분과 4절 처음 부분을 한 문장에 포함시켜 번역하는 것은 그 두 부분을 각각 다른 문장에 귀속시켜 번역하는 것보다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본문에 표시된 문장 부호를 따라서 번역해야 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사랑하다’(καυχουμαι)라는 동사를 ‘불사르다’(καυθησομαι)로 바꾸어 번역하면 뜻이 분명하게 통하지만 본문이 ‘사랑하다’를 지시하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 마 27:16 그 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 그 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 마 27:17 바라바 예수요? → 바라바 [예수]요?
- 막 3:16 예수께서 열둘을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과 → [예수께서 열둘을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 눅 10:1 주께서는 달리 일흔두 사람을 세우셔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셨다. → 주님께서는 다른 일흔[두] 사람을 세우셔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 눅 24:5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 51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 3.9. 인용문 안의 보고문과 인용문이 구별되도록 번역했다.

행 7:48-49 '나 주가 말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설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설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 4. 각주의 내용

- 마 8:11 각주 ㉑\*: 기대어 누울 것이다 → 비스듬히 눕다
- 마 14: 27 각주 ㉠을 삭제하고 본문에 [예수께서]라고 [ ]부호를 붙임.
- 마 18:11 각주 ㉞에서: 잃어버린 자 → 잃은 사람을
- 마 23:14 각주 ㉞: 삼켜 버리고 → 삼키고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을 →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 마 27:49 각주 ㉑: 군인 → 병사
- 막 2:15 각주 ㉞: '기대어 누웠는데' → '비스듬히 누웠는데'  
15 각주 ㉞: '기대어 누워 있었다' →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 막 3:14 각주 ㉠을 삭제함.
- 막 14:27,29 각주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맞바꿈.
- 막 16:8 각주 ㉞에서: 끝 → 끝맺음(네 번 사용됨)  
㉞에서: 끝 → 끝맺음(두 번 사용됨)
- 요 14:2 각주 ㉑의 내용을 본문에 채택함.
- 요 17:13 각주 ㉠: '안에' → '가운데'
- 행 11:21 각주 ㉞의 내용을 본문에 채택함.
- 롬 2:1 각주 ㉠: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를 넣어서 읽을 수 있음 →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
- 고전 7:36 각주 ㉠에서: 혼기를 놓칠 때까지 → 혼기가 지날 때까지
- 고전 8:11 각주 ㉠을 삭제함.

\* 편집이 달라지면서 개정판에서 각주 기호가 달라졌다. 여기서는 『표준새번역초판』의 기호를 따라서 설명한다. 이하 같음.

고전 11:3 각주를 둘로 나누어

→ ㉠ 그, '아내'로 번역할 수 있음. ㉡ 그, '남편'으로 번역할 수 있음.

고후 9:9 각주 ㉠을 삭제함.

갈 6:2 각주 ㉠ '성취하실 것입니다' → '성취하십시오'

딤후 2:26 각주 ㉠에서:

사로잡힌 자들도' → 사로잡힌 자들이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벧전 1:6 각주 ㉠을 삭제함.

계 18:13 각주 ㉠ '사람의 육체와 영입니다' → '사람의 몸과 영혼입니다'

## 5. 소제목

마 16:1 표적을 거절하시다 → 표징 문제

마 22:15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마 26:69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 →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눅 8:40 혈루증 환자와 야이로의 딸 → 하혈하는 여자를 낫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눅 9:57 예수를 따르려면 →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눅 12:8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라

행 22:6 바울의 회심 이야기 → 바울이 자기의 회개를 이야기하다

17 바울을 이방 사람의 사도로 보내시다 → 바울이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된 경위

행 26:12 바울의 회심 이야기 → 바울이 자기의 회개를 이야기하다

살후 3:1 바램 → 바랍니다

## 6. 맺음말

이 글은 <표준새번역 개정판>이 그전 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소개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분량이 너무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를 논증하는 데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번역을 간단히 홍보할까 한다.

주기도문의 번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경주되었다. 주기도문은 예배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번역문은 원문의 의미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우리말 어법에 정확하게 맞아야 하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표준새번역』의 번역 작업이 시작된 이래로 주기도문의 번역 문제를 놓고 그 동안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지한 공청회를 가진 바도 있다. 『표준새번역 개정판』은 그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들을 최대한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번역의 두 가지 큰 원칙은 1) ‘하며’와 ‘하고’의 이중 구조를 살린다는 것 2) ‘하여 주다’라는 표현을 우리말의 비는 말꼴로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고 번역해 놓으면 ‘주시며’라는 표현 때문에 ‘이름’이 비는 사람의 이름으로 곡해되기 쉽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그’를 첨가하여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로 번역하면 이루어짐의 시상이 꼭 과거만을 뜻하느냐 하는 주석인 난관에 빠지게 된다. ‘이루심 같이’로 번역하면 그러한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된다. ‘시험’, ‘악’, ‘권세’ 등등의 용어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그대로 사용했다. 이 주기도문이 널리 통용되어 21세기 한국 교회의 표준이 되는 주기도문으로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표준 새번역』 이사야 1:1-9

## 초역과 최종안의 재고

-내용 동등성 원칙과 히브리 문학적 특징의 우리말 표현과의 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철우\*

## 1. 들어가는 말

1984년 여름과 1987년 여름에 각각 대만과 홍콩에서 성경번역 연수회(workshop)가 있었다. 필자는 1985년에 번역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홍콩 연수회에만 참석을 하였다. 그 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바로 나이다 박사(Eugene Nida)였다. 그 연수회를 통하여 그의 번역원칙과 이론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표준새번역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을 더욱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이론은 이미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그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성경 본문을 다른 언어로 쉽고 평이하게 옮기는가, 그리고 원문의 문법 형식이나 관용적 표현들의 사전적 의미를 번역에서도 그대로 옮기는 “형식 일치 번역”이 아니라, 그 주어진 원문의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정확히 전달하느냐는 것이다. 그의 번역이론의 핵심은 “내용 동등성 원칙”<sup>1)</sup>이다.

문장의 내용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 즉 “형식 일치”를 벗어나,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문장 구조 및 어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성서공회가 제시했던 표준새번역 번역 지침이었다.

“원어의 뜻을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sup>2)</sup>

그 연수회를 통하여 우리의 번역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말 표현상의 여러 구체적 문제들을 점검할 수 있었고, 특히 성경 번역에 있어서 “내용 동등성 원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가능한 한 살릴 필요가 있는 원문의 문학적 특징과 언어의 예술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그것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일 경우 더욱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회의 보수적 정서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있다. 성경 원문에 나타나는 문학적 특징들을 우리말 표현에 재현하기 위해 부득이 직역을 필요로 하기도 하며, 형식 일치의 부분적 필요성 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 “내용 동등성 원칙”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문제를 놓고 나이다 박사와도 많은 토론을 하였다.

\* 목사, 강남교회, 구약학.

1) dynamic equivalence or functional equivalent translation.

2) 민영진,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번역지침과 특징”, 기독교 사상, 93년 2월호, p. 41-50.

필자의 개인적 결론은 결국 좋은 번역은 이 양자간, 즉 내용 동등성 원칙과 형식 일치와 기타의 문제들과의 바른 균형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실제 번역 과정에서 이러한 균형을 맞추어 번역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표준새번역에서는 실제 이미 교회에서 많이 익숙해져서 바꾸기가 어려운 개역의 표현을 상당수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지나친 “내용 동등 원칙”에 의한 번역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미 고정화되어 있는 표현의 수용이라는 차원 이상의 더 근본적 면모를 갖고 있다. 원문에 나타나는 “문학적 특징”은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문학적 수사학적 특징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우리말에서도 그렇게 “강조된 내용”을 표현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원문이 갖고 있는 형식적 특징을 우리말에 직접 옮겨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도 성경 번역에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필자의 관심은 히브리어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특히 본문의 문학적 특징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신학적 내용을 어떻게 우리말에 반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말에 반영시켜 원문의 문학적 특징에 담겨 있는 내용과 역동성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하는 것이었다. 이 문학적 특징에는 음성학적 특징과 수사학적 구조적 특징, 그리고 시적 운율 등의 여러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각 문장의 고유한 문학적 특징을 살리면서 이를 통해 원문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번역을 시도하였다. 특히 운문의 경우 시적 이미지와 분위기를 살리려 노력하였다.

물론 우리 번역의 일차적 목적은 히브리 성경의 “내용”을 평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이다 박사(Eugene Nida)의 번역원칙 범주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적 범주 안에서 문학적 특징 자체와 거기에 담겨 있는 강조점을 살리려 노력하였다.<sup>3)</sup>

이 글에서 필자는 표준새번역의 초역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했던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려 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소개하고, 표준새번역 최종안에서 채택된 내용과 차이 등을 소개함으로써 차기의 성경 번역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 그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의 번역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본문의 일차적 내용 파악(초역)

주석적 연구(본문 비평, 본문의 역사 비평적 연구, 문학적 수사학적 분석, 신학적 이해)

문학적 수사학적 특징과 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 파악

우리말로 직역

외국어 번역 성경들과의 비교 연구

개역과 공동번역 등과의 문체 비교

우리말 의역

히브리 문장의 특징과 강조점을 우리말 구조 안에서 살려보려 시도.

여기에서 필자가 소개하는 초역은 이사야 1:1-9이다. 각 절의 번역과정에서 고려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상에 나타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점을 검토하였다.

3) 이것은 히브리 문학적 특징을 고려하여 히브리의 시적 특징을 스페인어 성경에 담아내려 한 스페인 구약학자 Luis Alonso Schökel의 시도이기도 하였다(Neuva Biblia Española: 이하 NBE).

2. 표준새번역 초역 과정의 쟁점과 표준새번역 최종안의 재고(장절별 연구: 사 1:1-9).

<<사 1:1>>

표준새번역 최종안(표준새번역 성경으로 출판된 표현):<sup>4)</sup>

1:1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초역: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로서, 유다 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것이다.

(1) 여기에서 이러한 문장 구조를 취한 이유는 가급적 히브리 원문의 문장구조를 살리려는 의도로 시도된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의 절 중간의 정지부호(stops)인 아트나흐(Athnah)를 중심으로 아트나흐(Athnah) 앞의 내용을 우리말 번역의 쉼표 앞에 두고 그 뒤의 내용을 쉼표 뒤에 두고자 한 것이다. 이 문장은 산문이기 는 하지만 가급적 히브리 본문의 언어적 특징을 살리려 시도한 것이다.

(2) 표준새번역 최종안에 “이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존”(חֶזֶן)이고, 개역에서는 “이상”, 공동번역에서는 “계시”로 번역되었던 것인데, 개역개정에서 다시 “계시”로 돌아온 것이다. “계시”가 현대인에게 더 쉽게 이해되는 표현이다.

(3) 표준새번역 초역의 “--의 것이다”를 공동 번역에서는 “어찌 될 것인지를 내다본 것”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하존”을 두 번 번역한 것에 해당된다.

<<사 1:2>>

표준새번역 최종안:

1:2 하늘아, 들어라 !

땅아, 귀를 기울여라 !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초역: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저들을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으나

오히려 저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1) 이 절은 운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적 특징을 살리려 노력하였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는 히브리 원문의 병행구를 그대로 살린 것이다. 여기에서 “들어라”는 “샤마”(שָׁמַע: to hear)를 번역한 것이며, 이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귀를 기울여라”는 유사어 “아잔”(אָזַן: to listen)을 번역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아잔”은 명사형(오젠)에서 “귀”라는 의미를 갖고 있

4) 사 1:1-9에 관한 한, “주”를 “주님”으로 고친 것(2, 4, 9절) 외에는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내용은 초판과 동일함.

기 때문에 이를 살려서 “귀를 기울여라”로 번역한 것이다. 이 점에서 개역의 번역 “귀를 기울이라”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공동번역도 이와 유사하다.

(2) “키 야훼 디베르”(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에서 “키”(כִּי: for, because)의 번역을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문맥의 흐름상 독자들이 이 표현(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안에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즉 “말씀하시므로”라는 이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므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적인 긴장감과 긴박성과 속도감과 단순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를 생략한 것이다.

개역은 시적 긴장감과 단순성을 살리지 못하여, 산문처럼 느껴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개역 개정판도 이 개역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공동 번역(그리고 NBE)은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를 완전한 한 문장으로 독립시켜서 번역하였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sup>5)</sup>

(3) 2절b는 또 하나의 히브리 시의 압권이다. 음성학적 차원에서 매우 치밀한 병행을 이루며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언약의 전형적 표현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적 도식과 유사하다(창 17:7; 출 6:7; 레 26:12; 신26:16-19; 29:13; 렘 7:23; 11:4; 24:7; 30:22; 31:1, 33; 32:38; 겔 11:20; 14:11; 36:28; 37:23).<sup>6)</sup>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배신한 죄, 그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저버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러한 관계의 밀접성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이 치밀한 병행구조로 표현되어 있다.

이 문장을 음역하면 다음과 같다:

banim giddalti beromamti // wehem pashu bi

우선 여기에서 단어들의 시작이 입술소리(labial)로 되어 있다(두 번째 giddalti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술소리이다). 특히 “b”가 중심 음소(phoneme)이다.

wehem(וְהֵם “그러나 그들은”)은 banim(בָּנַי)과 매우 유사한 음성적 병행을 이루면서 두 단어간의 상호 밀접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접속사 “w”(ו: but)와 이어지는 대명사 “hem”(הֵם: they)을 통하여, 당연히 기대되는 이스라엘의 충성과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선포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서 “내가” 또는 “나를”(음소 “i” ו)이 반복되며 “나”(하나님)의 은혜가

5) cf.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le(이하 TOB): C'est le Seigneur qui parle; 영어번역 성경(KJV, RSV, JB, NEB, NKJV 등)에서는 대개 “For”를 살려서 번역한다; 그러나 영어번역에서는 대개 콜론이나 세미 콜론 부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For”를 살려서 번역하여도 문장이 산문처럼 길어졌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예: NIV: Hear, O heavens! Listen, O earth! For the LORD has spoken: "I reared children and brought them up, but they have rebelled against me.; RSV: Hear, O heavens, and give ear, O earth; for the LORD has spoken: "Sons have I reared and brought up, but they have rebelled against me.)

6) E. A. 마튼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E. A. Martens, Plot and Purpose in the Old Testament, IVP, 1981), 생명의 말씀사, 1990, p. 82-84.

강조된다. “내가 그들을 자식으로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חמ hem) “나를”(בי bi)반역하였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 번역에서 “나”(gidalti; beromamti: “나”의 두 번 반복; bi: “나를”)와 “그들”(hem: 강조용법으로 특별히 사용된 대명사)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와,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이 대조적으로 강조되어야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역 2절b에서 “내가 저들을” // “저들이 나를”이라는 우리말 병행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앞 구절의 기대치와는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라는 말을 더 첨가하였다.

(4) “파슈우”(פשוּ)는 언약적 관계의 파기나 단절을 나타내는 어휘로서<sup>7)</sup> 주로 “배반하였다”(rebelled)로 번역되는 단어이다<sup>8)</sup>.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간의 관계가 부자지간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배반 또는 배신보다 의미는 다소 약한 듯하지만 “거역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체(style)라는 관점에서 “하였다”보다는 “했구나” 또는 “했노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인 분위기를 더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으나, 우리의 번역 원칙상 고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포기하였다.

### <<사 1:3>>

표준새번역 최종안:

1:3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초역: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나의 백성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는 구나.

(1) 여기서의 내용적 초점은, 소도 나귀도 제 임자의 고마움을 알건만, 그 많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님의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짐승에 비유하여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질타하는 것이다. 아트나흐(Athnah)를 중심으로 3절a에서 소와 나귀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3절b에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이 다루어진다. 3절a와 3절b는 서로 반의어적 병행구로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절a에서 히브리어 “야다”(יָדָע: 알다)가 서두에 나오고, 3절b에서 부정어 “로”(לֹ: not)가 두 번 반복되면서(לֹ로 야다; לֹ로 히트보난), 이스라엘의 “알지 못함”을 질타한다. 여기에서 이 강한 부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3절b도 아주 선명한 병행구를 이루면서 가슴을 두 번치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과 문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 로 לֹ 야다 // 암미 로 לֹ 히트보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구나).

(2) 3절a는 병행구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병행의 효과를 높이는 음성학적 특징은 3절aa와 3절aβ의 서두에 나오는 모음 “아”와 각각의 끝에 나오는 소유 대명사 “우”(ו)와 “아브”(י)이다.

야다 쇼르 코네후(קִנְיָהּ) // 바하모르 에부스 브알라브(בְּעֵלֵי)

(3) 여기에서는 3절a와 3절b 각각의 병행적 요소와 이 양자 사이에 있는 반의어적 병행의 요

7) E. A. Martens, p. 60; Rolf Knierim, "pesha': crime":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E. Jenni / C. Westermann, pp. 1033-1037.

8) JB, NIV, RSV, TEV에서 모두 “have rebelled”로 번역하고 있다; Einheitsübersetzung der Heiligen Schrift(이하 EHS): sie sind von mir abgefallen; TOB: eux, ils se sont révoltés contra moi(cf. Edmond Jacob, Esaïe 1-12, Commentaire de L'ancien Testament, Genève, 1987), p. 37.



소를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는가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3절a를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에서 더 정확한 문자적 번역은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이다. 그러나 “제”가 반복됨으로서 병행적 효과는 높여지지만, 3절b가 3절a에 비해서 너무나 길어져서 시적인 단순성과 함축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였다(전반부[3절aα]와 후반부[3절aβ]는 3 + 3의 운율적 병행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대신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 본문 3절b에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말에서 반복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빠지는 대신 “알다”가 반복되게 되었다.

“소도-----알고  
//                               //  
나귀도 -----알건만”

이러한 병행구조의 한 가운데, 목적어로, “제 임자를 // 주인의 구유를”이 들어가서 병행을 이루도록 우리말 문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표준새번역 최종안에서 3절aβ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진 느낌이 든다. (히브리 원문에는 3절aα와 마찬가지로 단지 세 개의 단어뿐이다.)

초역: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최종 번역: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

(4) 3절b를 번역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했던 점은, 여기에서 3절a에 나왔던 “야다”(עָדָה 알다 to know)라는 동사가 다시 나오며 동일한 의미군에 속하는 단어 “빈”(בִּין 깨닫다 to understand)이 이와 병행을 이루며 나온다는 사실과, 이 두 단어가 모두 부정어 “로”(לֹ: not)와 연결되어 이스라엘의 “무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한 괴로움으로 가슴을 두 번 치는 것과 같은 강한 긴장감을 주는 표현이다.

이스라엘 로(לֹ) 야다 // 암미 로(לֹ) 히트보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구나).

그리고 “이스라엘”(יִשְׂרָאֵל)과 “암미”(עַמִּי: 나의 백성)가 3절bα와 3절bβ의 서두에 나오면서 병행을 이룬다. 이것을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가 될 것이다.

표준새번역 최종 번역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출판되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기에 특별한 이의는 없다. 히브리어의 기본 구조를 잘 살리고 있는 표현이다. 이것은 초역 과정에서도 고려되었던 번역이다. 그러나 필자가 초역에서 이와는 다른 우리말 구조를 택한 데는 약간의 이유가 있었다.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이러한 병행구조에 많이 익숙해 있지 않은 우리 독자들에게 다소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NEB와 TEV<sup>9)</sup>처럼 이를 풀어서 병행구를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시도된 것이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장 구조였다. 그

9) NEB: "but Israel, my own people, has no knowledge, no discernment."; TEV: "But that is more than my people Israel know. They don't understand at all."

리고 여기에서 “로”(לֹ: 아니다)가 3절ba와 3절bβ 각각의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서로 병행을 이루며 “특별히” 강조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말의 3절ba와 3절bβ에 “아무 것도”를 삽입시켜서 병행을 이루며 이 부정어(“로”)를 강조하였다.

초역은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초역에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문장이 선택 되게 된 것이다(“이스라엘, 나의 백성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는 구나”). 이 양자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이다. “이스라엘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나의 백성은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는구나”로 번역했어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표준새번역의 최종안도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번역은 “의미전달 효과의 극대화”와 “원문의 표현적 특징과 우리말의 미학적 효과, 그리고 교회의 보수적 정서” 사이의 균형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양자를 “우리말에 적절히 균형 있게 잘 반영시키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 본문에 대한 충분한 주석적 이해와 의미파악과 문학적 특징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다양한 낱앙스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우리말에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우리말 감각이 요청되는 작업이다.

#### <<사 1:4>>

표준새번역 최종안:

1:4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초역:

아 슬프다! 죄 많은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요 부패한 자식들,  
이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겼으며,  
그에게 등을 돌렸도다.

(1) “아 슬프다”는 “호이”(הוי)의 번역이다. 이 “호이”는 위협과 탄식의 외침을 나타낸다.<sup>10)</sup> 이 어휘는 일반적으로 재앙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경고와 위협의 컨텍스트에 주로 사용된다(사 5:8이하; 암 5:18; 6:1).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질타(invective; a chiding speech of warning)와<sup>11)</sup> 동시에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며 재앙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민의 괴로움을 담고 있는 탄식이 선포되고 있다.<sup>12)</sup> 여기에서 이 “호이”도 이러한 의미, 곧 하나님의 질타와 슬픔을 동시에 담고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하였다.

이 단어(“호이”)가 개역에는 “슬프다”로, 공동번역에는 “아”로 번역되어 있다. 개역에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재앙에 대한 탄식 소리(音 sound)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공동번역의 “아”라는 번역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의 깊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아 슬프다”라는 절충적 번역을 택하였다.

(2) “죄 많은 민족”은 “고이 호테”(גוי חוטא)의 번역이다. “죄 지은 민족”이라는 표현도 무난

10) George Buchanan Gray, The Book of Isaiah I-XXVII, ICC, p. 10.

11) Ronald E. Clement, Isaiah 1-39, NCBC, London, 1980, p. 31; John D. W. Watts, op.cit., p. 16.

12) 사 1:1-9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바남: אֲבוֹנֵי]으로 표현된다(2절; 4절). 이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거역으로 인하여 야기된 불행과 재앙으로 계속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꾸중하며 가르치시는 사랑과 징계의 아버지로 묘사된다(2-5, 9절); 참고, 왕상 13:30(in lament).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죄 많은”으로 번역한 이유는 “고이 호테”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암 케베드 아본”(עם כבד עון)과 내용상 병행을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의 죄의 크기를 강조하고 있는 컨텍스트임을 감안하여 “죄 많은”으로 번역하였다.

(3) “암 케베드 아본”을 개역에서는 “허물진 백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케베드”(כבד heavy)의 의미를 살려서 표준새번역 최종 번역처럼 “허물이 많은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필자는 이를 초역에서 “불의로 가득 찬 백성”으로 번역하였다. “고이 호테”에 “죄 <많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이와 다소간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불의로 <가득 찬> 백성”이라고 번역하였다. “아본”의 의미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것을 “the distortion of justice”의 의미로 보아, “불의”라는 말을 선택하였다.<sup>13)</sup> “범죄로 가득 찬 백성” 또는 “범죄 많은 백성”(NIV: people loaded with guilt; KJV, NKJV, RSV, NRSV: people laden with iniquity; TOB: people chargé de crimes)등이 가능하였다. 표준새번역 최종안(“허물진 백성”)은 의미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한다.

(4) 초역에서 “제라아 프레임”(זרע מרעים)은 “사악한 종자”로 번역하였다. 최종안에서 “프레임”은 “흉악한”으로 번역되었다. 별 이의는 없다. 단지 히브리 동사 “라아”(רעה)의 Hiphil participle(doing evil, wickedly)의 의미와 관련하여, 필자는 “사악한”이란 표현이 “wickedly”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사악한 종자”로 번역한 것이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에서는 “제라아 프레임”을 “행악의 종자”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번역은 나이다 박사(E. Nida)가 항상 문제시했던 번역이다. 그는 이 경우 “행악”이라는 명사형 대신에 형용사로 바꾸어 “행악으로 가득한 종자” 또는 “흉악한 종자” 또는 “사악한 종자”와 같은 구조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초역에서 “바님 마슈히팀”(בנים משחיתים)은 “부패한 자식들”로 번역하였다. “샤하트”(חח)의 Hiphil participle의 “act corruptly”의 의미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개역에서 이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러나 “행위가”라는 말은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TOB: “fils corrompus”<sup>14)</sup>). 특히 4절a는 3 + 3, 2 + 2 의 운율을 따라 긴장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초역에서 이러한 운율적 긴장감을 살려 “부패한 자식들”로 번역하였다. 4절aβ(“사악한 종자요”)에서 “요”를 삽입한 이유도 그 뒤에 나오는 “부패한 자식들”과 단어 수(여섯 글자)를 맞추어 리듬을 주기 위함이었다. 더욱이, 4절aα가 히브리 원문에서는 3 + 3 구조로 명백한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운율적 효과를 우리말에서 살리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4절aβ에서나마 운율을 정확히 맞추어 리듬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물론 우리말은, 히브리어나 영어, 또는 스페인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액센트가 없는 언어이지만, 함께 연이어 발음되는 글자 수를 우리의 언어 습관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시적 분위기와 리듬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6) 4절ba도 역시 정확한 병행을 이룬다. 따라서 이 병행도 우리말에 살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초역에서, “이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겼으며”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겼<다>”라고 문장을 끊지 않은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4절bβ “나조루 아호르”נזרו אחור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연결하여 번역해야 했다. 4절b 전체는 2 + 3 + 2 의 구조를 갖고 있다. “나조루 아호

13) Otto Kaiser, op.cit., p. 19.

14) Edmond Jacob, op.cit., p. 37; NIV: children given to corruption.

르”(직역: They have been estranged backwards; NIV: “and turned their backs on him”; NKJV: “They have turned away backward.”)는 후기 첨가일 가능성이 높다<sup>15)</sup>.

이 귀절은 LXX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며, 3-4절의 전체적인 운율(3 + 3, 3 + 3, 3 + 3, 2 + 2)에 비하여 시행 하나가 더 많은 것이 된다(2 + 3 + 2). 그러나 이 표현은 엄연히 MT에 있는 본문이며 당연히 앞의 구절들과 연결하여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세 구절을 한꺼번에 연결하여, 위와 같은 초역을 하게 된 것이다.

(7) 표준새번역 최종안에서는 TEV를 따라 3인칭 복수 동사(아즈부 **עָזְבוּ**, 니아쭈 **נִאָצְּבוּ**)를 2인칭 복수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그러나 왓츠(John D. W. Watts)는 사 1:2-4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증인인 “하늘과 땅”을 부르시어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를 고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절a는 하나님의 전령이 하늘과 땅을 향해 선포한 말씀으로 보고(Herald to Heavens and Earth), 2절b와 3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고(Yahweh to Heavens and Earth), 4절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 즉 “하늘과 땅”의 선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5절에서부터 비로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향해진 증인들(하늘과 땅)의 선포가 나온다고 본다.<sup>16)</sup>

물론 대부분의 설교자나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왓츠(Watts)의 이 구분은 하나의 가설이다. 그러나 이것이 간과할 수 없는 설득력 있는 설명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본문의 인칭을 그대로 놓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대로 놓아두고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잘 된다.

(8) “돌렸도다”에서 “도다”라는 표현은 개역에 주로 나오는 옛 표현이다. 표준새번역 최종안에서 “돌리고 말았구나”로 바뀌었다. 표준새번역의 번역 원칙 중의 하나가 고어 대신에 현대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고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시적인 뉘앙스와 표현 자체에 종교적 표현으로서의 경건성과 무게를 더하여 주는 것이라면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 <<사 1:5>>

표준새번역 최종안:

1:5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초역:

너희가 아직 어디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배반하느냐?

머리가 온통 상처투성이며, 속은 온통 병들어 있구나.

(1) “알 때”(עַל מַה: On what)는 “어디를”로, 투쿠 오드(**תָּכוּ עוֹד**: 투쿠[receive a blow: Hophal impf. 2mpl.of **נָכַח**]; 오드 [yet])는 “아직 더 맞으려고”로 번역하였다.

(2) “토시푸 사라”(תוסיפו סרה: 토시푸 Hiphiel. Impf. 2mpl of 야사프 **יָסַף**[add. increase, do again and more]; 사라 [apostasy])는 “계속하여 배반하느냐?”로 번역하였다. 이 경우 “계속하여

15) John D. W. Watts, p. 14; Hans Wildberger, Jesaja 1-12, BKAT 10, 1980, pp. 18-19; more recently, Joseph Blenkinsopp, Isaiah 1-39, AB, 2000, p. 179.

16) John D. W. Watts, pp. 10-15.

배반을 더해 가느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짧은 표현을 택하였다.

(3) 표준새번역 최종안은 개역 성경과 KJV, RSV, NIV, TEV를 따르는 것인데, 필자는 여기에 서 “알 때”(על מה: on what)를 굳이 “어찌하여”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sup>17)</sup> 이 본문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sup>18)</sup>

레바브 다바이(לבב וי heart, sick; [개역]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KJV: “the whole heart faint”; RSV: “the whole heart faint”; NIV: “your whole heart afflicted”): 여기에서 레바브 (heart)는 꼭 심장만을 의미하지 않고 내장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개역과 개역 개정)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다. 매를 맞는다는 이미지가 다소 육체적인 가해와 아픔을 연상시키고 있고, 머리와 구체적인 병행을 이루는 신체의 일부, 즉 추상적이 “마음”이라기보다는 육체의 한 기관으로 보아 “속”으로 번역하였다(“속은 온통 병들어 있구나”).<sup>19)</sup>

(4) 5절a와 5절b에서는 운율이 약간 차이가 나서(5절a: 4 + 2; 5절b: 3 + 3), 이 부분은 우리말에서도 분리시켰다. 그리고 더 밀도 있는 병행을 이루고 있는 5절b에서 “온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 병행적 면모를 강조하려 하였다.

5절bα: kol(כל) rosh(ראש) loholi(לולי) :

5절bβ: wekol(וכל) lebab(לבב) dawway(דווי)

#### <<사 1:6>>

표준새번역 최종안:

1:6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초역: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멍들고 상처나고 터진 데 뿐이거늘,  
아무도 이를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 주는 이 없구나.

(1) “폐짜”(פצע: bruise, wound, coming from “파짜” [פצע: bruise, wound by bruising])<sup>20)</sup>는 주로 “타박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멍들고”라는 어휘를 선택하였다. “하부라”(חבורה: stripe, blow)는 “상처”라는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고, “테리야”(טרייה fs. of “타리” רי ט, fresh, raw wound, not yet healed or even treated)는 “새로 맞은 상처”라고 번역할 수도 있었으나, “터진 데”라는 말이 이제 금방 상처를 입어서 아직 치료되지 않은 채로 떨어져 있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 어휘를 선택하였다. 물론 그 이유는 병행이 주는 시적 긴장감과 표현의 연속성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2) 6절b에서는 어떻게 부정어(“로” לא) 세 개로 강조된 내용, “이스라엘이 그토록 상처를 입었으나 그를 돌보아 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문자 그

17) “On what (part of the body) will ye yet be smitten”(George Buchanan Gray, p. 11); “Upon what will you be beaten more? Will you add rebellion?”(John. D. W. Watts, p. 11); “Where will you still be smitten...”(Otto Kaiser, op. cit., p. 16); JB(“Where...? ”); EHS(“Wohin soll man euch noch schlagen?”); TOB(“Où faut-il encore vous frapper...”)(TOB; Edmond Jacob, op. cit., pp. 37, 44).

18) John D. W. Watts, op. cit., p. 19; F. Buhl, “Zu Jesaja 1:5,” ZAW 36(1916), p. 117.

19) John D. W. Watts, pp. 11, 14; G. R. Driver, JSS 13[1968] 36; 공동 번역: “속”.

20) cf. Otto Kaiser, p. 17.

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하였다”(수동태의 의미)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능동으로 바꾸어 보면, 그들을 치유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여기의 신학적 초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2절b; 4절b). 즉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이다. 이것은 언약의 파괴 행위이다(히브리 동사 “파사”[2절b]에 내포된 의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의지하나 그들을 도와 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사 30-31; 44:9-11).

이러한 신학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은 의미전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필자는 6절b의 수동적 의미를 능동형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6절b는 2 + 2 + 3 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2 + 2”(6절ba)를 “아무도 이를 짜내고 짜매고”로 묶고, “3”에 해당되는 부분(6절bβ)을 이와 분리시키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이 없구나”로 번역하였다.

(3) “조루”(רָרַ: pressed out; drained)<sup>21)</sup>는 “짜내고”로 번역하였으며, “후빠슈”(חִבְשׁוּ: Pual perf. of שָׁבַח: to bind, bind on, bind up)는 “짜매고”로, “루크카”(רִכְכָּה: Pual perf. 3pers.sing.fem. of רָכַח: to be softened)는 “부드럽게 해주는”으로 번역하였다. 블렌킨소프(Blenkinsopp)는 이 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For the sole of the foot to the head  
there is no soundness in him -  
bruises, sores, and open wounds,  
not drained, not bandaged, not treated with oil.<sup>22)</sup>

#### <<사 1:7>>

표준새번역 최종안:

1:7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초역:

너희의 땅이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이 불에 탔으며,  
너희의 토지가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먹혔으니,  
마치 소돔의 황폐와 같이 되고 말았구나.

(1) 이 절은 전체적으로 2 + 3, 2 + 3, 3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2 + 3(7절a)과 2 + 3(7절b αβ)를 하나로 연결하여 이해하고, 나머지 3(7절bγ)를 독립시켜 번역하였다. 개역 성경도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7절a와 7절bαβ의 핵심적 요소는 네 개의 2인칭 복수 소유 접미어 “첸”(כֶּם: “너희”)이다. 개역의 구조와 유사하게 “너희”를 각 문장 앞에 주어로 놓아 “너희”를 강조하였다. 7절ba(오클람: אִכְלִים: Qal. pt. act. pl. from “아칼”אָכַל: to eat)는 엄밀한 의미에서 능동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가 7절a와 연결되어 나오고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개

21) Otto Kaiser, p. 17; the passive form of Qal cf. G-K, ss.67m, 52e.

22) Joseph Blenkinsopp, Isaiah 1-39, p. 177.

역의 문장구조와 마찬가지로 수동형을 취하였다.

개역에서 “오클림”을 “삼켜졌으며”라고 번역하였으나, 필자는 “아칼”(אָכַל: to eat)을 그대로 살려서 “먹히었으니”라고 번역하였다. “삼키다”를 의미하는 전형적인 히브리어 “발라이”(בלע)와 구분하여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3) “마흐페카트”(מַחֲפֵקָה: overthrow)는 항상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되어 나온다(신 29:22; 사 13:19; 렘 49:18; 50:40; 암 4:11). 여기에서 필자는 BHS의 제안에 따라서 “자림”(זָרִים foreigners)을 “소돔”(סוּד 소돔)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sup>23)</sup> 만일 MT본문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마치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케 되었구나”가 될 것이다.

#### <<사 1:8>>

표준새번역 최종안:

1:8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 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초역:

딸 시온은 포도밭의 초막같이 되었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되었고,  
포위된 도성처럼 되었구나.

(1) 8절b의 “크이르 네쭈라”(כַּעֲיֵר נִצּוּרָה)의 직역은 “보호된 도성”이다. 여기에서 “네쭈라”(נִצּוּרָה)는 “나짜르”(נָצַר: keep watch, guard, protect)의 Qal. 수동 분사 여성형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직역은 “보호된”이 된다. 그러나 이 컨텍스트에서 “보호된 도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LXX, 시리아 사본, 타르굼, 불가타 등의 전통에 따라, “네쭈라”(נִצּוּרָה: Niphalt. f. from נָצַר: enclose, besiege)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개역도 실제로는 이 수정된 어휘를 번역한 것에 해당된다. (“에워싸인 성읍 같이”: enclosed or besieged)

왓츠는 이 단어를 MT대로 그대로 두고 “like a fortified city”라고 번역하고 신학적 해석을 달고 있으나, 무리라고 판단된다.<sup>24)</sup>

(2) 여기에서 초점의 대상은 “크”(כּ: like)이었다. 이 세 개의 “크”(כּ)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전체적으로 개역의 문장 구조를 따랐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개역).

개역은 8절a의 “노트라”(נֹתְרָה: Niphalt pt. f. יָתַר: be left over, remain over)를 “겨우 남았도다”라고 번역하여 문장의 맨 뒤에 오게 하였다. 대개의 번역 성경들(RSV, NIV, JB)이 “노트라 크”를 “be left like”(TOB: “va rester comme”) 즉 “--처럼 남아 있게 되었다”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적 특징인 “크”(כּ: like)의 세 번 반복을 통해 나타난 병행구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독자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말 뜻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각 구절마다 반복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 본문의 병행구가 갖고 있는 리듬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시온이 홀로 외로이 남아 있게 된 “비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되었다”를 세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23) JB, NBE, NEB, 공동번역이 이 단어를 “소돔”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NJB에서는 [זָרִים: foreigners]이 그대로 번역되었다).

24) John D. W. Watts, op.cit., pp. 12-14.

“is left like”를 직역하여 “--처럼 남아 있게 되었다”는 말은 어색한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3) 표준새번역 최종안도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히브리 본문의 시적 긴장감과 운율을 충분히 살려주지 못하고 있다.

8절은 2 + 2, 2 + 2 의 운율을 가진 치밀한 병행구이며, 첫 단어와 끝 단어가 발음상 유사성을 가지고 병행을 이루고 있으며(“노트라”: נֹטְרָה // “네쭌라”: נִצְוָרָה), 동시에 내용상 밀접히 연결되게 표현되어 있다(“딸 시온” // “포위된 도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 개의 비유(포도밭의 초막같이: “크수카 브카렘”: כִּסְכָה בְּכַרְם //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키블루나 브미크사”: כַּמְלֹוֹנָה בְּמִקְשָׁה)가 완전한 병행을 이루며 나온다. 따라서 8절은 전체적으로 교차대구(chiasmus) 구조를 갖고 있는 완전한 운문이다. 그런데 8절의 표준새번역 최종안은 문장이 산문체적이며 너무 길어진 감이 있다.

굳이 “외로이 홀로 남아 있게 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외롭게 남아 있는 것이”에서 “있는 것이”라는 표현과 우리말 조사 “과”를 빼고, 다음과 같이 번역함으로서 8절의 교차대구 구조와 운율을 좀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성 시온이 외로이 남아,  
포도원의 초막같이 되었고,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되었으며,  
포위된 성읍같이 되었구나.”

#### <<사 1:9>>

표준새번역 최종안:

1:9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 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초역: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이라도 살려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과 같이 되었을 것이며,  
고모라처럼 되어 버렸을 것이다.

(1) 여기의 문제점은 아트나흐(Athnah)를 어디에 위치시키는 것이 낫다고 보느냐는 본문 비평적 문제와 9절b의 병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일 것이다.

(2) MT에서는 아트나흐(Athnah)를 “키므아트”(כִּמְעַט: almost, nearly, little) 뒤에 위치시켜서 3 + 4 의 구조를 이루게 하고 있다. 그리고 9절b를 2 + 2 로 만들고 있다. 왓츠(John D. W. Watts)가 지적하듯이 이것은 균형을 잃은 운율이고, 내용도 다소 어색하다(If Yahweh of hosts had not left to us “a survivor like a little”). 왓츠는 LXX, Syr, OL 과 타르쿰을 따라 아트나흐(Athnah)를 “키므아트” 앞, 곧 “사리드”(שָׁרִיד: a survivor) 바로 뒤에 놓아, 3 + 3, 3 + 2 구조로 만들어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If Yahweh of hosts had not left to us a remnant  
almost like Sodom we would have become,  
Gomorrah we would resemble.”<sup>25)</sup>

그러나 9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적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간이라도 남겨 두지 않으셨

25) *ibid.*, p. 12.



다면 유다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소돔처럼 멸망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sup>26</sup>). 따라서 여기에서 “거의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다”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다<sup>27</sup>). 따라서 MT의 아트나흐(Athnah)를 현재 있는 위치에 그대로 놓아둔 채로 번역하는 것이 무방하며, 이 경우 위의 초역과 같이 될 것이다.

(3) 이 경우, 9절은 “만일 하나님이 생존자를 얼마간이라도 살려 두지 않으셨더라면(9절a), 우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9절b)”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9절b에서 9절ba와 9절bβ사이의 병행적 특징을 잘 살려야 할 것이다.

소돔 // 고모라

하이누(הֵינּוּ had we become) // 다미누(דָּמִינוּ had we resembled)

(4) 표준새번역 최종안에서 히브리어 “라누”(לָנוּ: to us)를 살려서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무방하리라고 본다. 필자는 초역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넣을 것을 고려는 하였으나, 바로 뒤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는 편이 더 매끄러운 우리말 표현이 될 것으로 보아 이를 생략하였다.

### 3. 나가는 말

위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성경 본문의 번역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내용 동등성의 원칙에 의한 내용의 정확한 전달의 필요성, 본문 비평의 문제, 히브리 문학적 특징의 감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어떻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말에 표현”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

표준새번역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것은 차기 역자들이 직면해야 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다. 성경 번역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산물이다.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성경이 나오기가 힘든 것이다. 새로운 세대에는 역자들의 새로운 노력들을 좀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터전 위에서 더욱 진지하고 훌륭한 번역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소고를 마친다.

26) 신 29:22-23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된 것으로 묘사된다.

27) George Buchanan Gray, *The Book of Isaiah I-XXVII*, ICC, p. 14: "Had not Yahweh of Hosts Left of us some that escaped, Like Sodom had we become, Gomorrah had we resembled."(p. 6); Joseph Blenkinsopp, *op. cit.*, p. 177: "Had not Yahweh of the hosts left us a few survivors, we would have shared Sodom's fate, resembled Gomorrah."

#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난 아카드 종교-제의 차용어

배철현\*

## 1. 들어가는 글

구약성서는 셈족어군(Semitic language family)의 일원인 성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다. 셈족어 언어들 간의 유사성은, 로만스어군(Romance language family)의 언어들인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유사한 것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성서 기자들이 어휘를 선택할 때,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들의 단어에는 없는 특수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고대 근동의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성서에서 한두 번 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 즉 하팍스(hapax)인 경우는 고대근동의 다른 언어로부터 빌린 차용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단어의 의미를, 성서의 다른 판본, 예를 들어 기원전 2세기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 기원후 2세기부터 쓰여진 바빌론과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아람어 번역본인 타르굼역, 5세기 이후 아람어 일종인 시리아로 번역된 페쉬타, 혹은 기원후 7세기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에서 유추할 수는 없다. 이들은 모두 히브리 본문에 대한 후대의 번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번역본들이 쓰여진 당시의, 성서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성서가 쓰여진 당시에 통용되던 그 단어의 의미를 추려내기는 어렵다.

(도표 1) 하팍스 히브리 단어의미 --> (칠십인역, 타르굼역, 페쉬타, 불가타) --> 한글 번역

구약성서 가운데 고대 근동에서 차용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기 위해서, 히브리 이전의 고대 근동 언어들, 예를 들어 수메르어, 아카드어, 에블라어, 히타이트어 등, 성서 히브리어가 등장하기 이전의 고대 근동 언어들에 도움

---

\* 세종대학교 교수, 고대근동문헌학

을 받아 의미를 추적하면, (도표 1) 방식보다는 더 설득력 있게 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도표 2) 고대 근동 언어들 --> 히브리 단어

특히 셈족어 중 기원전 2600년부터 기록된 아카드어는, 수메르어와 함께 인류 문명의 발상지언어로 성서 히브리어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멸망 시킨, 앗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의 언어이다. 아래 (도표3)처럼 성서 히브리어의 한 단어가 동시에 아카드어에서도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 성서 히브리어 단어는 원-셈어(Proto-Semitic)를 그대로 유지한 단어일 수가 있다. 즉 아카드어와 히브리어는 모두 셈족어에 속하는 '자매언어들'(sister languages)이기 때문에, 그 언어들 속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대다수의 단어들을 '동족 단어'(cognate)라고 부르고, 이 과정을 '언어학적 유지'(linguistic reten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원-셈어에서 '집'은 \*bayt-이다. 이 단어가 아카드어에서는 *bītum*, 히브리어에서는 *bēt(בֵּית)*로 나온다. 이 경우에 성서 히브리어 *bēt(בֵּית)*가 아카드어의 *bītum*과 유사하다 하여, 아카드 차용어라 볼 수 없다. 성서 히브리어 *bēt(בֵּית)*는 아카드어와 마찬가지로 원-셈어 단어 \*bayt-를 언어학적으로 유지하여 히브리어 문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도표 3) 원-셈어 (\*bayt-) -----> 아카드 단어 (*bīt-um*)  
-----> 성서 히브리어 (*bēt(בֵּית)*)

(도표3)과는 달리, 성서 히브리어에 없었다가 수메르어나 아카드어에서 단어를 빌어 사용하는 경우, 그 단어를 차용어(loanword)라고 한다.

(도표 4) 원-셈어 단어 -----> 아카드어 단어 -----> 히브리어 차용어

(도표 5) 수메르어 단어 -----> 아카드어 차용어 -----> 히브리어 차용어

아카드어와 성서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유사 단어가 나왔을 경우, 그 단어가 아카드어에서 차용한 성서 히브리어 단어인지(도표 4,5), 아니면 원-셈어에서 각기 유지한 단어(도표 3)인지 알기 위해서 '옥캄의 면도날'(Occam's Razor)이라는 원칙을 사용한다. 중세기 철학자 옥캄은 *entia non sunt multiplicanda praeter necessitatem*, '(논리의 주장에 있어서) 수는 필요 이상으로 증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 단어가 '받는 언어'라고 가정하는 것이 '주는 언어'라고 가정하는 것보다 그 설명이나 가정이 단순하면, 그것이 옳다고 하는 '논리 최소화 원칙'(Principle of Logical Parsimony)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난 종교-제의 언어에만 국한시키겠

다. 아카드어에서 성서 히브리어로 된 과정을 되도록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 2. 용어들

### 2.1. ‘문화단어들’(Kulturwörter)

‘문화단어’(Kulturwört)란 두 언어 군 이상에 속하며 상이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이동성’을 가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흔히 ‘어원 고아’(etymological orphan)라고 불린다. 이 단어가 주는 부정적이며 체념적인 의미로 말미암아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고전문헌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언어들 어원을 깊이 다룰 때, ‘문화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추적해야만 할 때가 있다.

‘문화단어’라고 알려진 어휘들은 거의 명사들이다. 이들은 대개 구체적인 물건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식물, 채소, 금속, 야생동물의 명칭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오랜 기간동안 여러 번에 걸쳐 군인들이나 상인들에 의해 전해지기 때문에, 같은 언어 안에서 여러 가지 철자로 나타난다. ‘문화단어’는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단어이다. 그러므로 ‘문화단어’는 의미는 확실하지만 어원이 확실하지 않은 단어들이다.

### 2.2. ‘차용어’(Lehnwörter)와 ‘외래어’(Fremdwörter)

흔히들 ‘차용어’는 ‘받는 언어’(received language)의 문법에 완전히 동화되어 ‘주는 언어’(giving language)의 문법의 자취가 발견되지 않는 단어들이고, ‘외래어’는 외국 물건을 지칭하고 ‘주는 언어’의 문법을 유지한 단어들을 의미한다.

미국 영어에서 *honcho*와 *Hauptsturmführer*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군인들의 입에, 미국인들의 입에 회자되던 단어들이다. 그러나 *Hauptsturmführer*는 독일의 비밀경찰을 이르는 ‘외래어’이며, *honcho*는 원래 중국어 한자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하여 읽은 ‘분대장’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그 의미가 확산되어 ‘대장’을 의미하는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차용어’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연구하려는 히브리 단어가 ‘외래어’인지, 아니면 ‘차용어’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아카드어 *tartannu*에서 빌린

성서 히브리어 חֲרָטָה이 성서에서는 '(앗시리아) 군인 대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열왕기하 18:17과 이사야 20:1에서 두 번만 언급되지만, 이 단어가 미국 영어의 honcho와 같이 이스라엘인들이 חֲרָטָה를 '군대 대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외래어'와 '차용어'를 편의상 모두 '차용어'라고 부르겠다.

### 3. 성서 차용어 연구

성서 히브리어 나타난 차용어 연구는 비교셈족학자들의 첩예의 연구 대상이었다. T. 램딘과 M. 바그너는 각각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난 이집트 차용어와 아람어 차용어에 대해 연구하였다.<sup>1)</sup> 아카드 차용어에 대한 연구로는 80년 전 H. 쾰머른이 저술한 *Akkadische Fremdwörter als Beweis für babylonischen Kultureinfluss*가 있다.<sup>2)</sup> 그러나 이 작품은 당시 독일에서 풍미했던 '범-바빌로니아주의' (Pan-Babylonism)의 일환으로, 모든 성서 히브리 단어를 아카드에서 찾으려는 왜곡된 방법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많은 오류를 남겼다.

1962년, M. 엘렌보겐이 성서 히브리어와 성서 아람어에 나타난 차용어를 추적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 책은 성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 연대적으로 늦은 언어인 미쉬나 히브리어, 타르굼 아람어, 칠십인역, 불가타역, 페슈타역에서 그 어원의 의미를 추려내려 했고, 반면에 수페르어나 아카드어와는 거의 비교하지 않았다.

### 4. 종교-제의 아카드 차용어

아카드어 차용어는 성서 히브리어 전반에 걸쳐 발견된다. 차용어를 의미상으로 구분하자면, 법률-행정, 전문, 제의-종교, 군사, 상업, 농업, 지리, 천문

1) Thomas O. Lambdin, "Egyptian Loan Words in the Old Testament," JAOS 73 (1953), p. 145-55; Max Wagner, *Die lexikalischen und grammatikalischen Aramaismen im alttestamentarischen Hebräisch* (=BZAW 96. Berlin: Töpelmann, 1966).

2) Heinrich Zimmern, *Akkadische Fremdwörter als Beweis für babylonischen Kultureinfluss*, 2nd. Leipzig: Hinrichs, 1917).

3) Maximilian Ellenbogen, *Foreign Words in the Old Testament: Their Origin and Etymology* (London: Luzac, 1962).

용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차용어들도 있다. 이들 중 법률-행정, 전문, 그리고 제의-종교 아카드 차용어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성서 히브리어는 왕과 왕실에 관련된 용어와 종교에 관한 용어를 주로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서 시대는 거의 신 앗시리아 시기와 신 바빌로니아 시기와 일치하며, 특히 남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왕실과 신전에 관한 많은 용어들을 차용했음이 분명하다. 아래는 성서에 나타난 아카드 제의-종교 차용어를 소개한 것이다.

#### 4.1. אֱלֹהִים '죽은 자들의 영

이 단어는 이사야 19:3에서 한번 언급되는 하팍스 레고메나(hapax legomena)로, 수메르어 GIDIM/KITEM의 차용어인 아카드어 *eṭemmu/eṭimmu*가 다시 히브리어로 차용되었다. 흔히 '마술사'라 번역되어 왔다. 성서에서 언급되는 다른 '하팍스 레고메나'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이사야 19장 3절 후반절 안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감지 할 수 있다. 다음은 히브리 본문과 <표준새번역>, <NRSV>이다.<sup>4)</sup>

וְרָשׁוּ אֱלֹהֵי־אֱלִילִים וְאֱלֹהֵי־אֲבֹתַי וְאֱלֹהֵי־חַיִּים וְאֱלֹהֵי־הַיְדֹעִימוֹת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they will consult the idols and the spirits of the dead and the ghosts and the familiar spirits.

여기에서 언급된 마술과 관계된 단어들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표준새번역>과 <NRSV>를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번역의 차이가 있다. 이 번역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새번역>	<NRSV>
우상	: the idols
마술사	: the spirits of the dead
신접한 자	: the ghosts
무당	: the familiar spirits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마술이 소개되었다. 먼저 '문다; 상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וַיִּשְׁאֵל과 אֱלִילִים가 소개되었다. אֱלִילִים은 '혼', '우상', 혹은 '우

4)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상에 잇든 신'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text{מַטְטֵר}$ 은 '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동사  $\text{C-d-y}$ 에서 파생된 명사로, '영매', 곧 '신접한 자'나 '무당', 혹은 '마술사'를 의미한다.<sup>5)</sup>  $\text{מַטְטֵר}$ 은 '영매'로 번역되기도 하고 '무당이 불러내는 귀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칠십인역은  $\text{מַטְטֵר}$ 을 영매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acute{\alpha}\gamma\acute{\alpha}\lambda\mu\alpha\tau\alpha$  '형상들'로 번역하였다. BDB는 이 단어를  $\text{מַטְטֵר}$ 의 복수형이라고 해석하였고,  $\text{מַטְטֵר}$ 을 이 단어의 어원으로 보아 'mutterers' 즉 '중얼거리는 사람'이라고 번역하였다. 성서 히브리어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랍어 단어인  $\text{ḥṭṭa}$  '낙타처럼 울다'와 연관시켜서 '중얼거리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유추한 것 같다.<sup>6)</sup>

A. 지르쿠와<sup>7)</sup> F. 펠레는<sup>8)</sup> 이 단어를 아카드어  $\text{eṭimmu}$  '죽은 자의 영'과 연결시켰다.  $\text{eṭimmu}$ 는 아카드 문헌에서 종종 마법에 관련된 단어로 등장하며, 점치는 데 있어서 점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점을 치는 영적인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 두 번째 의미가 이사야서 19장 3절의 용례와 유사하다. 아카드 문헌에서  $\text{iḷāni ukabbīt eṭimṣe aplah}$ 는 '나는 신들을 존경하고 에뎀무들을 섬긴다'라는 문장과 같이,  $\text{eṭimmu}$ 는 점치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제의나 예배의 대상으로  $\text{iḷāni}$  '신들'과 대비하여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text{מַטְטֵר}$ 을 아카드어  $\text{eṭimmu}$ 와 동일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히브리어  $\text{מַטְטֵר}$ 은 복수형으로, 마지막 자음 '멤'은 남성 복수형 어미이다. 그러나 아카드의  $\text{eṭimmu}$ 에서  $m$ 은 어미가 아니라 어근이다. 둘째, 히브리어  $\text{מַטְטֵר}$ 의 두 번째 자음이 중복된 차용어인 경우 대개 아랍어를 통해 빌려왔으나, 정작 아랍어에서는 이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text{מַטְטֵר}$ 이 아카드  $\text{eṭimmu}$ 와 의미상, 단어 형태상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할 수 있다. 히브리어  $\text{מַטְטֵר}$ 은 아카드어  $\text{eṭimmu}$ 를 잘못 분석하여  $m$ 을 복수 어미라 추측하였고 두 번째 자음  $t$ 가 중복된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이사야 19장 3절 후반절 번역을 다음과

5) 아카드어 사제 문서에서도,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  $\text{mādu}$ 는 사제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통과 의례를 거쳐 의례와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자이며, 반면에  $\text{lā mādu}$  즉 ' $\text{mādu}$ 가 아닌'은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6) F. Brown, S. Diver, C.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07), p. 31.

7) Anton Jirku, *Dämonen und ihre Abwehr im Alten Testament* (Leipzig: Deichert, 1912): 11쪽 이하.

8) Felix Perles, "Etimmu im Alten Testament und im Talmud," *Orientalistische Literaturzeitung* 17(1914), pp. 108-110.

9) S. Kaufman, *The Akkadian Influence on Aramaic*. *Assyriological Studies* 1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p. 50.

같이 제안한다.

וְרָשׁוּ אֱלֹהֵי־אֱלִילִים וְאֱלֹהֵי־אֲסִיפּוּ וְאֱלֹהֵי־דַעְנָנִים:

그들은 우상들과 죽은 자의 영들과 무당들과 마법사들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 4.2. פָּאָס ‘주술로 치료하다’<sup>10)</sup> אֲשָׁפּוּ ‘주술가’

직업 명사 אֲשָׁפּוּ ‘주술가’는 다니엘서의 히브리어로 쓰인 부분(1:20; 2:2)과 아람어로 쓰인 부분(2:20, 27; 4:4; 5:7, 11, 15)에서만 언급된다. ‘주술로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פָּאָס는 열왕기하 5장에서만 언급된다. פָּאָס는 아카드어 *āšipu* ‘마술사; 치유자’에서 차용한 단어이다.<sup>11)</sup> 이 단어가 히브리어 속한 서셈어(West Semitic)에서 유래한 단어일 수는 없다. 만일 이 단어가 원-서셈어(Proto-West Semitic) \**ušp*에서 유래했다면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는 \**ušp*가 되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카드어 (*w*)*āšipu*는 현재분사 남성 단수형이다. 이 단어 형태인 *pāris*는 흔히 히브리어에서 *qattal* 형태로 나와서 직업 또는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된다.<sup>12)</sup>

M. 엘렌보겐은 아카드어의 한 방언인 앗시리아어 *uššupu* ‘정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의 치료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פָּאָס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주장한다.<sup>13)</sup> 특히 신 앗시리아 방언의 /s/은 성서 히브리어에서 /s/가 되기 때문에 פָּאָס는 예상된 히브리어 철자이다. 다만 이 단어의 기본의미는 동음이의어인 פָּאָס의 ‘모으다’나 ‘제거하다’가 아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의 <NRSV>와 <표준새번역>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נִי הַנְּבִיא אֲשֶׁר בְּשָׁמְרוֹן אִן יֵאָכֵף אֹתוֹ מִצָּרָעוֹתָיו:

She said to her mistress, “If only my lord were with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 이 단어는 열왕기하 5장 3절, 6절, 7절, 11절에서 언급된다.

11) H. Zimmern, *Akkadische Fremdwörter als Beweis für babylonischen Kultureinfluss*. 2nd ed. (Leipzig: J. C. Hinrichs, 1917), p. 67.

12) Harold Chaim Cohen, *Biblical Hapax Legomena in the Light of Akkadian and Ugaritic* (Missoula, Montana: Scholars Press, 1978): # 61 hg-kg.

13) M. Ellenbogen, *Foreign Words in the Old Testament: Their Origin and Etymology* (London: Luzac, 1962), p. 43.



만일 어근이 \*'-s-p인 성서 히브리어 단어  $\text{קָטַח}$ 가 '제거하다'라는 의미라면, 목적어는 '문둥병'처럼 '병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text{קָטַח}$ 동사의 목적어는 '문둥병'이 아니라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다. 이 단어가 언급되는 5장에서,  $\text{קָטַח}$ 동사의 목적어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인 '그를'(הוא)이다.(3, 6, 7절) 5장 11절에 서만  $\text{קָטַח}$ 동사의 목적어가  $\text{הַמְדוּבָרִים}$ 이다. 열왕기하 5장 3절 후반절을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그는(엘리사) 그를(나아만) 그의 문둥병으로부터 치료할 것이다.

그러므로  $\text{קָטַח}$ 의 의미는 아카드어 *usšupu*처럼 '정화하다' 혹은 '치료하다'이다.

E. 릿터는 메소포타미아의 정화나 치료에 관련된 두 직업인 '정화 사제' *āšīpu*와 *asû* '의사'를 구분하고 열왕기하 이야기에서 엘리사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āšīpu* 역할을 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sup>14)</sup> 특히 *āšīpu*는 치료를 하기 전에 처방전을 미리 알리기 때문이다. 이 처방전이 바로 열왕기하 5장 10절이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4.3. הִכַּל '신전'

성서 히브리어 중 성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text{הִכַּל}$ 이다. 이 단어는 수메르에서 차용한 초기 아카드어(기원전 2600-2000년)의 단어가 북서 셈어(Northwest Semitic)로 유입된 단어이다.

(도표 6) 수메르어 É.GAL > 고대 아카드어(기원전 2600-2000년) > 초기 북서 셈어 > 히브리어  $\text{הִכַּל}$

수메르어에서 신전을 의미하는 단어는 É.GAL인데, 이 단어의 축자적인 의미는 '큰 집'이다. 이 단어를 차용한 아카드어는 *ekallu*이다.

14) Edith K. Ritter, "Magical-Expert (=āšīpu) and Physician (=asû): Notes on Two Complementary Professions in Babylonian Medicine," in *Studies in Honor of Benno Landsberger on his 75th Birthday*, Hans G. Günterbock and Thorkild Jacobsen, eds. (Assyriological Studies 1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5), pp. 299-321 and Hector Abalos, *Illness and Health Care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Role of the Temple in Greece, Mesopotamia and Israel*. Harvard Semitic Monograph 45 (Atlanta: Scholars Press, 1995), p. 154.

그러나 북서 셈어의 모든 단어들은 후음 *h*로 시작하고 있다.<sup>15)</sup> 수메르어 음가에서 É는 일반적인 /e/음가와와는 다르다. 분명 É는 E와 발음이 수메르인들에게 다르게 발음되었기 때문에, É와 E는 전혀 다른 글자를 사용하였다. 이 원래의 수메르 발음을 오히려 후대의 언어들의 발음을 통해 재구성할 수도 있다.

고대 아카드어 (기원전 2600-2000) 이후의 아카드어에서는 단어 처음에 오는 후음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포함한 북서 셈어의 *h*-는 설명이 필요하다. *h*-는 어디에서 왔는가? 아직도 우리는 수메르어 É는 고대 아카드어의 음가 /ʾà/와 일치하며, 그것은 다시 셈어 \**ha* 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차용한 아카드어 *ekallum*의 /e/가 후음 + /a/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성서 히브리어 단어 *hkl/hykl*은 초기 아카드어 음가를 흉내낸 초기 북서 셈의 발음을 그대로 간직한 단어이다.

(도표 7) 수메르어 É.GAL/ḥe.gal?/ > 고대 아카드어 \**akkal-um* > 북서 셈어 \**hekal* > 히브리어 *היכל*

#### 4.4. \*כֹּרֶךְ ‘제사 케익’

예레미야서 7:18과 44:19에서 언급되는 כֹּרֶךְ는 두 군데 모두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단어의 동의어인 아카드어 *kamānu*는(일반적인) ‘과자’이다. *kamānu*는 아마도 동사 *kamū* ‘굽다; 튀기다’에서 파생했을 것이다. 이 단어는 특히 제사의식에 쓰이는 뜨거운 접시에 올려진 빵이나 케익을 의미한다.<sup>16)</sup>

예레미야 7:18은 아카드어 *kamānu*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הַבָּנִים מִלְקָטִים עֵצִים וְהָאֲבוֹת מִבְּעָרִים אֶת־הָאֵשׁ וְהַנְּשִׂאִים לְשׁוֹחַ בָּצֶק  
לַעֲשׂוֹת כֹּרֶךְ לְמַלְכַת הַשָּׁמַיִם וְהַסֹּדֵד נֹסְכִים לְאֱלֹהִים אֲחֵרִים לְמַעַן הַכְּעִסְנִי:

The children gather wood, the fathers kindle fire, and the women knead dough, to make cakes for the queen of heaven; and they pour out drink offerings to other gods, to provoke me to anger.

자식들은 땀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

15) 우가리트어 *hkl*; 제국 아랍어, 팔미리 아랍어, 하트라 아랍어, *hykl*; 성서 아랍어 *היכלא*.

16) *kamānu*는 목동들이 모닥불에 남겨진 잿더미 위에서 준비한, 즉 ‘잿더미(위)의 케익’ (*kamān tumri*)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이 구절은 바빌로니아-앗시리아의 여신 이쉬타르(Ishtar)를 위한 제사상을 묘사하고 있다. 신주를 뿌리고, 별 모양이나 달 모양, 혹은 여신 형상을 밀가루로 반죽하여 구워 바친다. 땀감을 줍고 불을 피워 빵을 구워 만드는 특별한 모양을 가진 케익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카드어에서 *kamānu*의 의미와 유사하다.

아카드어 방언 중 신 바빌로니아어(기원전 1000-500년)와 후기 바빌로니아어(기원전 500년 이후)에서 모음 사이의 *-m-*은 [w] 음가를 가지기 때문에 히브리어 כוּנִים의 두 번째 자음 ‘바브’는 바빌로니아어 발음을 차용한 것이다.

#### 4.5. כִּשְׁפָּא ‘무당’/ כַּשְׂפִּים ‘마술’/ כִּשְׁף ‘마술을 부리다’

이 단어는 직업명사형으로 ‘무당’(예레미야 29:9), 일반 명사로 ‘마술’(미가 5:1; 나훔 3:4a, b; 이사야 47:9, 12; 열왕기하 9:22), 그리고 동사로 ‘주술을 부리다’(역대하 33:6; 신명기 18:10; 말라기 3:5; 출애굽기 7:11; 다니엘 2:2; 출애굽기 22:17)로 언급된다.

아카드어에서도 히브리어와 유사하게 동사 *kašāpu*는 ‘마술을 부리다’라는 의미, *kaššāptu* ‘마술 부리는 여자’ *kaššāp*는 ‘마술’ 그리고 *kišpu*도 ‘마술’이란 의미이다.<sup>17)</sup> 성서 히브리어에서 ‘마술’(미가 5:1; 나훔 3:4a, b; 이사야 47:9, 12; 열왕기 하 9:22)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כַּשְׂפִּים이다. 이 단어는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수형으로 나오는 소위 ‘플루랄레 탄툼(plurale tantum)’이다. 아카드어에서도 이 단어는 항상 플루랄레 탄툼형인 *kišpu*로 나온다. 성서 히브리어 כַּשְׂפִּים의 형태는 소위 세골명사의 복수형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כַּשְׂפִּים의 형태는 아카드어 *kišpu*를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아카드어의 남성 복수형 어미 *-ū*를 제외한 어근 *\*kišp-*를 차용하여, 세골명사의 복수형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도표 8) 아카드어 *kišpū* - - -> ( *\*kišp-* - -> *kaššāpūm* כַּשְׂפִּים  
plurale tantum

이 단어가 아카드어에서 차용되었다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는 이에 해당하는 동사가 ‘피엘’형 כִּשְׁף라는 점이다. 이 피엘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 직업명사(nomen agentis)인 כִּשְׁף에서 만들어진 동사형이다. 히브리어 כִּשְׁף의 명사 형태 *qattāl*형은 아카드어 *kaššāp*의 단어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17) 우가리트어 *kšpm* ‘마술사들’; 시리아어 *kušpā* ‘기도’, *etkaššap* ‘기도하다’.

## 4.6. לחן ‘신전 관리인’

이 단어는 신 앓시리아어(기원전 1000-500)에서 유래하여, 아람어를 거쳐 성서의 לחן이 되었다. 아카드어에서는 ‘관리’라는 의미를 가진 *alahhīnu*, *lahhīnu*, *alḫēnu*, 성서아람어에는 여성형 어미가 접미하여 *lḫnh*, ‘여자 관리’로 언급된다.

B. 란스버거는 ‘신전 관리자’를 의미하는 성서 아람어 לחנה는 아카드어 *lahhīnu*, 혹은 *alahhīnu*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다.<sup>18)</sup> 신 앓시리아 시대의 신전 관리자는 주로 제기, 의복, 그리고 의식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당하는 ‘사찰’이었다. 아람어로 쓰여진 엘레판틴 파피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발견된다.

לחנ יי יהה

YHH의 *lḫn*<sup>19)</sup>

스가랴 6:14에 대한 <NRSV>와 <표준새번역>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והקשרת תהיה לחלם ולטוביה ולידעיה ולחן בן צפניה לזכרון בהיכל יהוה:

And the crown shall be in the care of Heldai, Tobijah, Jedaiah, and Josiah<sup>(주)</sup> son of Zephaniah, as a memorial in the temple of the Lord.

(주) Syr Compare verse 10: Heb *Hen*.

그 왕관은,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야를 기념하려고, 주의 성전에 둘 것이다.

<NRSV>는 성서 원문과는 다르게 לחן을 생략하고 *Joshiah*로 대체하였다. 각주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헨’이라고 기재하였다. <NRSV>는 לחן을 전치사로 보았고, חן을 인명으로 해석하였다.

<표준새번역>도 <NRSV>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לחן을 전치사로 보았고, חן을 인명으로 해석하였고 본문에는 없는 ‘곧 요시야’를 첨가하였다. 이 요시

18) Benno Landsberger, "Akkadisch-hebräische Wortgleichungen," SVT 16 (1967), pp. 198-204; Stanislav Segert, "Aramäische Studien I," ArOr 24(1956), p. 388, 400; AIA, 66. von Soden은 아카드어 *lahhīnu* 'ein Angestellter in Tempeln' (AHw, 528)과 *alahhīnu*, "Müller"(AHw, 31)를 별도로 취급했지만 CAD는 두 단어를 모두 *alahhīnu* '행정 관리'(CAD A/1, 294-96) 아래 두었다.

19) 이 구절은 Bezael Porten과 Ada Yardeni의 *Textbook of Aramaic Document from Ancient Egypt 2: Contracts* (Jerusalem:Hebrew University, 1989), p. 60.

야는 스가라 6장 11절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로 소개되어 있는데, 6장 14 절에서는 ‘요시야’가 생략되었고 그 대신에  $\eta\lambda$ 을 첨가하였다. 칠십인역은  $\eta\lambda$ 을 전치사 + 명사로 보아, εἰς χάριτα 즉, ‘친절로’라고 번역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로,  $\eta\lambda$ 은 신 앗시리아어 문헌의 *lahhina*나 엘레판틴 아람어 *lhn*처럼 왕족 관직명이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의 의복 관리자였다. 아마도 중복자음생략(haplography)으로  $\eta\lambda\eta\eta$ 에서 두 번째  $\eta$ 가 생략되어  $\eta\lambda$ 으로만 남아 있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원-마소레트 문헌에는 ‘요시야’의 이름이 있었으나, 필사자에 의해 생략되었다. 스가라 6장 14절의 원-마소레트 문헌을 재구성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eta\lambda\eta\eta$   $\eta\lambda$   $\eta\lambda$   $\eta\lambda$

여호수아, 성전 관리, 스바니야의 아들

그러므로 본문비평상의 실수는 중복자음생략이 아니라 *un saut de même à même*, 즉 필사자의 눈이 첫 번째 라메드 글자에서 두 번째 라메드 글자로 건너 뛰어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생략한 것이다.<sup>20)</sup> 이 두 번째 제안이 10절에서 이미 소개한 요시야의 이름을 생략하고 그의 관직명만 사용하는 파격적인 서술 방식을 택한 첫 번째 제안보다는 설득력이 있다. 특히  $\eta\lambda$ 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왕관을 보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14절 전반에 나오는 ‘왕관’이란 단어와도 의미상 짝을 이루는 단어이다.

성서 히브리어  $\eta\lambda$  *lahēn*은 원-히브리어(Proto-Semitic) \**qtil*형에서 유래했다. 성서 아람어에서 남성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성형  $\eta\lambda\eta$ 는 남성형이 \**lhēn*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중기 앗시리아(기원전 1500-1000년) 문헌에서 *alhēnu*가 나온다. 히브리어  $\eta\lambda$  *lahēn*은 앗시리아어 *alhēnu*에서 처음 a를 생략하고 마지막 단모음을 생략하여 히브리어, 아람어 형태 *lahēn*에 도달했었을 수도 있다.

(도표 9) 앗시리아어 *alhēnu* > (첫 자음 생략)\* *lhēnu* > (마지막 모음 생략) *lhēn*

그러나 히브리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신 앗시리아(기원전 1000-500년) 시대의 단어 *lahhīnu*로부터도 히브리어와 아람어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이

20) 이와 같은 서술방식 ‘이름+직업+ *ben-* +이름’은 흔한 용법이다 (사무엘상 30:7; 열왕기하 19:2).

단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lahyinu*에서 중복 후음을 단순화한 후, 강세가 없는 열린 단모음을 생략하여 히브리, 아람어 *lāhēn*에 도달했었을 수도 있다.

(도표 10) *lahyinu* > \**lahīn* (중복후음 단순화) > \**lhin* (엑센트 이동에 의한 열린 짧은 모음 생략) > *lhēn*.

아마도, 신-앗시리아 시대의 아카드어가 성서 히브리어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도표 2)가 성서 히브리형  $\text{לָחַן}$  *lāhēn*을 위하여 가능성이 더 있는 형태이다.

#### 4.7. \*מחוזת '여선지자'

이 단어는 하팍스로 잠언 31:3에서 연계형으로만 언급된다.

잠언 31.1-9은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충고를 나열하고 있다. 잠언 31:3에 대한 <NRSV>와 <표준 새번역>은 다음과 같다.

אַל־תַּתֵּן לְנָשִׁים חֵיץ וְדַרְכֶיךָ לְמַחֲזֹת מְלָכִין:

Do not give your strength to women, your ways to those who destroy kings.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이 문장의 해석은 *nimm*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장 널리 인정된 분석은 *nimm*가 *nimm* 동사의 여성 복수 분사형으로 *nimm* '왕들을 파괴하는 여자들'이란 의미로 보는 것이다. <NRSV>나 <표준새번역> 모두 '파괴'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E. 리핀스키는 성서 히브리어의 *nimm*는 아카드어 *mahyūtu*에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아카드어 *mahyūtu*는 '여선지자'라는 의미로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마리에서 발견된 문서에서는 *mahyūtu*가 임금의 관심을 끌었다고 증언한다. 1969년 W. 모란은 14개의 마리 문서를 연구하면서 당시 임금의 관심은 자기의 신변 보호, 반란의 위협, *mahyūtu*,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승리였다.<sup>22)</sup>

21) Edourd Lipinski, "Empunts suméro-accadiens en hébreu biblique," *Zeitschrift für Althebraistik* 1/1(1988), p. 66.

22) William L. Moran, "New Evidence from Mari on the History of Prophecy," *Biblica* 50 (1969): 17. 마리 문서의 예언 형태에 대한 최근 작품은 Jean-Marie Durand, *Achives épistolaires de Mari I.1: les textes prophétiques*

그러므로 잠언 31:3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도표 11)

אַל־תַּחַן לְנַשִּׁים חֵילָךְ וְדַרְבָּיִךְ לְמַחֹת מְלָכִין:

동사+ 간접목적어1(전치사 ל + 사람) + 직접목적어1 + 직접목적어2 + 간접목적어

이 구조로 다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너는 여자에게 너의 힘을, 왕들의 여선지자에게 너의 길을<sup>23)</sup> 쓰지 말아라.

#### 4.8. 70 ‘예배소’

시편 42편 5절에 언급되는 70은 그 의미가 불확실한 단어로 언급되어 있다. <표준새번역>과 <NRSV>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כִּי אֶעֱבֹר בְּסֶךְ

These things I remember, as I pour out my soul:

how I went with the throng, and led them in procession to the house of God, with glad shouts and songs of thanksgiving, a multitude keeping festival.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 소리 범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표준새번역>의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문장 전체를 생략, 문장을 첨가와 의역임에 틀림없다. 특히 כִּי אֶעֱבֹר בְּסֶךְ 부분을 ‘I went with the throng’ 혹은 ‘무리의 (앞장을 서서)’라고 번역하여, 70을 ‘무리’라고 이해하였다. 고대 번역 본들도 의미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70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와 연계하여 번역하고 있다. BHS 본문비평장치에 אֶרֶךְ אֶרֶךְ 즉 ‘위대한 이의 천막에서’라고 번역하여, 70을 ‘초막집’이란 의미를 가진 7000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εν τῷ σκηνῆς θαυμαστῆ, 페쉬타는 *bstrk* ‘syn’ ‘당신의 힘의 보호 안에서’로 번역하였다.

‘금기’라는 의미를 가진 수메르어 ZUG을 차용한 아카드어 *sukku*는 ‘예배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카드어 단모음 *u*가 폐음절에 올 경우 히브리어에서는 단모음 *a*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편 45편 5절을 다시 번

(=ARM 26, 1. Paris: É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88), pp. 377-443.

23) 여기서 ‘길’이란 성적인 의미의 ‘정력’과 같은 것이다.

역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예배소에서 지나 하나님의 집까지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으로 무리들이 (종교) 절기를 즐기던 일!

#### 4.9. פור '주사위'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명절인 부림절의 기원과 관련하여 에스더서에서만 언급된다.<sup>24)</sup> 이 단어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J. Lewy는 아카드어 *pūru*가 아카드 동사 *parā'u* '자르다의 명사형이라고 주장한다.<sup>25)</sup> 그러나 세 번째 자음이 후음인 경우 명사형이 *pūru*처럼 *qūl* 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단어 아카드어 *pūru*는 수메르어 BUR '그릇'에서 차용했다.

#### 4.10. שגל '왕후'

느헤미야 2:6와 시편 45:9에서 언급되는 שגל은 흔히 '왕후'라고 번역된다. 최근에 출판된 HALOT는 שגל을 아카드어 *ša ekalli* 즉 '궁중의 사람'에서 유추한다.<sup>26)</sup> '왕궁의 사람'은 흔히 남자 관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인 '왕후'와는 다르다.

S. 파르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언어학적으로 설명하였다.<sup>27)</sup> '여자'에 대한 신 앗시리아 단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인 *sinništu*가 아니라 *issu* (복수, *is(s)āte*)라고 주장한다. *issu*에 대한 연계형은 *issi*이며 '궁궐의 여자'(MÍ.É.GAL)은 *issi ekalli*가 된다. 파르폴라는 신 앗시리아 단어 *issi aḫāiš*에서 두 단어 사이의 모음충돌현상으로 앞에 나온 단어의 마지막 단모음이 생략된 후 두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 *issāḫāiš*가 됨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언어학적 대비를 상정했다.

(도표 12)

24) פור (에스더 3:7; 9:24, 26), פורים (에스더 9:26, 28, 29), פרים (에스더 9:31, 32).

25) AIA 48 n. 271. Julius Lewy, "Old Assyrian puru'um and pūrum," RHA 5(1938), p. 123 이하.

26)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IV*. 1415.

27) Simo Parpola, "The Neo-Assyrian Word for 'Queen'," *State Archives of Assyria Bulletin* 2/2 (1988): 73-76.



*issi aḥāiṣ : issāḥāiṣ = \*issi ekalli : X =\*issekalli.*

\**issekalli*는 첫 모음이 생략되고 두 개의 중복 자음(ss)을 단자음화 한다. 예를 들어 신 앓시리아어 *issu annaka* ‘여기에서’, *issu amnaka* ‘거기로부터’ 그리고 *issu pāni* ‘앞에서’는 각각 *sunakka*, *summaka*, *supaniya*가 되었다. 유사하게 \**issekalli*는 \**sekalli*가 되었어야 한다. 신 앓시리아어 방언에서 모음 사이에 *k*가 흔히 *g*로 유성음화가 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šegalli*]로 발음되었고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לַשָּׁדַי로 나왔다.

#### 4.11. \*שָׁדַי ‘귀신’

שָׁדַי이란 단어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두 번 신명기 32:17과 시편 106편 37에 언급된다. <표준 새번역>은 이 두 곳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신명기 32:17

וַיִּזְבְּחוּ לְשָׂדִים לֹא אֱלֹהִים אֱלֹהִים לֹא יִדְעוּם חֲדָשִׁים מִקֶּדֶם בָּאוּ לֹא שָׁעָרוּם אֲבֹתֵיהֶם: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시편 106편 37절

וַיִּזְבְּחוּ אֶת־בְּנֵיהֶם וְאֶת־בְּנוֹתֵיהֶם לְשָׂדִים:

또한 악귀들에게 자기의 아들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히브리어 שָׁדַי이 아카드어 *šedu*에서 차용한 단어의 복수라는 것은 이미 제안되었다. 아카드어 *šedu*는 신이 아니다. CAD는 이 단어를 ‘인간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영혼이나 귀신’이라고 정의한다.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šedu*는 제사장, 의례를 동반하는 신이 아니다. 이러한 아카드 용법은 분명 ‘제사의 대상’으로 신명기 32:17과 시편 106편 37절에서 언급되는 שָׁדַי와 다르다. 신명기 3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야 한다.

וַיִּזְבְּחוּ לְשָׂדִים לֹא אֱלֹהִים לֹא יִדְעוּם

그들은 ‘엘로하’가 아닌 귀신들, 즉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 관계 연구

전무용\*

## 1. 머리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성서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성서 번역 계보도를 만들었다. 그 계보도를 만들 때에, 번역본 간의 영향 관계 또는 번역의 계보 관계를 따라 선을 그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민휴선생실기』에 따르면,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유성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同年(1906)에 兪星濬長老의 翻譯으로 鮮漢文新約이 發行되야 有識階級の 需用에 만히 供給되는지라”<sup>1)</sup>

유성준은 1902년 2월 ‘일본유학생혁명혈약서사건’에 연루 체포되어 1903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는 감옥서에 있다가 1904년 1월에 황해도 황주에 유배되었고, 1905년 4월에 석방되었다. 그는 감옥서에서 1903년 말에 개종하였고<sup>2)</sup>, 황주에서 처음 교회에 출석하였으며, 1905년 석방되어 서울로 와서 연동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국한문번역에 참여하였고, 1905년 11월에 인쇄소로 넘겨질 때까지 원고를 다듬었다.<sup>3)</sup> 성경의 번역에 대하여 유성준 본인이 진술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리상재 리원궁 김영식 홍재기 제씨의 권고를 좇차 런던동교회에 입참하여 세례를 받고 기일 박사와 함께 순조선문신약을 선한문으로 교작(交作)하는 일에 종사하며 일변으로 배재학당 한문교사로 한주일 여섯시간씩 교유하고 유쾌하게 지내어왔다.<sup>4)</sup>

이 진술은 당시에 이미 번역 출간되어 있던 순 조선문 신약을 가지고 선한문으로 바꾸어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성서공회사에서는 『新約全書국한문』(1906)을, “1906년에 나온 『신약전서』와 한문 『新約全書文理』를 저본으로 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sup>5)</sup> 본 논문에서는 유성준의 말을 근거로,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번역 작업이 당시에 출간되어 있던 “순조선문신약”을 가지고 이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1) 양주삼 정태웅 편찬, 『민휴선생실기』 대영성서공회, 1937, p. 25.

2) 유성준, “밋음의 동기와 유래”, 『基督申報』, 1928. 7. 4, 11, 25일자 참조, 『基督申報』 영인본 제10권, 1988년 4월 20일, 한국기독교사연구회 발행. 유성준은 본인의 이 회고의 글에서, 1903년 1년 동안 감옥에서 순한문 성경을 일곱 번이나 읽었다고 하였다.

3) 대한성서공회사 II, p. 85 참고. 그러나 이덕주 목사는 그의 논문 “한글성서번역사개관”에서 “유성준은 이 유배기간 중에 한문으로 된 新約全書와 그 무렵에 완역되어 나와 있던 한글 『신약전서』를 가지고 국한문성서를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준 본인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한글 성서 찬송가 백년』, 기독교문사, 1987년, p. 35.

4) 유성준, “밋음의 동기와 유래”, 『기독신보』, 1928. 7. 4, 11, 25. 특히 7. 25일자 『기독신보』. 『대한성서공회사 II』 p. 85도 참조.

5)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p. 87.

루어졌다고 보고, 본문의 내적 증거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국한문 성경을 한문 문리 성경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예수성경전서』의 번역이, 먼저 조선인 번역자들이 한문 문리성경을 한글로 옮기면, 그 초역을 선교사들이 헬라어 성서와 영어 개역성서를 가지고 꼼꼼하게 대조하면서 고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up>6)</sup>는 것을 생각하면,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번역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수정의 현토 방식의 번역이 이러한 문체로 번역되는 초기 단계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국한문 성경을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리역 한문 성경과의 상관성보다는 우리가 구역이라고 부르는 『신약전서』와의 상관성이 아주 높다. 이와는 반대로 『新約全書文理』를 저본으로 했다는 증거나 징후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름들을 음역할 때, 구역의 음역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新約全書국한문』(1906)에서는, 사람 이름 땅 이름 등의 음역들이 모두 『신약전서』의 음역을 따르고 있다. 그 밖의 중요한 개념어들을 한자어로 번역할 때에, 문리역의 한자어와는 다른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다. 오히려 같은 낱말을 쓴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번역문의 어순이 구역과 같고, 문장 구성 성분들의 수가 구역과 같다는 점이다.

김사요 님은 그의 논문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sup>7)</sup>에서 『대표본 문리역』과 『구역』 『개역』 『일본어 성서』 본문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비교 검토를 보아도 문리역과 구역은 본문의 번역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은 구역과 번역이 일치하고 있다. 구역이 중국어 대표역본의 한자어와 같은 한자어를 사용한 예도 제시하고 있지만, 같은 비율로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도 밝히고 있다.<sup>8)</sup> 같은 낱말이 있다는 것은 한국인 조력자들이 문리역을 참조함으로써 이러한 정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본문에 대한 같은 이해를 따라서 번역하여, 번역문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구역에서 사용한 한자어가 문리역과 다르다는 것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곳들을 살펴 보면, 『新約全書국한문』의 한자어는 구역의 한자어와 같다. 이는 또 『新約全書국한문』이 구역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임을 나타내 주는 증거가 된다. 이는 구역의 번역이 문리역을 대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sup>9)</sup>

본 논문에서는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이 다른 번역본들과 어떠한 관련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본문의 대조를 통해서 밝히는 방법으로, 역본들 사이의 계보 관계를 추적하고자 한다.

## 2.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문체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문장을 이룰 때에 ‘언해체’(또는 ‘경전언해체’)라고 하며, 이 문체는 중요한 개념어들을 한자어들로 많이 쓰고 있다. 대표적인 문장으로 “훈민정음언해”를 들 수

6) 이환진 전무용 서원석 정리, “예수성경전서”, 『성서한국』 1987. 6. 제 33권 1호, pp. 8-18.

7) 김사요(金佐代), 『일본어 번역 성서가 한국어 개역 성서에 끼친 영향-창세기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2000학년도 석사학위 논문.

8) 김사요, 위 논문, pp. 55-56 참조.

9) 번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전통적으로 한문을 언해할 때에는, 한문 문장에서 사용한 한자어를 철저히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번역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는 방식이 한문의 한자어를 한 글자씩 새기는 방식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이다.

있을 것이다.

世宗御製訓民正音

國之語音이 異乎中國<sup>10</sup>야 與文字로 不相流通<sup>11</sup>호씨 故로 愚民이 有所欲言<sup>12</sup>야도 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

나랏말씀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호씨 이런 전츠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ㅅ배 이셔도 마춤내 제 ㅼ들 시러 ㅼ디 못흫노미 하나라

이 언해의 번역 특징은 철저한 직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번역 특징은 거의 모든 언해에서 나타난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 나가면서 번역하는 방식으로 번역되어 있다. 초기의 언해본인 훈민정음언해나 석보상절은 상대적으로 한자어보다는 우리말 훈을 따라서 번역한 말들이 더 많다.

佛爲三界之尊<sup>13</sup>야 弘渡群生<sup>14</sup>호시니니 (釋譜詳節序)

부테 三界엿 尊이 드외야겨야 衆生을 너비 濟渡<sup>15</sup>호시나니

이 본문은 “석보상절서”의 첫 부분인데, “군생”을 “중생”으로 번역한 것이나, “渡”를 “濟渡”로 번역한 것 등은, 한문에 나타난 한자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한국 한자어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러한 변용은, 그 안에 낱낱의 글자를 설명하는 데서 “渡동는 濟스 ㅅ. 渡동호씨라”로 낱말 풀이를 한 것을 그대로 번역에 올리면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용은 석보상절 안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후대의 유교 경전의 언해로 오면 이러한 경향은 현저히 줄어들고, 또 중요한 개념어를 한문 본문에서 그대로 채용하는 경향이 아주 커진다.

다음은 조선조에 출간된 대학언해 본문이다.<sup>10</sup> 정확한 간행 연도는 알 수 없다. 이하 맹자언해 시경언해 모두 같다. 가끔 맞춤법에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보이나, 그대로 인용한다. 한문 본문은 자간에 제목과 같은 형식으로 音讀이 있으나, 생략한다. 원본에는 띄어쓰기가 없으며, 본문의 띄어쓰기는 필자가 띄운 것이다.

『大大學<sup>16</sup>호<sup>17</sup>諺<sup>18</sup>언<sup>19</sup>解<sup>20</sup>히』

大學之道는 在明明德<sup>21</sup>호며 在新民<sup>22</sup>호며 在止於至善<sup>23</sup>이니라

大學<sup>24</sup>호의 道는 불근 德을 불킴에 이시며 民을 새롭게 ㅅ에 이시며 지극한 善에 止<sup>25</sup>호에 인느니라

知止而后에 有定<sup>26</sup>이니 定而后에 能靜<sup>27</sup>호며 靜而后에 能安<sup>28</sup>호며 安而后에 能慮<sup>29</sup>호며 慮而后에 能得<sup>30</sup>이니

止<sup>31</sup>호 ㅅ를 안 后에 定<sup>32</sup>호에 인느니 定<sup>33</sup>호 后에 能히 靜<sup>34</sup>호며 靜<sup>35</sup>호 后에 能히 安<sup>36</sup>호며 安<sup>37</sup>호 后에 能히 慮<sup>38</sup>호며 慮<sup>39</sup>호 后에 能히 得<sup>40</sup>호느니라

物有本末<sup>41</sup>호고 事有終始<sup>42</sup>호니 知所先後ㅣ면 卽近道<sup>43</sup>矣리라

物이 본과 末니 잇고 일이 終과 始ㅣ 이시니 먼저 호며 후에 호 ㅅ 바를 알면 곧 道에 갓가오리라

『孟<sup>44</sup>뎡<sup>45</sup>子<sup>46</sup>호<sup>47</sup>諺<sup>48</sup>언<sup>49</sup>解<sup>50</sup>히』 卷<sup>51</sup>권<sup>52</sup>之<sup>53</sup>지<sup>54</sup>五<sup>55</sup>호 滕<sup>56</sup>등<sup>57</sup>文<sup>58</sup>문<sup>59</sup>公<sup>60</sup>공<sup>61</sup>上<sup>62</sup>상

滕<sup>63</sup>文<sup>64</sup>公<sup>65</sup>이 爲<sup>66</sup>世子<sup>67</sup>에 將<sup>68</sup>之<sup>69</sup>楚<sup>70</sup>호새 過<sup>71</sup>宋<sup>72</sup>而見<sup>73</sup>孟子<sup>74</sup>호신대

滕<sup>75</sup>文<sup>76</sup>公<sup>77</sup>이 世子ㅣ 되여실제 장츠 楚에 갈씨 宋에 過<sup>78</sup>호다가 孟子를 보신대

孟子ㅣ 道性善<sup>79</sup>호샤디 言必稱堯舜<sup>80</sup>이러시디

10) 본인의 고조부(名, 龍圭, 1851-1927) 증조부(名, 錫九, 1882-1930)께서 향리에서 서당을 열고 강학을 하실 때에 쓰시던 책. 한지에 인쇄 제본된 것으로, 다섯 번 묶음으로 제본되어 있다.

孟子 | 性의 善함을 道히샤디 말마다 반드시 堯舜을 稱히더시디

世子 | 自楚反히야 復見孟子히신디 孟子 | 曰世子는疑吾言乎니잇(가)<sup>11)</sup> 夫道는一而已矣니이다  
世子 | 楚로브터 反히야 다시 孟子를 보신디 孟子 | 굴으샤디 世子는 내말을 의심히시니잇  
가 道는 혼나힐 筭음이니이다

『詩시경경諺언解히』 卷권之지十십六륙 大대雅아 文문王왕之지什什

文王在上히샤 於昭于天히시니 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로다 有周不顯가 帝命不時가 文王陟  
降이 在帝左右이시니라

文王이 上에 거샤 於흠다 天에 昭히시니 周 | 비록 넷나라히나 그 命이 新히도다 周 | 顯티  
아니냐 帝의 命이 時 아니냐 文王의 陟히며 降히삼이 帝의 左右에 거시니라

여기서 보는 대로, ‘경전언해체’ 또는 ‘국한문혼용체’라고 부를 수 있는 언해 본문과, 한문 문장에 “현토”를 한 본문은, 문체의 개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현토를 한 한문 본문은 한문의 문장 구조가 번역문 안에 살아 있고, ‘경전언해체’는 문장 구조가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 언해본들에서는 “군쟁”을 “중쟁”으로 번역하는 것과 같은 개념어의 변화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유교 경전 언해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번역 특징이다. 한문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모두 그대로 번역어로 받아들이거나 훈으로 새기는 형식으로 번역을 하였다. 특히, 중요한 개념어들은 뜻을 새기지 않고, 그 한자어를 그대로 채용하여 사용하면서, 우리말로 토를 붙이는 형식으로 번역하였다. 번역 원칙으로 볼 때에는 철저한 직역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언해체’ 문장은 바로 이처럼 유교 경전의 언해본들의 언해 곧 번역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러한 문체를 특히 본고에서는 ‘경전언해체’로 부르기로 한다.

‘경전언해체’와 같은 문체로, 한자를 섞어서 쓴 일반 문장을 ‘국한문혼용체’라고도 한다. 이 두 구분은 문체의 형태적 차이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용에 따라서 달리 부르는 것이다. 한문을 번역하면서 사용한 문체를 ‘언해체’라고 하고, 이 문체를 일반 문장으로 사용한 것을 ‘국한문혼용체’라고 하는 것이다. 1883년 10월 창간된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와 같은 신문이 이 문체로 기록이 되었다. 이 신문은 통리아문에서 발간되었고 신문 창간의 주역은 유길준, 박영효 등 개화파 계열의 인물들이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이 두루 사용한 문장이자 이 ‘국한문혼용체’의 문체로 기록된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이 “기미년 독립선언문”이다.

1916년 2월 창간된 감리교회 협성신학교에서 계간으로 발행한 잡지 『신학세계』 창간호의 발간사를 보면, 이 시기에도 경전언해체의 문장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勢力이 果然 壯大히다 홀 터이지만은 教會內에 敎人의 心德을 培養히며 知識을 增進홀 雜誌 一種이 無히니 此는 朝鮮 敎友가 雜誌를 購覽치 안는 故로 雜誌를 刊行히는 이가 無히며 또 雜誌를 刊行히는 이가 無히 故로 購覽히지 안는다 홀지로다 然이나 先次 刊行히는 이가 無히면 엇지 購覽히는 이가 有히리오…”<sup>12)</sup> (띄어쓰기 필자)

또 1922년의 『활천』 창간호에 실린 설교문 하나를 살펴보자.

“……大抵何時던지 何處던지 何集會던지 聖神의 役事가 잇는 同時에 魔鬼의 役事即 人을 속이는 일이 잇는 것을 諸君은 잘 分辨히시오. 某條로 我等의게 福을 주시는 主를 차자 맞나도록 홀지니라……”<sup>13)</sup> (띄어쓰기 필자)

11) 책에는 “가”가 탈자가 되어 있다.

12) 『神學世界』 창간호, p. 3, “神學世界發刊之辭”, 監理教會 協成神學校, 大正五年 二月十五日 발행.

13) 『활천』 창간호, p. 4. 大正11年十二月二十五日, 東洋선교회, 발행인 길보륜. 돈-론 목사의 설교문 “眞復興과 僞復興”.

‘국한문혼용체’라는 용어는 이 말의 뜻 때문에 후에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간이국한문’이라고 하는 문체를 이르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나중에 올수록, “경전언해체” 문장과 “간이국한문”의 문체인 “국한문혼용체” 문장 사이에 차이가 적어져 간다. 그리하여 근래의 신문 등에서 한글 문장에 한자어를 섞어서 쓴 문장을 모두 국한문혼용체라고 통칭하게 되는 것이다. ‘국한문혼용체’ 본문이 한문의 언해를 위한 문체로써 형성이 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1900년 당시에는 이미 언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문 잡지의 일반적인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독립선언문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체로 기록된 모든 경전언해체 문장을 모두, 근래에 사용되고 있는 ‘간이국한문’의 국한문 혼용체와 구분하기 위하여 ‘경전언해체’로 부르고자 한다.

‘간이국한문’ 문장은 언문일치의 문장에서 다만 한자어로 적을 수 있는 낱말들을 모두 한자어로 적은 것이다. 같은 책에 ‘간이국한문체’로 쓴 글과 경전언해체로 쓴 글이 함께 실려 있다. 신학세계 창간호에 실린 “웨슬레氏의 道理的 講道”<sup>14)</sup>라는 글에서 한두 문장을 예로 들어 보겠다.

“이 밋음은 사롬이 하느님을 確實히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功勞로 말미암아 自己의 罪를 賜하여 주신 줄 알며 더가 하느님과 더브러 和睦케 하심을 엇은줄 알고 이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힘납어 예수는 더희 智慧와 義와 聖潔함과 贖罪가 되신 主로 依持하는 것이니 혼말노 말하면 더를 救援하신 主로 알고 쫓사지 그를 되시고 좃칠지니라……”<sup>15)</sup>

근래에 국한문혼용체라 하면 대개 이러한 문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성경의 문체를 다룸에 있어서, 간이국한문의 문체를 특히 따로 지칭할 필요는 많이 느껴지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국한문혼용체라는 용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책 이름 그대로 ‘간이국한문체’로 부르고자 한다. 이 문체와 경전언해체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경전언해체가 지시어 및 대명사를 모두 한자어로 쓰는 데에 비해서, 간이국한문의 언문일치 국한문혼용체는 대명사를 포함한 지시어를 모두 우리 토박이말로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20년 경을 분기점으로 해서 언문일치의 문체는 또 ‘-라’ 종결형을 쓰는 옛 문체(흔히 ‘문어체’라고도 함)와 ‘-다’ 종결형을 쓰는 현대 문체(흔히 ‘구어체’라고도 함)로 다시 갈라진다.<sup>16)</sup>

창간호 이후로 계속 발간되어온 『신학세계』를 살펴 보면, 제8권 제5호(1923년 11월)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다’ 종결형 문장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교 생활에 입문”이라는 글이다.

“現代에 잇서서 第一 緊急한 宗教的 要求는 그리스도 敎人이 된다고 하는데 對하여 품은 妄想을 除去하는 것이겠다. 아직도 多數人은 엇더한 敎理를 信從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從者자 되는 것인줄노 생각하고 있다……”<sup>17)</sup>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 종결형 문장이 늘어나면서 ‘-라’ 종결형 문장이 줄어든다. 1925년을 지나면서 ‘-다’ 종결형 문장이 더 많아지다가, 1928년에 이르면, 이 잡지에 실리는 모든 사람의 글이 ‘-다’ 종결형으로 바뀐다.

### 3.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성경들

14) 하리영, 『신학세계』 창간호, pp. 89-110.

15) 신학세계 제1호, p. 90.

16) 이러한 문체의 규정들은 상대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전언해체를 문어체라 하고, ‘-라’ 종결형 한글 문체를 구어체라 하기도 한다. 학술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부르고 있다.

17) 왕영덕, 신학세계 제8권 제5호(1923년 11월), pp. 31-35. 같은 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글은 아직도 모두 ‘-라’ 종결형 문장이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수정 현토역으로부터 다음 단계로 『新約全書국한문』 본문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하여 살펴 보자. 이수정의 현토한번 번역의 대본이 된 한문 성경은 브리지만·컬벗슨역의 『신약』(1859) 본문이다. 팔복(마태 5:3-12)을 읽어보자.

三虛心者(이) 福矣(니) 以天國(이) 乃其國也(五) 四哀憫者(이) 福矣(니) 以其將受慰也(五) 五溫柔者(이) 福矣(니) 以其將得土也(五(이오)) 六飢渴慕義者(이) 福矣(니) 以其將得飽也(五(이오)) 七矜恤者(이) 福矣(니) 以其將見矜恤也(五(이오)) 八清心者(이) 福矣(니) 以其將見神也(五(이오)) 九施和平者(이) 福矣(니) 以其將稱爲神之子女也(五(이오)) 十爲義而遭迫害者(이) 福矣(니) 以天國乃其國也(五(이오)) 十一人爲我而誑諍爾(하) 迫害爾(하) 且妄言諸惡(하) 以謗以(면) 則爾福矣(니) 十二爾宜欣喜歡樂(이) 以在天(이) 爾所得之賞(이) 大也(이라) 蓋人(이) 會如是迫害(이) 先於爾之預言者矣(니라) (괄호 안의 한글 도는 필자)

『新約全書 國한문』(1906)에서 12절 한 절만을 인용하여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다.

<sup>12</sup> 喜(고) 歡(라) 爾等(이) 天(에서) 賞(을) 受(호) 爾等(보다) 前(에) 在(하) 先(知) 者(를) 如(此) 逼(迫) 矣(니라)

국한문성경에 “爾宜(너는 마땅히)”가 없는 것이나, “欣喜” “歡樂”이 “欣喜(고) 歡樂(라)”로 번역되지 않고, “喜”나 “歡”으로만 번역된 것도 차이이고, 문리역이 “爾”로만 번역한 것을 “爾等(이)”로 복수로 번역한 것도 확연한 차이이다. “迫害”를 “逼迫”으로, 또 “預言者”를 “先知者”로,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데에 다른 한자어를 채용한 것도 큰 차이이다. 한문 경전의 언해들을 볼 때에, “너는 마땅히” 정도의 내용을, 원문에는 있는데 줄여서 번역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한성서공회사에서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저본으로 언급하고 있는 『新約全書文理』 성경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고전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을 말한다.<sup>18)</sup> 1906년 이전에 출간된 것으로 그 가운데서 한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고전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대표본 문리역(신약 1852년, 구약 1854년)과, 브리지만 컬벗슨 역(1859년 1963년)과, 쉬운 문리 웨레체브스키 역(1898년 1902년)이다.

『1852 대표본』은 개정되어 1968 대표본과 1920 대표본이 출간된다. 대표본 성경전서는, 자그마한 이득이 있을 때마다 인쇄하여 출판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인쇄가 잘못되어 잘못 찍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번역을 개정하여 인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872년에는 대표본 보존 및 개정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하고, 1890년에는 상하이 선교사 총회의 화합본 계획에 따라 잘못 인쇄된 것만 바꾸기로 한다.<sup>19)</sup> 지금 이 논문에서 1952년 이후로 매번 출간된 역본들을 다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필자의 손에 있는 대표본 네 종류와<sup>20)</sup> 이환진 목사가 논문에서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표본의 본문들을 대조해 보니, 오탈자 수정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본문은 같았다.

여기에서는 『1854 대표본』 본문과 브리지만·컬벗슨 역 본문을, 마태 5:3-12의 팔복을 중심으로

18) 이환진(뉴욕대학교 예술과학대학원 히브리·유다학),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민영진목사 회갑기념 제2권) pp 413-499, 참조. 이환진은 이 글에서 중국어 성서 번역사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9) 이환진, 위의 글, pp. 444-451.

20) 『新約聖書(文理串珠)』, Classical, American Bible Society(上海大美國聖經會), 1921; 『新舊約聖書(文理串珠)』, Wenli Reference New Treatment(Delegates Version) BFBS, Shanghai, 1920(Ed. 1804); 『舊新約聖書(文理串珠)』, 1912년, 상해대미국성경회; 『舊新約聖經』(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상해, 1933.

로,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과 대조하여, 주로 용어를 중심으로 상관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서, 구역 『신약전서』(1900, 1904, 1906)와도 본문을 비교하여, 번역의 유사성과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검토를 거치면, 『新約全書국한문』의 본문이 어느 본문과 상관성이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4. 『대표본 문리역』과 브리지만·컬벗슨역의 『신약』(1859)과 『新約全書국한문』(1906) 비교

『1852 대표본 신약전서』 팔복(마태 5:3-12)을 읽어보자.

三虛心者福矣, 以天國乃其國也, 四哀慟者福矣, 以其將受慰也, 五溫柔者福矣, 以其將得土也, 六飢渴慕義者福矣, 以其將得飽也, 七矜恤者福矣, 以其將見矜恤也, 八清心者福矣, 以其將見上帝也, 九和平者福矣, 以其將稱爲上帝子也, 十爲義而見窘逐者福矣, 以天國乃其國也, 十一爲我而受人窘逐, 惡言誹謗者福矣, 十二當欣喜歡樂, 以在天爾得賞者大也, 蓋人窘逐先知, 自昔然矣,<sup>21)</sup>

『브리지만·컬벗슨역』의 1859년판 신약 마태복음 5:3-12의 팔복을 인용해 보자.

三虛心者福矣. 以天國乃其國也. 四哀慟者福矣. 以其將受慰也. 五溫柔者福矣. 以其將得土也. 六飢渴慕義者福矣. 以其將得飽也. 七矜恤者福矣. 以其將見矜恤也. 八清心者福矣. 以其將見神也. 九施和平者福矣. 以其將稱爲神之子也. 十爲義而遭迫害者福矣. 以天國乃其國也. 十一人爲我而誣諍爾. 迫害爾. 且妄言諸惡以謗以則爾福矣. 十二爾宜欣喜歡樂. 以在天爾所得之賞大也. 蓋人會如是迫害 先於爾之預言者矣.<sup>22)</sup>

『브리지만·컬벗슨역』의 한문 본문은 앞에서 인용한 이수정역의 한문 본문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본 문리역』과 『브리지만·컬벗슨역』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3-9절에서 “기갈”의 한자어와 9절에서 “施”와 “之”가 더 들어간 것이 다르고, 그 후로는 번역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 『대표본 신약전서』 본문을 다음에서 『국한문』 성경 본문과 비교해 보자.

三心이 虛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天國이 彼等の 거시오 四哀痛흔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彼等이 慰勞함을 受흐 거시오 五溫柔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彼等이 地를 得흐 거시오 六義를 思慕흐기를 飢渴함과 갓치 흐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彼等이 飽흐 거시오 七慈悲흔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彼等이 慈悲함을 受흐 거시오 八心이 清潔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彼等이 上帝를 見흐 거시오 九和陸케 흐는 者는 福이 有흐나니 彼等을 上帝의 子라 稱흐 거시오 十義를 爲흐야 逼迫을 受흐는 者는 福이 有흐느니 天國이 彼等の 거시오 十一我를 因흐야 爾等을 辱흐고 逼迫흐고 모든 惡흐다 흐는 謊言으로 誹謗흐면 爾等の게 福이 有흐느니 十二喜흐고 歡흐라 爾等이 天에서 賞을 受흐 것이 大흐리라 爾等보다 前에 在흐던 先知者를 如此히 逼迫흐었느니라

여기서 밑줄 친 부분들은 대표본 문리역 본문과 번역을 비교해 볼 때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다. “彼等, 哀痛, 慰勞, 地, 飢渴, 慈悲, 清潔, 和睦, 逼迫, 謊言, 誹謗, 喜, 歡, 受흐 如此” 등의 낱말들은 문리역과 용어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낱말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용어들이

21) 『文理貫珠 新舊約聖書』.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Shanghai, 1920 (Ed. 1804) (Delegates Version) 본문에서 인용.

22) 이환진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대한성서공회에 1896년에 “대미국성경회인발”로 출간된 『구신약전서』가 있으며, 본문이 같다.



『브리지만·컬벗슨역』의 본문과 같지도 않다. 앞에서 유교 경전의 언해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한문 문장의 언해시에는 거의 이러한 용어의 변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한문 문장의 낱말을 그대로 번역어로 사용한다. 밑줄 친 부분들은 문리역 성경과는 번역상 차이를 보이지만, 반대로 구역 본문과는 용어도 번역도 어순도 같다. 이는 다음의 구역 본문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三마음이 간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四國이 너희 거시오 四이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거시오 五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싸를 차지할 거시오 六의 스모히기를 주리고 목마른 것 七치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비부를 거시오 七즈비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즈비함을 받을 거시오 八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거시오 九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랄 거시오 十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四國이 너희 거시오 十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하다 하는 거짓 말도 비방하면 너희게 복이 있느니 十二 깃버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 七치 핍박하였느니라

특히 11절과 12절은 문리역과는 번역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十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것을 거짓 말도 비방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十二 깃버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 七치 핍박하였느니라 (구역)

十一 我를 因하여 爾等を 辱하고 逼迫하고 모든 惡하다 하는 謊言으로 誹謗하면 爾等의게 福이 有하느니 十二 喜하고 歡하라 爾等이 天에서 賞을 受할 것이 大하리라 爾等보다 前에 在하던 先知者를 如此히 逼迫하였느니라 (국한문)

十一 爲我而受人詬誶窘逐. 惡言誹謗者福矣. 十二 當欣喜歡樂. 以在天爾得賞者大也. 蓋人窘逐先知, 自昔然矣. (문리역)

11 我를 爲하여 人(남)에게서 詬誶와 窘逐을 (受하고) 惡言과 誹謗을 受하면 福되다 12 欣喜와 歡樂을 當하라. 天에 在하는 것으로써 爾가 賞을 得할 것이 大하니라. 대개 人(사람)이 先知者를 窘逐함이 昔으로부터 然하니라.(문리역의 필자 사역).

이 차이는 『新約全書국한문』(1906)이 『문리역』을 번역 대본, 곧 ‘저본’으로 삼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좋은 예증이라 할 수 있다. 번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문 경전의 언해본들에서 이러한 정도의 용어의 변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단수 “爾”를 복수 “爾等”으로 번역하는 정도의 차이는 문리역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을 때에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변화이다.

또 문리역과 같지 않은 한자어를 쓰는 낱말이, 매년 구역의 용어와는 같음을 보이는 점을 보면, 『新約全書국한문』(1906)이 『구역』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수 있다. 구역과 문리역의 상관성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가깝다 할 수 없다. 구역을 번역할 때에 한국인 조력자들이 참고로 하였던 성경이 문리역이기 때문에, 구역이 문리역에서 왔을 것이라는 가설도 가능하지만, 두 번역이 독자적인 번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많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교하여 보자.

蓋上帝以獨生之子賜世, 俾信之者免沈淪, 而得永生, 其愛世如此. (문리역)

대개 하나님이 독생한 아들을 세상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침륜하는 것을 면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함이라, 그의 세상을 사랑하심이 이와 같으니라. (필자 직역)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역)

上帝가世上을愛하사獨生子를賜하셨스니誰든지彼를信하면滅亡하지 않고永生을得하리라 (국한문)

여기서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리역과 구역과의 상관성이란, 독자적인 번역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지,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문리역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에 구역과 같은 번역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는 한두 곳의 차이가 아니라 본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

## 5. 구역 『신약전서』(1900, 1904, 1906)와 『新約全書국한문』(1906) 본문 비교

구역 『신약전서』(1900, 1904, 1906)가 연도별로 서로 다른 경우에, 『新約全書국한문』(1906) 본문은 어느 본문과 같은지 살펴보자.

### 마 5:3

구역 1900 마음이 가난 하니 복이 있는 자로다 천국이 너희 거시오

구역 1904 마음이 간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거시오

구역 1906 마음이 간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거시오

국한문1906 心이虛한 者는 福이 有하느니 天國이 彼等의 거시오

대표본1920 虛心者福矣, 以天國及其國也,

브리지만·켈벗슨역 新約全書 1859년 虛心者福矣. 以天國乃其國也. (필자직역: 마음이 虛한 者는 福되도다. 천국이 써 그의 나라에 미치느니라)

여기서는 국한문성경이 구역의 “간난한”을 따르지 않고 대표본의 용어 “虛”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한국인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힘들다고 하는 번역상의 문제가 배려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天國이 彼等의 거시오”는 대표본의 번역을 따라서 본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구역 번역을 그대로 채용하여 “천국”과 “ 너희”만 “天國”과 “彼等”으로 바꾼 것이다. 역시 여기서도 『국한문』 본문의 번역은 대표본보다는 구역과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한문 성경의 용어가 일부 대표본과 같으나, 전체적으로는 구역의 번역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5:4

구역 1900 애통 하니 이는 복이 있는 자로다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거시오

구역 1904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거시오

구역 1906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거시오

국한문1906 哀痛한 者는 福이 有하느니 彼等이 慰勞함을 受할 거시오

대표본1920 哀憫者福矣, 以其將受慰也,

브리지만·켈벗슨역 新約全書 1859년 哀憫者福矣. 以其將受慰也.

여기서 보면 국한문의 “애통”은 대표본의 “애통”과 한자어가 다르다. 이는 위 3절의 “虛”와는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다. 3절과 4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한문 성경의 성분절(지금의 띄어쓰기 단위) 수가 구역과 같고, 어순이 완전히 같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국한문 성경은 문리역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구역 본문을 바탕으로 체언과 용언의 어간 등의 개념어들을 한국 한자어로 바꾸어서 번역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 1:3b

구역 1900 말씀으로 써 만물이 지은바 거시니 지은 물건은 말씀 업시 지은 거시 업느니라

구역 1904 말씀으로 써 만물이 지은바 거시니 지은 물건은 말씀 업시 지은 거시 업느니라

구역 1906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바 되었스니 지은 물건이 말씀 업시는 지은 거시 하나도 업느니라

국한문1906 道로 萬物이 造흔바 되었스니 造흔 物이 道가 업시는 造흔거시 一箇도 無흔니라

대표본1920 萬物以道而造, 凡受造者, 無不以之而造,

여기서는 역본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한 곳 발견할 수 있다. 1904년 본문까지는 보이지 않던 “하나도”가 1906년도 구역 본문에서는 보인다는 점이고, 국한문 성경이 똑같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리역에서는 “하나도”나 “一箇도”에 해당하는 상응어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無不”(없지 아니하다)이라는 이중부정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전의 번역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서 번역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 어순에 있어서도 문리역을 번역한다면 “만물”이 번역문의 맨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그런데, 구역과 선한문은 “道로 萬物이”라는 어순으로 되어 있어서, 문리역의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순이다. 이러한 것도 또한 『新約全書국한문』이 문리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구역 본문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해 주는 재미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롬 1:1

구역 1900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노는 부르심을 받드러 스도가 되어 하느님의 복을 전함으로 틱함을 넘었스니

구역 1904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드러 스도가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틱함을 넘었스니

구역 1906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드러 스도가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틱함을 넘었스니

국한문1906 예수 그리스도의 僕 바울은 召흔심을 奉흔야 使徒가 되어 上帝의 福音을 傳흔기 爲하야 擇함을 被흔었스니

대표본1920 耶蘇基督僕保羅奉召爲使徒, 特命傳上帝福音.

여기서 보면 국한문 성경은 1906년 구역 본문과 내용이 상응하고 있으며, 문리역과 상응하는 점이 있으나, “特命” 부분은 “擇함을 被흔었스니”와 내용이 상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1906년 국한문 성경의 본문은 1906년의 구역 본문과 번역이 같다고 할 수 있다. “僕” “奉” “召” 등의 낱말이 같지만, 다른 낱말도 상당히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문리역이 중요하게 참고가 되었으리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역 본문을 바탕으로 국한문 본문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6. 음역된 말

1900년의 음역과 1904년의 음역과 1906년의 음역은 거의 같지만,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 가운데서 국한문 성경의 음역은 1904년의 음역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1906년의 구역과 음역이 일치하는 부분도 보인다. 다음 비교 음역들은 마태복음의 음역인데, 어느 한 가지 음역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당시의 음역이 어느 한 소리로 정착되기 전이어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음역을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차이를 보이는 낱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문리	1900	1904	1906	1906국한문
伯利恆	벧레헴	벧을레헴	벧을네헴	벧을네헴
伊及	이급	애급	애급	애급
大關	짜윗	짜윗	다윗	짜윗
撒拉	써라	쩌라	세라	세라
波士	쏘아스	보아쓰	보아스	보아쓰
羅波暗	로보함	러호보암	르호보암	러호보암
約沙法	요사파	여오사맛	여호사맛	여호사맛
烏西亞	우시야	우씨야	우시야	우시야
希西家	헤스기야	헤씨기야	헤스기야	헤스기야
馬拿西	마나세	머낫세	므낫세	마낫세
撒拉鐵	서알딤편	서알딤편	스알딤편	서알딤편

이들의 간단한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리역의 음역이 구역이나 국한문 성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구역이든 국한문이든 다른 자료로부터 음역이 왔다는 것을 말하며, 선교사들의 주도로 원문 또는 영문으로부터 음역되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7. 『1854 대표본』과 『구역』과 『국한문 성경』의 각 책 제목 비교

『구역』의 책 제목은 1900년 1904년 1906년 모두 같다. 이에 비해서 국한문의 책 제목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차이가 문리역 성경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리역 성경은 목차와 각 책 처음에 나오는 정식 제목이 본문 여백에 있는 약자 제목과 다르다. 미국성서공회판 성경과 영국성서공회판 성경은 정식 제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문리관주 신약성서 BFBS Shanghai, 1920 (Ed. 1804) :

목차 제목, 곧 책 제목: 馬太福音傳, 馬可福音傳, 路加福音傳, 約翰福音傳, 使徒行傳, 使徒保羅達羅馬人書, 使徒保羅達哥林多人前書, 使徒保羅達哥林多人後書, 使徒保羅達加拉太人書, 使徒保羅達以弗所人書, 使徒保羅達腓立比人書 使徒保羅達哥羅西人書,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前書,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後書, 使徒保羅達提摩太前書, 使徒保羅達提摩太後書, 使徒保羅達提多書, 使徒保羅達腓利門書, 使徒保羅達希伯來人書, 使徒雅各書, 使徒彼得前書, 使徒彼得後書, 使徒約翰第一書, 使徒約翰第二書, 使徒約翰第三書, 猶大書, 約翰默示錄

약자 제목: 馬太福音傳, 馬可福音傳, 路加福音傳, 約翰福音傳, 使徒行傳, 羅馬人書, 哥林多人前書, 哥林多人後書, 加拉太人書, 以弗所人書, 腓立比人書 哥羅西人書, 帖撒羅尼迦人前書, 帖撒羅尼迦人後書, 提摩太前書, 提摩太後書, 提多書, 腓利門書, 希伯來人書, 雅各書, 彼得前書, 彼得後書, 約翰一書, 約翰二書, 約翰三書, 猶大書, 默示錄

신구약성서 문리관주 BFBS Shanghai, 1920년판(Ed. 1804)

목차 제목 : 馬太傳福音書, 馬可傳福音書, 路加傳福音書, 約翰傳福音書, 使徒行傳, 達羅馬人書, 達哥林多人前書, 達哥林多人後書, 達加拉太人書, 達以弗所人書, 達腓立比人書 達哥羅西

人書, 達帖撒羅尼迦人前書, 達帖撒羅尼迦人後書, 達提摩太前書, 達提摩太後書, 達提多書, 達腓利門書, 達希伯來人書, 雅各書, 彼得前書, 彼得後書, 約翰第一書, 約翰第二書, 約翰第三書, 猶大書, 約翰默示錄

약자 제목(위의 책과 같음): 馬太福音傳, 馬可福音傳, 路加福音傳, 約翰福音傳, 使徒行傳, 羅馬人書, 哥林多人前書, 哥林多人後書, 加拉太人書, 以弗所人書, 腓立比人書 哥羅西人書, 帖撒羅尼迦人前書, 帖撒羅尼迦人後書, 提摩太前書, 提摩太後書, 提多書, 腓利門書, 希伯來人書, 雅各書, 彼得前書, 彼得後書, 約翰一書, 約翰二書, 約翰三書, 猶大書, 默示錄

책 제목: 馬太福音傳, 馬可福音傳, 路加福音傳, 約翰福音傳, 使徒行傳, 使徒保羅達羅馬人書, 使徒保羅達哥林多人前書, 使徒保羅達哥林多人後書, 使徒保羅達加拉太人書, 使徒保羅達以弗所人書, 使徒保羅達腓立比人書 使徒保羅達哥羅西人書,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前書,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後書, 使徒保羅達提摩太前書, 使徒保羅達提摩太後書, 使徒保羅達提多書, 使徒保羅達腓利門書, 使徒保羅達希伯來人書, 使徒雅各書, 使徒彼得前書, 使徒彼得後書, 使徒約翰第一書, 使徒約翰第二書, 使徒約翰第三書, 使徒猶大書, 傳道約翰默示錄.

#### 신약전서(1904)

목차 제목 :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스도행전, 로마 인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나대 인서, 에베소 인서, 빌립보 인서, 골노새 인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 서, 빌네몬 서, 히브리 인서, 야고보 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데일 서, 요한 데이 서, 요한 데삼 서, 유다 서, 요한 묵시.

약자 제목 :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스도, 로마, 고린도 전, 고린도 후, 갈나대, 에베소, 빌립보, 골노새, 데살로니가 전, 데살로니가 후, 디모데 전, 디모데 후, 디도, 빌네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 베드로 후, 요한 一, 요한 二, 요한 三, 유다, 묵시.

풀어서 번역한 각 책의 제목 : 마태의 기록헌대로 쓴거시오, 마가의 기록헌대로 쓴거시라, 누가의 기록헌대로 쓴거시라, 요한의 기록헌대로 쓴거시오, (사도행전에는 별도의 제목 없음), 스도 바울이 로마인의게 보낸 편지, 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전 편지, 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 편지, 스도 바울이 갈나대 교회에 보낸 편지, 스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스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스도 바울이 골노새 교회에 보낸 편지, 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전 편지, 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후 편지, 스도 바울이 디모데의게 보낸 전 편지, 스도 바울이 디모데의게 보낸 후 편지, 스도 바울이 디도의게 보낸 편지, 바울이 빌네몬의게 보낸 편지, 히브리 인의게 보낸 편지, 야고보 | 각처에 보낸 편지, 베드로 | 각처에 보낸 편지, 베드로 | 각처에 보낸 후 편지, 스도 요한이 각처에 보낸 첫 편지, 스도 요한의 둘째 편지, 스도 요한의 셋째 편지, 유다가 각처에 보낸 편지, 신학스 요한이 맞은 거시라.

新約全書국한문(1906): 이 성경은 목차 제목과 약자 제목이 같다. 다만, 각 책의 처음에, 목차의 책 제목과 같은 이름으로 책 제목을 적으면서, 그 아래에 부제목처럼 책 제목을 다시 풀어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제목들은 명백하게 문리관주신약성서<sup>23)</sup>의 목차 제목으로부터 온 것이다.

목차 제목 : 馬太福音, 馬可福音, 누가福音, 요한福音, 使徒行傳,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 갈나대

23) 필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BFBS Shanghai, 1920년판(Ed. 1804)이다.

아, 에베소, 밀넛보, 골노새, 데살로니가 前, 데살로니가 後, 디모데 前, 디모데 後, 디도, 빌네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前, 베드로 後, 요한 一, 요한 二, 요한 三, 유다, 默示.

약자 제목 : 마태福音, 마가福音, 누가福音, 요한福音, 使徒行傳,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 갈나디아, 에베소, 밀넛보, 골노새, 데살로니가 前, 데살로니가 後, 디모데 前, 디모데 後, 디도, 빌네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前, 베드로 後, 요한 一, 요한 二, 요한 三, 유다, 默示.

풀어서 번역한 각 책의 제목 : 마태의 紀錄헌대로 書헌거시라, 마가의 紀錄헌대로 書헌거시라, 누가의 紀錄헌대로 書헌거시라, 요한의 紀錄헌대로 書헌거시라, (사도행전에는 별도의 제목 없음), 使徒바울이로마인의게達헌片紙, 使徒바울이고린도教會에達헌前片紙, 使徒바울이고린도教會에達헌後片紙, 使徒바울이갈나디아教會에達헌片紙, 使徒바울이에베소教會에達헌片紙, 使徒바울이밀넛보教會에達헌片紙, 使徒바울이골노새教會에達헌片紙, 使徒바울이데살로니가教會에達헌前片紙, 使徒바울이데살로니가教會에達헌後片紙, 使徒바울이디모데의게達헌前片紙, 使徒바울이디모데의게達헌後片紙, 使徒바울이디도의게達헌片紙, 바울이빌네몬의게達헌片紙, 히브리人의게達헌片紙, 야고보가各處에達헌片紙, 베드로가各處에達헌片紙, 베드로가各處에達헌後片紙, 使徒요한이各處에達헌 첫片紙, 使徒요한의둘재片紙, 使徒요한의셋재片紙, 유다가各處에達헌片紙, 神學士요한이受헌거시라.

『문리역』에서 傳道約翰默示錄이라고 한 책 이름을, 1904년 및 1906년 『구역』과 『국한문』 성경이 “神學士요한이受헌거시라”로 번역한 것은, 번역 이상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특히 같다는 것은 『新約全書국한문』(1906)이 1904년과 1906년의 구역과 상관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은 『구역』 및 『新約全書국한문』의 책 제목이 문리역의 제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책의 제목들이 서로 통하는 곳을 보면, 명백하게 문리역의 영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해 온 대로, 많은 경우에 『新約全書국한문』 본문은 문리역과의 상관성보다는 구역과의 상관성이 거의 절대적으로 높다. 또 『구역』이든 『新約全書국한문』이든, 사용한 낱말로 볼 때에 문리역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을 했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은 문리역이 직역 성경이 아니라, 중국어풍에 맞게 번역한 것이라는 번역 특징을 생각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sup>24)</sup>

## 8. 맺음말.

이제까지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新約全書국한문』(1906)은 『구역』(1904)의 번역을 바탕으로, 중요한 개념들만을 한국 한자어로 바꾸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문리역』이 중요하게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문리역을 ‘저본’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2) 『문리역』의 한자어들이 『구역』에 수용된 양상을 볼 때에도, 『문리역』이 『구역』을 번역할 때에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참고 이상의 ‘저본’으로 보기에 는 어려운 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역을 번역할 때에, 번역자로서 선교사들의 역할과 이를 돕는 한국인 조력자들의 역할이 달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곧 번역의 책임은 선교사들이 지고,

24) 이환진, 앞의 논문, pp. 440-447 참조. 또 『대한성서공회사 II』 p. 136, 특히 난하주 48)에서, “창세기 1장에서 레닐즈의 구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30회, 문리본은 20회 나오는” 점을 밀러가 지적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밀러의 언급은 문리역의 번역 특징 및 문리역과 구역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좋은 예이다.

한국어 문장과 문체의 교정이나 교열 부분을 한국인 조력자들이 맡았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3) 인명이나 지명 등의 음역들을 비교해 보아도, 『국한문』 성경이 『구역』을 따랐으며, 『문리역』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책의 제목 등 전체 체제로 볼 때에, 작업자들이 틀림없이 『문리역』을 가지고서 참고를 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 초기 한국교회의 권서인 소요한(蘇堯翰) 장로

소기천\*

## 1. 작은 소망

본 소고는 초기 한국교회의 잊혀진 역사를 발굴하여 복원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쓰여진 것이다. 본 소고는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에 실고자했던 글인데, 마침 공회의 관계자들이 『성경원문연구』지에 실는다 하니 기쁘기 그지없다.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민족 복음화를 꿈꾸며 소망하였던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귀한 일이라 여겨진다. 특별히 초기 한국교회에 있어서 권서인<sup>1)</sup>의 활동이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태에서, 필자는 본 소고를 집필함으로써 그 직계 후손들이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후대에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후손들이 직접 나서서 집안의 신앙적인 내력을 글로 남겨 놓아야 후대에까지 그 귀한 사실이 전해지는 역사 전승의 문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소고는 잊혀진 권서인의 숫자만큼 이와 유사한 글들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되었다. 누구나 자기 신앙의 선조들의 모범적인 삶을 글로 남겨 놓기 위해서 붓을 드는 일이 일상화되기를 바라면서 필자는 미력이나마 본인의 조부(祖父)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2. 용어 문제

초기 한국교회에서 권서인(勸書人, colporteur)은 당시 대영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시절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서공회의 직원으로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성경(단권 성경과 소위 쪽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종의 외판 행상을 벌이면서 성경을 판매한 매서인(賣書人)이다.<sup>2)</sup>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급 권서(無給勸書) 혹은 자급 권서(自給勸書)로서 활동을 하였는데, 이들은 1900년도 초엽부터 활동을 한 것이 분명

\* 장신대 교수.

\*\* 이 글은 성서학 관련 논문은 아니지만, 대한성서공회사의 한 페이지를 당사자의 후손이 직접 적은 글로서, 역사 자료로 신는다. (편집자 주)

1) 초기 한국교회의 권서 제도에 대해서 필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사, 1994)를 주로 참고하였다. 특별히 제5부의 “성경반포사업(1882-1945)와 제6부의 “권서 - 성경반포의 주역”은 아주 중요한 사료를 필자에게 제공해 주었다.

2) 『대한성서공회사』 II가 “권서”라고만 부르는데, “매서인”이라고 부르면서 “권서”라고 부르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권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권서인들은 단순히 성경을 반포한 주역들일뿐만 아니라,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의 집을 지고 주를 위해 살았던 “복음 전도자들”이요 또한 “권서 전도자들”이었다. 물론 『대한성서공회사』 II, 324쪽에 “매서·권서의 용례”에 대해서 표 19로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어떠한 용어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려야 했다.



하다.<sup>3)</sup> 이들은 단지 서적을 판매하는 것<sup>4)</sup>에 그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산간벽촌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인들이었다.

### 3. 가족상황

소훈식(蘇勳植, 1892년 11월 29일 음력-1958년 2월 28일 양력)<sup>5)</sup>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현재의 민속촌 자리, 아직도 선산이 민속촌과 담을 마주한 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에서 소봉영(蘇鳳永)씨와 한(韓)씨 사이에서 삼남매의 외아들(삼대독자)로 태어났는데, 누이와 누이 동생 사이에서 귀하게 자랐다. 그러나 그는 7세 때에 모친이 소천한 후, 그의 부친은 삼남매를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쇠골에 있는 외가에 맡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훈장 일을 보았다. 소훈식은 10대에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다시 고향 근처로 돌아와서 김양(지금의 용인)에서 8km가량 떨어져 있던 오미실 교회에 매일 새벽기도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하였다.



(1892-1958)

그는 18세에 부친마저 소천하자 일찍 조실부모하여 살기 어렵게 된 후에 혼자 떠돌아 다니면서 힘들게 신앙 생활을 하였는데, 주위에서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먼 거리에 떨어진 교회를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봐, 젊은이! 아리실에 천주학쟁이가 있으니 거기 가봐!” 하고 말해 주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용인군 미리내에 이미 천주교 성당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주학쟁이로 통했으니, 소훈식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아리실로 들어갔다.<sup>6)</sup>

소훈식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아리실로 들어간 이유가 이상과 같이 결코 간단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대부흥운동은 1909년의 “100만 명 구령운동”의 촉매가 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였기 때문에, “날연보(日捐補)”를 드려서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sup>7)</sup> 소훈식의 경우에 아리실을 찾아간 것은 우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는 훈련된 성도로서 전도에 힘쓰기 위한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4. 의병대장 최익현

3) 무급 권서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료가 없어서 1900년, 1903년, 1907년 등 다양한 연도가 제시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대한성서공회사』 II, 233-236를 참고하라.

4) 당시에 판매된 쪽 복음은 일전 짜리였는데, 이는 결코 싼 값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시 소요한 장로는 권서인을 시작하면서 한달 봉급을 20원을 받았다고 그의 셋째아들인 소동욱은 증언한다. 20원으로 쪽 복음을 다 산다면 200권이니, 당시 쪽 복음의 값이 결코 싼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5) 나의 조부(祖父)가 되는 분인데, 동양적인 관습을 따라 무슨 자(字) 무슨 자(字)로 호칭을 해야 하지만, 본 소고에서는 집안의 다른 분들까지도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독자들은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

6) 이러한 내용을 증언한 분은 소요한 장로의 부인인 윤금성 권사의 3남 4녀중 막내 동생인 윤보라이다. 당시 윤보라의 가족은 아리실에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7) 로해리 선교사는 초기 한국교회가 “교회를 처음 조직할 때부터 ‘시간 연보’를 장려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참고, 로해리의 『조선기독교회력사』(조선기독교서회, 1933), 53. 이 내용은 김인수, “초기 한국 개신교회 급성장의 원인 연구,” 『하나님 나라와 선교: 서정운 명예 총장 은퇴 기념 논문집』(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p. 119에서 재인용.

당시에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방아리 아리실은 구한말의 의병대장이었던 최익현(崔益鉉, 1833년 12월 5일, 경기도 포천군 출생)의 후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898년 4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 변혁이 있었던 구한말에 친러시아 정책을 쓰던 민비(閔妃)를 일본 자객이 살해하고 한일 의정서(韓日 議政書)를 성립시켰다. 즉 조선의 정치는 일본 제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일제는 고종 황제를 위협하여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한다(광무 8년 8월 22일). 이에 분개한 최익현은 그 협약은 침략의 발판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협약을 거부하고 국력을 키우자는 상소를 몇 차례 올렸다. 그는 직접 고종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을 하였다.

폐하! 신은 몇일 전에 폐하의 전석(前席)에 나아가서 차자(借字,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와 진달(進達)을 드려 어리석은 대로 충정을 약진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말할 줄을 몰라서 폐하의 심기를 거슬렀은 즉 저의 진의가 옳지 못하면 벌로써 신을 다스릴 것이요 충의(忠義)가 있다면 상을 주실 것이로되 어찌 신의 충정(忠情)을 못들은 척 하시나이까?<sup>8)</sup>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통감부에 이등박문이 부임하여, 을사보호조약을 체결시켰다. 이에 최익현은 다음과 같이 다시 상소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을 조인한 다섯 대신들<sup>9)</sup>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대역 죄인인 만큼 폐하께서 엄히 다스려 목을 베어 이 나라의 백년대계의 모범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오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후세에 어진 임금이라 일컬을 것이며, 신 또한 목숨을 걸고 병졸들과 합심하여 백성들의 사기를 돋구어 간악한 왜군을 징벌할 것을 맹서하옵고, 백성들의 충성은 만고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일개 국왕이 외세에 불복하여 침략행위를 부정 거부하여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세우고 우방을 만들어 침략의 썩기를 막는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중요한 시기에 통촉하시어 음흉한 간교에 속지 마시고 다섯 대신들의 목을(파직) 쳐 벌하소서.<sup>10)</sup>

그러나 당시에 을사보호조약을 반대한 몇몇 고위 대신들은 화를 입게 되었고, 일제는 다음과 같이 소위 한일신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sup>11)</sup>을 만들어서 식민지 정책을 펴 나갔다.

이것으로 일제는 완전히 조선의 정치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 후에 조선의 군대는 해체되었고, 최익현은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의병을 모아 왜군을 섬멸하려고 동분서주하며 노력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 헌병에게 붙잡히어(1906년 6월 25일) 일본군사령부가 있었던 대마도에 송치되어 3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왜식(倭食)을 거절하며 단식하다가 고종에게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1906년 11월 17일) 그곳에서 순직하였다.

8) 이러한 증언은 윤보라의 가문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을 필자가 청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9) 당시에 을사보호조약 조인은 다섯 명의 대신, 즉 외무대신 박재순, 내무대신 이지용, 군무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나중에 총독부감이 되었다), 그리고 농상공대신 권충현 등이다.

10) 이 내용 역시 윤보라의 증언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11)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정부는 시정(施政)을 통감(이등박문)의 지시를 받을 것.
2. 조선의 법령 제정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3. 사법은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
4. 고등 관리의 임명은 통감이 임명한다.
5. 통감의 추천으로 일본인을 관리로 고빙(雇聘)한다.
6. 통감의 허가 없이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못한다.
7. 명치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 협약을 폐지할 것.

## 5. 아리실 교회

고종에게 몇 차례 상소를 하였지만 사태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최익현(崔益鉉)은 자신의 외동딸이었던 최기남(崔己男)을 윤영채(尹榮彩)와 혼인시켜 짝만 맺어주고 아리실의 산골마을로 피신시켰다. 이 때부터 아리실은 귀양골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숨어 살기에 좋은 장소이다. 이미 그 무렵에 아리실에는 교회가 있었다.<sup>12)</sup>

당시에 아리실 지방은 서양 선교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도서관 목사, 변조진 목사, 로해리, 위철지 목사 등이 수고를 하였다. 그들은 아리실에 올 때마다 교인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였고 무엇인가 기록하여 본국인 미국에 보고를 하였는데, 일본 순사들은 이것을 수상하게 여기고서 그들을 스파이로 짐작하여 놓고 항상 뒤 따라 다니면서 감시를 하였다. 아리실 주민들의 눈에 서양 선교사들은 이상하게 보였다. 선교사는 항상 곡상(지금의 요리사)을 대동하고 다녔다. 곡상이 등에 짐을 한 짐 지고서 선교사를 따라 왔는데, 짐을 마당에 내려 놓자마자 우선 구수한 커피부터 끓였다. 동네 주민들은 그 구수한 냄새에 신기한 듯 모여들었고, 한 잔씩 나누어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었다. 선교사는 2-3일씩 아리실에 머물렀는데, 집안 밖에 있는 변소를 왕래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모든 용무를 방안에서 해결하였다.<sup>13)</sup>

외동딸 최기남이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아리실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최익현은 외동딸을 그곳에 보낸 것이었다. 이 때에 소훈식도 교회 가까운 곳에서 살며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아리실에 가서 어느 집의 머슴으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sup>14)</sup>도 깨치게 되었는데, 그 집주인이 그를 신실한 청년으로 인정하여 데릴사위로 삼고자 작정하였다.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며 온전히 성수주일 하는 일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주일에 예수를 철저히 믿으며 주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주일에 해당하는 품삯을 제하기로 결심하고, 그 주인에게 “내 새경을 빼시오”라고 말하였다. 주일 품삯도 제하면서 피눈물 나는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교회에서 받은 성경책과 달력이 온데 간 데가 없어져서 그 집 주인에게 물으니, “내가 모두 뒷간에 버렸으니, 너는 딴 생각 말고 짐승처럼 일이나 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그 날로 그는 그 집을 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누이들과 다시 만나서 오미실에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sup>15)</sup>

어느 가을에 벼를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아리실에서 윤영채가 오미실로 찾아와서 “훈식아! 내 딸을 네게 주마! 너 내 딸하고 결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는 일하다 말고 놀라서 “제가 아리실에서 남의 집에 머슴살던 사람인줄 모르세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도 “머슴 살던 사람을 사위 삼는 사람도 있나!”라고 대꾸하였다. 윤영채는 “아, 그런 건실한 사람도 드뭅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이오”라고 주저 없이 대답하였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수소문 끝에 사윗감을 찾아 왔는데, 그가 그냥 돌아갈 까닭이 있었겠는가?<sup>16)</sup>

12) 처음에 아리실 교회는 감리교단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후에 장로교단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한국 기독교장로회에 속해 있다. 교단이 바뀐 이유는 1909년에 체결된 전도구역 분할 협정을 따라서 장로교단 지역 내에 있는 교회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관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리교회가 장로교회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13) 이상의 내용은 윤보라의 증언에 기초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14) 소훈식은 부친이 훈장이었기 때문에,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학을 깨치게 되어서 일찍부터 서삼경을 읽었다.

15) 이상의 내용은 소요한 장로의 슬하에 있는 6형제중의 셋째 아드님인 소동욱의 증언에 기초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16) 이상의 내용은 소요한 장로의 셋째 며느님인 장예의 증언에 기초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소훈식은 나이 24세 때에 최익현의 외손녀인 방년 17세 처녀 윤금성(尹金姓, 1899년 9월 14일 음력 - 1958년 2월 25일 양력)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 6. 장로 장립과 권서인의 소명

결혼한 후에 소훈식은 그의 이름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이름을 소요한(蘇堯翰)으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나무를 심는데 공을 기울인 그가, 이제는 요한이 되어서 복음전도 일념으로 살겠다고 신앙적인 전환을 이루려고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1918년에 오미실 인근의 김양 교회<sup>17)</sup>에서 27세인 약관의 나이에 장로로 장립되었다.<sup>18)</sup> 결혼 직후에 부인은 김양에서 냉면 장사를 하였는데, 남편이 장로로 장립된 이후에 곧바로 가게를 처분하였다. 주의 종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냉면 가게를 처분한 후에, 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중에, 선임 장로이던 유 장로라는 분이 김양 교회의 조사<sup>19)</sup>로서 교회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소 장로를 찾아가서 “대영성서공회의 매서 전도인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천거를 하였다. 당시에 권서인이 되는 조건으로 믿음을 첫째로 꼽았다.<sup>20)</sup>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권서인으로서 그 험난한 복음전도의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소요한 장로가 복음전도를 위해 쉽게 권서인으로 나서게 된 당시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소요한 장로의 권서 활동과 거의 동시대에 한국에서 전개되었던 선교활동을 보고한 적이 있는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에 의하면,<sup>21)</sup> (1) 종교적 공백 상태에서 수 천년 동안 민속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점과 (2) 기독교를 통해서 서양의 문명과 문물을 받아들여려는 점과 (3) 한국인들의 복음전도를 위한 지대한 관심과 열심을 들 수 있겠다. 세 번째의 이유와 관련하여, 소요한 장로의 경우는 당시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 지녔던 구령 소명이 권서인으로 부름을 받게 된 가장 큰 배경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한국교회의 전도열성을 세계 교회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1911년에 영문으로 발간된 『코리아 미션 필드』란 잡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의 전도열을 소개하고 있다.

17) 김양교회(현재 교회 이름은 용인장로교회이다)는 1905년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1970년에 용인시 김량 장동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500여명이 회집하는 교회이다.

18) 소요한 장로가 남긴 유품 가운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 수정판(조선 예수교 장로회 발행, 1934)을 보면, 당시 장로는 27세에 장립할 수 있었다. 제5장에 치리장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조 장로직의 기원

률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잇습과 갖치 복음시대에도 목사외에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택립 하였나니, 곳 치리장로니라.

2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이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동일한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치리 하나니라(뫼전 5:17, 롬 12:7, 8).

3조 장로의 자격

27세이상 남자중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잇스며 뫼전 3:1-7에 해당한 자로 할 것이니라.

19) 지금의 전도사이다. 당시에 유 조사는 월 20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20) 이상의 내용은 윤보라의 증언에 기초하여 필자가 재구성을 한 것이다.

21) Arthur J. Brown, *One Hundred Years* (New York: Fleming H. Revell, 1936), pp. 420-423.

고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도급 10만 날을 이 사업<sup>22)</sup>에 바쳤는데, 지난 겨울에 개인 전도에 사용한 일수는 7만 6천 날이었고, 금년 가을에도 수백 명의 한인 전도인들이 가가호호를 심방하는 활동과, 대집회에 출석한 구도인(求道人)들과의 개인적 접촉을 위하여 한 달을 온통 바쳤다. 수백만 배의 전도지와 한인 성도들이 대금을 내고서 믿지 아니하는 동포들에게 70만 권의 마가 복음을 무료로 배부하면서 복음을 읽고 믿으라는 간곡한 권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치고 심방을 받지 아니한 가정이 거의 없었고 심방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sup>23)</sup>

당시의 이러한 전도열이 소요한 장로로 하여금 권서인으로 소명을 갖게 하였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 7. 사역 경로

소요한 장로의 권서 사역은 1918년부터 1938년 은퇴하기까지 만으로 20년<sup>24)</sup>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가 권서인으로 사역을 시작하던 해인 1918년에 권서인 총수는 144명(혹은 148명)이었고, 권서 직에서 은퇴하던 해인 1938년에 권서인 총수는 65명(혹은 78명)이었다.<sup>25)</sup> 그가 맡은 전도 구역은 경기도 남쪽 지역이었다. 1909년에 체결된 선교분할 정책은 다음의 3개의 경로<sup>26)</sup>로 나누어서 복음 전도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제1 경로:

서울 - 시흥 - 수원 - 성환 - 천안 - 충주 - 상례 - 전주 - 남원

제2 경로:

서울 - 판교 - 용인 - 죽산 - 진천 - 증평 - 청주 - 보은 - 영동

제3 경로:

서울 - 광주 - 이천 - 을죽 - 연풍 - 제천 - 영춘 - 영주



소요한 장로의 전도 구역은 제2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였다. 걸어서 다닌 전도사역은 문자 그

22)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업은 당시 한국교회가 힘썼던 ‘날 연보’ 전도사업을 가리킨다.

23) “The Million Movement and Its Results,” *The Korea Mission Feild* (January, 1911), 5. 김인수, “초기 한국 개신교회 급성장의 원인연구,” 『하나님 나라와 선교: 서정운 명예총장 은퇴 기념 논문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19-120에서 재인용.

24) 권서인을 만 20년 이상 봉직한 사람은 소요한 장로 이외에도 강원 지역의 이선용, 강원 황해 지역의 이태관, 서울 지역의 이성실, 경기 지역의 송순명, 경성부의 신영희, 무지역의 양익환, 안성 지역의 이성근, 경기 지역의 이용석, 경기 지역의 장운교, 양산군의 김기화, 고성군의 김태호, 경남 지역의 이봉은, 초산군 자성군의 김인도, 함흥 지역의 김정현, 함남 지역의 남충만, 함남 지역의 장호근, 무산군의 한응구 등 총 18명에 불과하다. 안성 지역의 이성근은 소요한 장로와 함께 똑 같은 해에 권서를 시작하여 똑 같은 해에 권서를 마친 동료이다.

25) 권서인의 숫자에 차이가 나는데, 이는 연례보고서와 집계계의 오차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1938년도의 경우만을 언급한다면, 당시의 연례보고서에 의해 집계된 총 판포량 가운데 권서인에 의한 판포량이 779,478권이고 권서인 1인당 판포량이 11,990으로 계산이 되므로 위의 65명의 수치가 옳바르다고 말할 수 있다.

26) 안재명, 『충청북도에 복음이 들어 온 이야기, 장로회 초기선교사들과 초기교회를 중심으로』 (청주: 주성사진문화인쇄, 1999), 23.

대로 배고픔을 참고 다녀야 하는 길이었다. 시장한 것을 견디다 못해서 남의 콩 밭에 들어가서 한 움큼 손에 쥐고는 그 집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날 콩으로 주린 배를 달랬다. 어떨 때는 날 옥수수를 한 자루 들고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모두들 어렵게 살고 있는 마당에 쪽 복음과 성경책을 사려는 사람을 거의 없었다. 소 장로는 거의 나뉘주다시피 쪽 복음과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전도를 하였고,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배우면서 침술과 한약제를 짓는 훈련을 받았는데, 권서 사역을 가는 곳마다 아픈 병자를 치료하면서, 때때로 후한 대접도 받으면서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였다. 고무신을 아끼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다가 전도하려는 동네 어귀에 당도하면 그 때에야 신발을 신었다. 얼마나 걸어 다녔던지, 가을에 밤송이를 깔 때 맨발로 밤 가시를 밟고 발뒤꿈치로 깔 정도였다.<sup>27)</sup> 집을 떠나서 한 번 전도를 나가면 일 주일은 보통이고, 이 주일이나 삼 주일도 걸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씩도 나가 있었다. 집을 떠나 있다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 올 때, 소소한 장로는 항상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크게 불렀기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호롱불을 밝히고 다같이 달려 나아가 기쁨으로 동네 어귀에서 상봉하였다. 소소한 장로는 귀가하여 한두 주일 정도를 집에 머물다가, 다시 전도여행에 나섰는데 일년에 대략 40주간 정도를 전도사역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8.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성경전서와 쪽 복음을 담은 께짜를 그대로 등에 지고 20년을 도보로 다닌 고된 일로 인해서 소소한 장로의 등에는 ‘ㄱ’자 모양의 굳은살이 박혔고, 어깨에는 께짜를 지기 위해 잡아맨 새끼줄로 인해서 뱀이 지나간 것 같은 흉터가 잡혔다고 한다. 노래(老來)에 소소한 장로는 후유증인 지는 알 수 없으나, 허약한 체질로 인해 몸이 아프고 냉해질 때마다 값싼 독부자탕<sup>28)</sup>을 다려 먹었다고 한다. 좀 약을 과하게 들었을 때 그의 수족이 뒤로 넘어가서 식구들이 달라붙어 손발을 주물렀고, 아내인 윤금성 권사는 녹두를 씹어서 그 즙을 짜서 입에 넣어 위기를 넘기곤 하였다고 한다.

소소한 장로가 환갑을 맞이하여 부인과 찍은 사진을 보면 그가 실제 나이보다 얼마나 더 들어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고된 복음전도 사역으로 인해서 육신에 온갖 질병을 다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록 가는 곳마다 한약재를 다려주고 침술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도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소소한 장로의 전도사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치 않고 계속되었다. 벽촌 마을에 가서 성경책을 내 놓으면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이는 “책 값이 얼마죠?” 라고 스스로 물으면 “아, 주시면 받지요!”라고 하면서 짤 뒷박을 받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그냥 나누어 주었다. 결국 그 값은 권서인 스스로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대영성서공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을 리 만무하므로, 공식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하였다. 어느 동네에 점잖은 노인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서 “세상의 잡신을 섬기지 말고 참신을 섬기라”고 말하자, 그 노인은 “아, 미투리는 아니고, 참신입니까?”라고 말하면서 반문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 서민들은 주로 쫄신을 신고 다녔는데, 모처럼 나들이를 할 때 미투리를 신고 나갔다. 시집 간 딸이 친청집을 찾아갈 때 미투리를 신고 가기도 하였다. 소소한 장로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골 영감

27) 소소한 장로의 셋째 며느리인 장예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도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 같은 사실에 관하여 눈시울을 적시면서 증언한다.

28) 옛날에 부자는 녹용과 인삼을 넣은 한약을 먹고 몸을 댔었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만을 끓여서 먹었다.



은 농으로 받아 넘겼다는 뜻이다.

## 9. 공식 기록

소요한 장로는 한 달에 20-30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았고, 20년 봉직하고 은퇴하던 달에 40원을 받았다. 그는 미국북장로교(NP) 소속으로 공식적으로는 용인군 원산면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였고, 그를 감독한 선교사는 탐스(J. U. S. Toms), 코엔(R. C. Coen),

윈(G. Winn) 목사였다.

민휴선생실기(閔休先生實記)<sup>29)</sup>를 근거로 기록된 『대한성서공회사』 II에는 소요한 장로의 20년 권서 사역 중에서 단 8년 동안의 업적보고만이 정리되어 있는데, 1918년부터 1920년까지, 1922년부터 1923년까지, 그리고 1928년부터 1930년까지 그는 성경전서 41권, 신약전서 혹은 구약전서 505권, 단권 쪽 복음 104,830권을 반포하였는데, 8년 동안의 기록상으로 볼 때 총 105,376권을 반포하였다.<sup>30)</sup>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12년을 합산하면 서너 배에 이르는 분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권서인으로서 소요한 장로의 활동은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전도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소요한 장로가 권서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해인 1918년에 함경도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영(L. L. Young) 목사는 권서인이 하룻밤 묵을 집도 없이 노숙까지 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본부에 보고하고 있다.

나는 조선 권서인들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일은 어렵지만 그들은 즐겁게 수행해 내며 거의 예외 없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선교지역에 사용되는 모든 외국 돈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권서 사역에 쓰여진 돈이라는 것이 나의 솔직한 의견이다.<sup>31)</sup>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의 권서 사역은 수지타산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손실이었음이 선교사들 사이에 감지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가장 값어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된 것은 권서 사역이 전도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소요한 장로는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가서 단지 성경책을 파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는 선교사들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였고, 세례 받을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후에 그들을 선교사에게 연결하여 세례를 베풀도록 하였다. 당시에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낯선 외국의 선교사들에게 권서인들은 무척 요긴한 선교 동역자요 선교의 첩병이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요한 장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 10. 사역의 특징

29) 양주삼 정태웅 편찬, 『민휴선생실기』 대영성서공회, 1937.

30) 『대한성서공회사』 II, 411, 433.

31) 참고, *The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for 1918*, 133. 『대한성서공회사』 II, 365에서 재인용.

소요한 장로는 권서직에 재임하는 동안에 전도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공부 인도와 사경회도 인도하였다. 그가 전도여행 중에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작업도 해 주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아픈 사람을 만나면, 침을 놔주고 한약제를 지어주었는데, 환자들은 그의 정성과 수고에 감동하여 예수를 잘 믿었다. 그는 자신이 정성을 쏟으며 힘껏 바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갔다. 그 후에 그 중에 몇 명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는데, 그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해마다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의 조사와 협력하여 사경회를 인도하기도 하였다.



가

소요한 장로가 남긴 유품으로 그의 권서 활동 초기와 거의 일치하는 1923년에 대영성서공회에서 국한문으로 발간된 신약전서를 보면, 그는 각 장의 여백을 촘촘한 글씨로 가득 메웠는데, 그 모든 내용이 설교를 위해 인용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서 그때 그때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성경의 앞 뒤 서너 장의 여백을 가득 채운 성경 연구 자료(예를 들면, 예수의 비유 45개, 예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심, 12사사의 명단, 유교의 내세관, 각 국의 이상한 것, 출애굽기 개요,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예언, 예수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한 내용,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 말씀 10개, 7시대 구분 등)가 모두 성경 구절과 더불어 나오고 있는 점을 볼 때, 사경회를 위한 깊이 있고 면밀한 준비 자료인 것이 분명하다.

유족들은 한결같이 “아버님은 설교를 항상 재미있게 하셨어요!”라고 증언하는데, 이러한 증언은 그가 남긴 이야기책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그는 동서양의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서 한 권으로 책을 묶어 놓아 후손들에게 유품으로 남겨 놓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수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 11. 20년 은퇴 후에

권서직에서 은퇴한 후에, 소요한 장로는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문시랑(지금의 문촌리)에 거주하였고,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살 수 없게 되자 문시랑 교회의 사택에서 거주하던 중 1940년 3월 13일에 서울 영등포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소요한 장로는 서울에서 영등포 교회를 출석하며 봉사하던 중 1943년에 다시 그곳에서 시무장로로 취임을 하였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해 추운 겨울이었던 12월 30일에 처가가 있던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아리실로 피난을 가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 아리실에서 몇 달 거주하면서 쌀 네 가마를 모으게 되었는데, 1951년 이른 봄에 그것을 가지고 처가 동네를 떠나서 인근 마을인 이동면 어비리 수역이라는 마을에 있는 흥가를 사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소요한 장로는 수역에 이사한 지 8개월 정도 경과하는 동안에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 전도를 한 소요한 장로는 1952년 1월 3일에 동네 주민 40여명을 모아서 자신의 사랑방에서 수역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전쟁 중에 교회가 개척되었으니,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지만, 막 결혼하여 새 식구로 들어온 셋째 며느리<sup>32)</sup>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주 닭 한 마리를 잡아 드리면서 힘을 북돋았다고 한다.

수역교회는 소요한 장로의 사후(死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민병익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시무(1960년 3월부터 1962년 11월까지)한 교회이기도 하다.

현재 수역교회는 세 차례에 걸친 교회 건축 끝에 아담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교회인지라 언제나 어려움이 많아서 교역자들이 자주 바뀌고 있는 열악한 형편이다. 2002년 2월 현재(이명환 목사 시무) 세례교인의 수는 29명이며, 매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성인들의 수는 30여명이며, 주일학교 아이들은 15명이다. 참고로 교회 주소는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어비3리 수역동 1301-3이며, 전화는 031-332-6992이다.

---

32) 장예(張禮)는 1951년 10월 15일 (음력으로 9월 15일)에 소동욱(蘇東煜, 현재서울 영락교회 은퇴집사이다)과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7남매를 두고 있는데, 자식들 중에서 기천(基天)은 목사와 장신대 신약학 교수로, 기호(基昊)는 일본인 선교사와 다카하다 교회 담임목사로, 미국 유학 중인 기범(基範)은 전도사로, 기은(基恩)은 장로와 찬양대 지휘자로, 자부 중에 정민임(丁敏任)과 최희안(崔喜安)은 목사로 각각 일본과 미국에서 사역중이다. 현재 장예는 서울 영락교회의 은퇴권사로서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고 있다.